

제21기 가야학아카데미

| 가야 연구의 흐름과 시각 |



교 | 육 | 개 | 요

- 운영일시 : 2020. 5. 6. ~ 7. 1.(수·목), 14:00~16:00(2시간)
- 횟 수 : 강의 9회
- 장 소 : 강당
- 수료기준 : 9회 강좌 중 6회 이상 출석 시 발급

강 | 의 | 일 | 정

회차	일자	주제	강사 및 소속
1	5.6. (수)	가야사 인식의 변화와 역사 교과서	김태식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2	5.14. (목)	가야 건국신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상란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연구교수
3	5.21. (목)	민족·국가·발전 중심의 가야사 극복	윤선태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4	5.27. (수)	문헌자료에 기록된 가야, 그리고 해석	남재우 창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5	6.4. (목)	가야가 만든 동아시아 네트워크	김대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6	6.10. (목)	일제강점기의 '조선고적조사'와 가야유적	정인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7	6.17. (수)	『일본서기』 등 일본의 기록으로 본 가야	이근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8	6.24. (수)	전근대의 가야사 인식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전문위원
9	7.1. (수)	가야사 새로 읽기	주보돈 경북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강사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제21기 가야학아카데미
| 가야 연구의 흐름과 시각 |

- 1. 가야사 인식의 변화와 역사 교과서 7
- 2. 가야 건국신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29
- 3. 민족·국가·발전 중심의 가야사 극복 45
- 4. 문헌자료에 기록된 가야, 그리고 해석 65
- 5. 가야가 만든 동아시아 네트워크 87
- 6. 일제강점기의 ‘조선고적조사’와 가야유적 117
- 7. 『일본서기』 등 일본의 기록으로 본 가야 139
- 8. 전근대의 가야사 인식 169
- 9. 가야사 새로 읽기 207

제21기 가야학아카데미

| 가야 연구의 흐름과 시각 |



Part **1**

가야사 인식의 변화와 역사 교과서



김태식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I. 가야사 인식의 변화

1. 삼국 시대론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 '삼한 일통' 의식을 내세웠으며, 이는 승자인 신라인의 역사관이 그대로 담긴 것이다. 그리하여 신라 말기의 최치원은 마한, 변한, 진한의 삼한(三韓)은 곧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三國)이 되었으니 신라가 삼한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라고 하였고, 고려 시대의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그 역사관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고려 말의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조선, 발해, 가야를 추가 수록하였고, 조선 초기의 권근은 <<동국사략>>에서 삼한에서 삼국으로의 계승 관계가 그릇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부분 수정에 그치고 말았다.

이를 제대로 수정한 것은 조선 후기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이다. 거기서 그는 한반도 남부의 삼한은 백제, 신라, 가야가 되었고, 한반도 북부의 고조선은 한사군을 거쳐 고구려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로 인하여 한국사에서 잃어버렸던 가야사가 재발견되었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수광, 안정복, 정약용 등은 그에 동의하였다.

2. 임나일본부설

19세기 말 이후 일제 역사가들이 <<일본서기>>의 이른바 '신공황후 삼한 정벌 설화'를 강조하면서 가야사는 다시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임나일본부설로 발전하였으니, 곧 369년에 왜가 가야 지역을 정벌하여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백제와 신라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남한을 경영하였으며, 562년에 신라가 임나 관가를 공격하여 멸망시키자, 왜군이 철수하였다는 것이다.

임나일본부설에 반발하여, 천관우는 가야를 200년간 지배한 것은 왜가 아닌 백제였다고 하여, 가야를 희생시키고 백제를 치켜세움으로써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영남 지방에서 많은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져, 가야가 수준 높은 제철 기술과 토기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그들이 왜국이나 백제의 지배를 받은 고고학적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고대 한일관계는 가야사를 재정립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3. 가야 문화의 특징

1980년대 이후 가야사는 고고학 발굴 성과들을 토대로 새로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도 그

에 따라 재해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임나일본부설에 이용되었던 <<일본서기>> 기사도 이를 토대로 비판적으로 이용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가야 문화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야 문화의 첫 번째 특징은 이 문화가 남한 농경문화와 서북한 철기 문화의 결합에 의하여 탄생하였다는 점이다. 이 복합 문화는 김해, 창원 등을 중심으로 하여 경남 해안 지대 및 낙동강 유역 일대로 퍼져 나갔다.

가야 문화의 두 번째 특징은 낙랑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하여 문화의 기본 성격을 확정하였다는 점이다. 가야는 낙랑군을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경상 내륙 지방 및 일본열도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거기에 자신의 철 생산 능력을 더하여 번성하였다.

가야 문화의 세 번째 특징은 이 문화가 신라, 백제, 왜 등의 문화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문화로서 단정하고 보수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점이다. 가야 문화는 성립부터 멸망할 때까지 자신만의 독자적인 문화 성격을 유지하여, 신라, 백제, 왜와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가야 문화의 네 번째 특징은 이 문화가 낙동강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700년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가야 문화의 시작은 서력기원전 1세기 초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 기원후 562년에 대가야의 멸망을 끝으로 소멸되었다. 가야는 낙동강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독특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으니, 이로 보아 가야의 문화 능력은 백제나 신라에 못지않은 것이었다.

가야 문화의 다섯 번째 특징은 이 문화가 일본 고대 문화의 성립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왜는 4세기 이전 금관가야로부터 덩이쇠와 중국계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5세기 후반 내지 6세기 전반에는 대가야 계통의 장신구 및 마구 문화를 계승하여 고대 국가의 바탕이 되는 물질문화를 형성하였다.

가야 문화의 여섯 번째 특징은 가야 멸망 후 그들의 인맥과 힘이 신라에 합쳐져 삼국 통일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금관가야의 후손인 김유신이 신라 왕족인 김춘추와 함께 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으며, 對 중국 외교 문서는 임나가라 출신의 문사인 강수가 담당하였다. 문무의 양 측면에서 신라는 가야 유민들의 결정적 조력을 받은 것이다.

Ⅱ. 역사교과서의 가야사 서술

1. 초기 검인정 체제 교과서의 가야사 서술과 문제점

1) 국권 회복 직후(1945~1949) 교과서

5불행하게도 과거의 우리나라 학생들은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의 역사 교육을 받아왔다. 당시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일왕 슈진[崇神]의 임나 복속과 진구[神功] 왕후의 신라 정토가 역사적 사실처럼 서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이나 왕인 등은 일본의 한반도 남부 복속 및 정벌 이후 대륙에서 일본을 흠모하여 건너간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1945년 국권 회복으로 역사 교육의 주체가 우리 민족에게 넘어온 이후,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다양한 국사 교과서가 등장하였다. 당시 교과서들의 서술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사 교과서에서 임나 관련 내용은 없어졌으나, 그와 함께 가야사에 대한 언급도 거의 사라졌다.

그 원인은 일제 교과서에 가야 지역이 일본에 복속된 '임나'로 설명되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를 반박하는 연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국권 회복 이후에도 일반인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까지 이를 신빙하는 분위기가 상당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2) 1950~60년대(1950~1972) 교과서

1950년대에 들어와 피란 시절을 거치면서, <<삼국유사>>를 토대로 한 실학 연구 성과가 교과서에 들어와 김해 중심의 6가야 연맹설로 기준을 잡았다. 1950년대 중후반에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이 중시되면서 가야사에 대한 적극적인 언급이 약화되었다. 그 대신 변한의 철과 가야의 해상 교역을 중시하는 서술이 이어졌다.

1960년대 후반에 2국 중심 6가야 연맹설이 대두되었으니, 그 내용은 김해의 금관가야와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6가야 연맹이 있다가 신라에게 병합되었다는 것이 전부였다. 다만 이에 더하여 가야 연맹은 활발한 해상 무역으로 선진 문화권을 이루고 일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일본에 대한 우월적 관점이 추가되었다.

가야사에 대한 서술 분량은 대개 5줄 내지 10줄 정도이고, 더 이상의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권 회복 이후 거의 30년이 지나도록 가야사가 국사 교과서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은, 크게 보아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임나사 교육의 영향 때문이었다. 혹은 그 후의 사회 혼란, 가야사에 대한 학계의 연구 부진과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2. 국정 체제(1973~2009) 교과서의 가야사 서술과 문제점

1) 제3~4차 교육과정(1973~1987) 교과서

제3차 교육과정의 국사는 국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에 발간된 국사 교과서에서 가야사 서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6가야를 6개의 부족 국가로 보았고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2) 금관가야와 대가야의 위치를 지적하고, 그들이 세력이 컸다는 사실과 신라에게 통합된 사실을 거론하였다.

(3) 가야가 바다를 통해 낙랑, 백제, 일본 등과 교역한 사실과 일본에 문화를 전해 준 역할을 지적하였다.

(4) 가야가 신라보다 문화 수준이 높다고 하면서, 고령, 창녕 고분 유물이나 벽화의 우수성을 지적하였다.

이는 당시의 가야사 연구 수준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말들을 잘 정리해 놓았다고 할 수 있으나, 학계의 연구가 부진하여 그나마도 교과서 편찬자들의 과감한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연구 성과는 없었다. 즉, 1980년대 후반까지도 중등학교 교과서의 가야사 서술은 매우 소홀하고, 국권 회복 직후에 비해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2) 제5차 교육과정(1988~1992) 교과서

1990년도에 발간된 제5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가

야사 서술은 일단 분량이 1.5쪽으로서 기존의 것들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내용상으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여기서 새로이 나타난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2, 3세기경, 김해의 금관가야를 주축으로 하는 연맹체가 형성되었다.

(2) 가야 연맹은 5세기경 고구려와 신라의 압력으로 큰 타격을 받고 세력이 약화되었다.

(3) 5세기 이후, 가야는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은 고령 지방의 대가야로 중심이 이동되면서 연맹의 세력권이 다시 편성되었다.

(4) 가야의 유적, 유물로는 고령 지산동 고분, 부산 복천동 고분, 함안 말이산 고분, 창녕 계남리 고분 등과 금동관, 철제 무기와 갑옷, 토기 등이 있다.

(5) 가야 토기는 일본 지역에 전해져 스에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1980년대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 문헌 사학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교과서의 내용이 크게 보완된 결과이다. 학계에서 가야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그 성과들이 비교적 신속하게 교과서에 반영된 것이다.

애매한 2국 중심 6가야 연맹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2~4세기 김해 금관가야 중심의 가야 연맹체가 5~6세기 고령 대가야 중심의 가야 연맹체로 전환된 점을 언급한 것은 기존 교과서에서의 가야사 서술과 차원을 달리 하는 일단의 혁신이었다. 그 원인이 고구려와 신라

의 압력으로 금관가야가 큰 타격을 입은데 있다고 본 것도 중요하다.

가야 문화의 수준을 보여 주는 유적, 유물로 고령, 부산, 함안 등의 대표적 고분들을 제시하고, 가야 토기가 일본의 스에키 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도, 그동안의 가야 고고학의 발전을 잘 보여 준 것이다.

다만 본문은 전기 및 후기 가야 연맹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도는 기존의 6가야 연맹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어서 가야사에 대한 혼동을 주었다.

3) 제6차 교육과정(1993~1997) 교과서

1996년도 국사 교과서의 가야사 서술은 1990년도 판의 것과 내용상의 기초를 같이 하면서 분량이 세 쪽으로 대폭 늘어났다.

늘어난 부분으로는,

- (1) 금관가야의 시조인 김수로의 이름을 거명하고,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언급한 점,
- (2) 고령, 합천 등의 소국들은 농업 입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던 바닷가에 경남 해안 지방으로부터 토기의 제작 기술이 보급되고 수공업이 크게 일어나 번성하였다는 점,
- (3) 대가야가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고 신라-백제와 동맹하여 고구려에 대항했다는 점,
- (4) 6세기 전반에 가야 연맹이 백제, 신라 등의 침략을 받아 그 남부 지역부터 축소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5) 대가야가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세력을 유지하다가 얼마 후 자체 분열에 의하여 약화되어 신라에게 병합되었다는 점 등이 있다.

이 역시 1990년대 전반의 가야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 가야사 연구 성과를 대폭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교과서에 비하면, 가야사 서술은 혁신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가야사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점은 국권 회복 이후 교과서 內 가야사 서술이 거의 40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것에 비하면, 1990년도 판 교과서에 이어 급진적 발전이었다. 다만 관련 용어에 부정확한 표현이 적지 않고, 가야사 지도가 아직 6가야 지도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였다.

4) 제7차 교육과정(1998~2009) 교과서

2002년도에 발간된 제7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는 전근대사만 국정 체제로 남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분류사로 배열한 것이 특징이다. 교과서의 판형이 커지고 칼라 도판이 추가되었다는 것도 인상적이다.

전에 비해 추가된 내용으로는,

- (1)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가야 연맹은 5세기 후반에 그 세력 범위를 소백산맥 서쪽까지 확장시켰다고 본 점,
- (2)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전기 가야 연맹,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 가야 연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 (3) 가야 연맹의 영역이 소백산맥 서쪽까지 연장된 것을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점,

(4) 2003년도 판부터 기존의 6가야 지도를 대체하여 전기 가야 및 후기 가야의 지도를 별도로 제시한 점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가야사 서술의 분량은 늘지 않았으나, 가야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나 이를 지도로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가야사 교육이 안정되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치를 제외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가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문제였다.

3. 제8차 교육과정(2010~2019) 교과서의 가야사 서술과 문제점

1) 7종의 검인정 교과서

제8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사 교과서가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의 전 시대를 다루는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다. 중학교 역사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섞으면서 정치와 문화를 위주로 설명하고, 고등학교 한국사는 정치를 간략하게 하면서 사회, 경제, 대외 관계, 사상을 좀 더 기술하는 것으로 차별화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 출간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가야사 서술은 지학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검인정 교과서에서 부족한 모습을 나타냈다. 서술 분량이 1쪽 내외로 대폭 후퇴한 것도 있고(동아출판), 소국 연맹체와 연맹 왕국, 연맹 국가의 개념에 혼동이 있는 경우도 있고(교학

사/천재교육), 전기 가야와 후기 가야의 영역 지도를 구분하지 않고 1990년대 이전 교과서 수준으로 위축시킨 경우도 있었다(비상교육/천재교육/미래엔/좋은책신사고).

다만 종이 질이 좋아지고 판형이 커진 것을 이용하여, 금관가야의 왕릉으로 김해 대성동 고분군, 대가야의 왕릉으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 사진을 크게 게재한(천재교과서/금성출판사)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박스 기사 속에 금관가야 왕족인 김무력과 김유신을 언급하거나(좋은책신사고), 삽화를 넣어 수로 신화를 게재하는(천재교과서/금성출판사/교학사) 등의 시도도 바람직하다.

2014년에 출간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가야사 서술은 분량이 1쪽 정도에 머문 것이 보통이고(동아출판/리베르/미래엔/천재교육/비상교육/교학사), 전기 및 후기 가야의 지도를 구분하지 않았으며(비상교육/천재교육/리베르), 사회, 경제, 사상, 대외 관계 분야에서는 가야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7종 모두).

검인정 체제의 가야사 서술은 대부분 기존의 제7차 교육과정 국정 교과서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다소 퇴보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필진의 부족으로 기존의 가야사 연구 성과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지학사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지학사에서 출판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가야사 서술은 정치 분야에 삼국과 똑같이 5쪽을 할애하고 문화 및 대외 교류 분야에도 많은 추가 언급이 있었다.

* 가야의 정치 분야에 새로이 나타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기원전 1세기 초부터 경남 김해와 창원 일대에 한반도 서북부의 앞선 철기 문화를 가진 집단이 들어왔고, 기원후 2세기 후반에는 여러 소국들이 출현하였다.

(2) 가야의 수로왕 신화에는 이주민의 철기 문화와 토착민의 농경 문화가 결합하여 소국이 출현하는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3) 김해 대성동 고분군 출토품에 북방 계통의 청동 솥, 마구, 중국의 청동 거울, 일본 계통의 바람개비 모양 방패 꾸미개 등이 있어서 이곳이 국제 교류의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백제가 6세기 초에 섬진강 하류를 통하여 왜와 직접 교역하려고 압박하자 가야 연맹은 호남 동부 지역을 상실하였다.

(5)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 동맹에 따른 책략으로 가야 연맹이 분열되어 금관가야 등의 소국들이 신라에 투항하였다.

(6) 6세기 중엽에 가야 연맹은 대가야와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분열된 채 백제와 신라 양쪽에 시달리다가 백제 성왕의 보호를 받고자 했다.

(7)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한반도 안에서 교류와 전쟁의 세력 각축 과정에서, 가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역사를 전개해 나갔다.

(8) 가야 연맹은 수백 년에 걸쳐 자신들의 독자성을 유지하였고, 멸망 후에는 그 인원과 문화 능력이 신라에 융합되어 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9) 가야 연맹은 '소국 연맹체'의 왕권을 강화하여, 5세기 후반 내지

6세기 초에 '초기 고대 국가'(=연맹 왕국)로 성장하였으나,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달리 '성숙한 고대 국가'(=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6세기 중엽에 멸망하였다.

* 가야의 문화 및 대외 교류 항목에서는 우록 외에 다음 항목들이 추가되었다.

(1) 가야의 고분은 전기에 널무덤과 덧널무덤이 주를 이루었으나 후기에는 돌덧널무덤에 거대한 봉토를 씌우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2) 가야에서도 금동관 등의 수준 높은 금속 세공품 등이 제작되었다.

(3) 가야는 일찍부터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낙랑, 왜 등과 활발하게 교류하였으며, 후기 가야 연맹은 백제와 왜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면서 발전하였다.

3) 지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지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정치사를 제외한 분류사 방면에서 가야사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었다.

* 가야의 사회 경제 분야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1) 가야에서도 백제나 신라 못지않게 농업이 발달하여 벼, 기장, 보리, 조, 밀, 콩, 팥 등을 재배하였고, 개, 돼지, 소, 말, 닭 등의 가축을 사육하였다.

(2) 가야는 3~4세기경에 덩이쇠를 규격별로 정형화하였으며 대규모 철 생산 전문 집단과 철기 제작 집단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3) 가야 고분에서는 귀금속 유물들이 출토되어 귀족 계급의 성장 모

습을 나타내며, 지배층의 장례에 대대적인 순장을 실시하였다.

(4) 가야 사회에서 순장이 성행한 것은 각 단위 소국 수장이나 연맹장의 권력이 강화되었으나, 아직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가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현상이다.

* 가야의 대외 교류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나타났다.

(1) 가야는 3세기까지 주로 낙랑군과 교역하였으나 낙랑군이 멸망한 이후에는 백제를 거쳐 중국의 문물을 수입하였다. 그 외에도 해로를 이용하여 북방 민족 계통의 철제 갑옷과 마구 등을 받아들였으며 중국 남조의 제에서 쟁 등을 수입하였다.

(2) 초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일본열도와의 교역을 주도하였다. 가야는 일본 지역에 덩이쇠, 철제 무기, 갑옷 등과 함께 낙랑군을 통해 수입한 선진 문물을 전해 주었고, 그 대가로 노동력이나 군사력을 제공받았다.

(3) 5세기 이후에는 고령의 대가야가 왜와의 교역을 주도하였다. 후기 가야는 일본열도에 도질토기, 장신구, 마구 등을 수출하고 철 생산 기술을 전해주었다. 이처럼 가야는 야마토 정권이 고대 국가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물질문화를 전파하였다.

(4) 백제는 처음에 가야와 규슈 지방 세력을 매개로 나라 지방에 중심을 둔 왜국과 교역하였으나, 6세기 전반에는 호남 동부의 가야 계통 소국들을 점령하고, 규슈 지방을 복속시킨 왜국과 직접 교역하기 시작하였다.

* 가야의 사상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1) 대가야 이뇌왕의 아들 월광태자는 석가모니 전생의 이름이므로 가야에서도 불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가야가 멸망한 후 월광태자는 가야산에 월광사를 짓고 말년을 보냈다.

(2) 가야는 6세기 중엽에 백제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대가야 마지막 시기의 고령 고아동 벽화 고분 천장에 그려진 연꽃무늬는 백제 계통 불교 문화를 상징한다.

이로 보아 지하사의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가야 관련 서술이 대폭 늘어 가야의 정치 전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대외 교류, 사상 등에 대한 내용이 골고루 추가되었다.

4. 중등학교 교과서의 장래 가야사 서술 방향

중등학교 교과서의 가야사 서술은 1990년대 이후 큰 진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근본적으로 보아 가야사는 아직도 가야를 제외한 삼국 시대 체제 내에서 불편한 대우를 받고 있을 뿐이다. 그 체제를 그대로 두고 아무리 가야사의 서술을 늘인다 해도 한계가 있어서, 삼국의 고대 국가 형성과 발전을 논하는 자리에 가야의 역사를 덧붙여 나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앞으로는 모든 검인정 교과서에서도 가야사에 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분의 내용을 모두 언급해야 하며, 삼국 통일 이전의 한국 고대를 사국 시대로 규정하고 가야에게 그 일국의 지위를 인정

해 줄 때가 왔다. 몇 가지 원인이 중첩되다보니 최종적으로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한계성은 있으나, 가야가 차지했던 時空의 규모, 문화 수준의 우수성에 비추어 볼 때, 가야사는 그만큼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더욱이 가야사를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일본 식민사관의 임나일본부설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正道이다.

〈참고문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2002.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서의 가야사>>, 해안.

김태식, 2014.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 서울: 서경문화사.

정재정 외, 2013. <<중학교 역사 1>>, 지학사.

정재정 외,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NOTE

Blank lined area for notes.

NOTE

제21기 가야학아카데미

| 가야 연구의 흐름과 시각 |



Part _ **2**

가야 건국신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상란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연구교수

1. 신화 체계화의 관점이 필요한 이유

가야의 건국신화는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부침했던 개별 전승들의 얽힘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개별 전승들의 신화적 의미와 그것들 간의 관계가 가야 건국신화의 특징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전하는 문헌 내의 신화 문맥에선 개별 전승들의 형태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른 것에 밀려 현저히 축소되어 있거나 감춰져 있고, 혹 다른 것과 중첩되어 있거나 맞서 있어 원래의 신화 형태는 알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약하게나마 남아 있는 애초의 신화 요소를 토대로 원래의 신화 형태를 재구할 필요가 있다. 정견 모주 신화, 9간 신화, 수로왕 신화가 그것이다.

개별 전승은 애초 독자적인 하나의 신화로서 가야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신화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성모 신화 내지 시조 신화로 존재했다가 역사상 중대한 시기에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신화로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체계화라 한다.

체계화의 시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앞선 단계의 것을 이어받되 당시의 역사적 필요성에 따라 거기에 여러 신성 요소를 보태 신화를 재조직하는 능동적인 작업이 상정된다. 건국신화란 기존의 신화에 여러 다른 신화 요소를 보태 그것들을 건국의 과정과 의미를 설명한다는, 일정한 목적에 맞게 조직한 것이다. 물론 체계화의 주체는 물론 현실 정치 집단이다. 가야의 경우는 멸망한 이후 왕실의 후손이 신라의 지

배적인 정치 집단에 편입되었다는, 특이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신화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가야의 건국신화는 체계화의 개념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2. 가야 건국신화의 개별 전승

1) 정견모주 신화

5세기 후반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국인 고령 대가야 건국 신화의 흔적으로 보인다. 가야산신인 정견모주(正見母主)가 천신에 감응하여 대가야의 건국주인 뇌질주일(惱室朱日)과 금관 가야의 수로를 가리키는 뇌질청예(惱室靑齋)를 낳았다는 것이다. 산신으로서의 성모가 건국주, 특히 형제 건국주를 낳았다는 것은 고대적인 신화의 발상으로서 볼 만한 것이다.

정견모주 신화는 수로 전승을 포함하고 있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물론 현전하는 자료가 그것을 떠받칠 만큼 온전한 서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가야의 망국과 더불어 그 건국 신화인 정견모주 신화가 후대에 확장되고 윤색될 기회를 잃고 소멸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접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문자로 정착된 신

화의 파편들일 뿐이다. 하지만 신화 연구는 이런 것들을 모아 과거의 전승 양상을 짚어 보는 데 의미가 있다.

성모가 알의 형태로 형제를 낳은 것, 그 둘이 각각 같은 지역 내 맹주국의 건국주가 되었다는 것은 가야사의 특수성 즉, 연맹체 내의 역학관계에 따라 제 부족이 이합집산을 했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정견모주 신화가 건국신화로서의 정형성을 잃고 건국주의 탄생담만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고대 국가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망한 가야사의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요컨대 가야 건국 신화의 핵심적 전승 요소는 형제 난생이다. 정견모주 신화는 그러한 요소로써 한 때 가야 전 지역의 시조 신화로 존재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가 그 뒤 6형제 난생으로 이어져 수로 신화에 포함될 것이다.

2) 9간 신화

『가락국기』의 수로왕 신화는 두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첫 부분의 9간 신화이고 다른 하나는 수로왕 신화이다. 이들은 독립적인 신화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락국기』는 크게 두 개의 층위 즉, 9간 신화와 수로왕 신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은 별개로 전승되어 오다가 어느 시기에 이르러 현전 문맥대로 결합되었을 것이다.

‘후한 광무제’라는 역사적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신화 발상의 시점상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한 아홉 추장이 백성들을 통솔했다는 것, 그들 모두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 그것대로 완결된 신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론 현전 문맥에선 탄생담을 비롯한 그들의 신이한 행적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전승 과정에서 탈락되었을 것이며 애초에는 9간 신화가 그 자체로 신이한 탄생담을 지닌 시조 신화였을 것이다. 이것이 그보다 앞선 시기에는 아홉 명의 추장 각각의 시조 신화였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시조 신화에서 탄생담이 탈락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것이 시조 신화의 본질적인 신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9간 신화에 있었을 탄생담이 단지 오랜 전승 기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탈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여기에는 어떤 특정 시기의 계기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수로왕 신화와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수로왕 신화에는 다양한 전승들이 얽혀 있지만 그 중 6년생담만이 원초적인 것이라 할 때 탄생담으로서의 확장된 양상을 띠고 있다. 9간 신화에는 있어야 할 아홉 개의 탄생담이 생략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수로왕 신화에는 6년생담이 들어 있는 것이다. 전자는 축소되었고 후자는 확장되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축소와 확장의 긴장 관계 속에서 9간의 탄생담이 탈락된 것이 아닌가 한다. 확장된 탄생담이 마련되어 있는 수로왕 신화와 결합되는 국면에서 9간의 탄생담은 들어설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현전 문맥에선 수로왕 신화의 확장된 서사 구조에 밀려 축소, 생략되어 있지만 9간 신화는 애초에 신이한 탄생

담을 지닌 시조 신화로 한 때 절대적 신성성을 구현했을 것이다. 문제는 수로왕 신화에 9간 신화가 첨부된 것은 어떠한 맥락에서인가 즉, 전자가 후자를 필요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가락국기』의 수로왕 신화는 다양한 전승을 동원하여 수로의 신성성을 강조하느라 장황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우선 『가락국기』의 수로왕 신화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수로를 맞이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추장이 아홉일 뿐더러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이 7만 5천명이고, 9간을 비롯하여 산상에 있던 일반 백성들이 2, 3백 명이 있었다. 특히 9간과 백성 2, 3백 명은 황금란 여섯 개를 둘러싸고 놀라고 기뻐하며 12시간 후 알이 동자로 변했을 때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경배했다 한다. 즉, 이들은 수로의 탄강과 즉위의 목격자로서 의미 있는 존재들이다. 수로는 일방적으로 군림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어떤 건국주에 못지않게 선주민들의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추대 과정이 있었음을 9간 신화는 말해 준다. 현실적인 절박한 사정이 없었기에 9간의 적극적인 역할은 수로의 신성성을 더욱 강조하는 셈이 된다. 그들의 수동적인 듯한 자세도 신성을 목격한 자가 취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만큼 수로의 신성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은 다른 경우를 들어 더 입증할 수 있다.

요컨대 수로왕 신화는 복수적인 구성 인자들 특히, 9간을 긴밀히 관여시킴으로써 수로의 탄생과 건국 과정을 신성화하기 위해 9간 신화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3) 수로왕 신화

현전 문헌 자료상 수로왕 신화의 최고(最古)형은 『고기』의 기록으로 전하는 천강난생담일 것이다. 알이 하늘에서 바닷가로 내려와 사람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다는 지극히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수로왕 신화의 핵심적 요소가 아닌가 한다. 망국과 함께 전승 통로를 잃은 건국 신화이기에 온전한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천강난생담만은 후대인의 기억에 남아 그 자취를 남긴 것이다. 신화는 기억을 통해 보존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특히 여러 현실적 요인에 의해 재생력을 상실할 경우 그것의 구성 요소를 상당 부분 잃게 된다. 하지만 그 중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잔존하게 되는 것 같다. 이로써 볼 때 수로왕 신화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고기』의 기록과 같이 천강난생의 건국주가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알이 바닷가로 내려왔다고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로 탄생담의 바닷가는 낙동강과 같은 큰 규모의 하천을 끼고 살아 온 가야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정견모주가 알을 두 개 낳아 하나는 머물러 두고 하나는 낙동강 하류로 흘러보냈다는 민간전승을 가야 전 지역의 원고적인 시조 신화로 본 바 있다. 수로 탄생담에 나타나는 바닷가 요소는 이와 관련되지 않나 한다. 낙동강이라는 하천 요소가 바닷가라는 해안 요소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남 하동군에서 채록된 '수로왕 전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로의 꿈에 용하고 거북이 싸움을 했는데 용이 거북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 잠에서 깨어나 꿈속의 배경이 되는 장소로 가 봤더니 거북이 알을 낳아 두었다는 것, 그 용꿈 때문에 수로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개 건국주에게는 신이한 탄생담이 따라 붙게 마련인데 여기 수로에게는 그것이 없다. 물론 건국에 대한 사항도 없이 그저 왕이 되었다고만 했다. 용꿈과 등극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건국주의 탄생담과 건국 과정에 대한 전승이 약화된 듯 하다. 여기서 거북과 그 알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북은 바로 수로의 탄생담과 관련된 요소가 아닌가 한다. 그 알에서 수로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설화에서 거북과 그 알이 강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용꿈 때문에 등극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설화에선 탄생담과 등극담이 뒤섞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오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제보자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다른 각편이 전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뒤섞임 현상 자체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기』형의 수로 난생담에서 바닷가로 하강했다고 하는 알의 정체는 바로 거북의 알이 아닌가 한다. 요컨대 수로 신화의 원고형은 거북이 바닷가에 낳은 알에서 수로가 태어났다는 것이다. 한편 거북은 한꺼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는다 하니 이 또한 가야 신화의 복수형 난생담의 진원지로서 볼 만 하다. 그리고 천강 요소보다 바닷가 요소가 더 지배적이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천강 요소는 좀 더

후대적인 것으로 이것이 강조되면서 바닷가 요소는 잊혀지고 성산 요소가 부각된 듯 하다.

이상 『고기』의 수로왕 신화는 『가락국기』에 이르러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변질된다. 우선 바닷가 난생이 천강 난생으로 변하면서 그 공간적 배경이 구지라는 산으로 올라간다. 물론 바닷가 난생에 비해 천강 난생은 그 출자와 관련되어 건국주의 신성성을 표방하는 데 더 적절한 신화 요소다.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은 수로가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하는 신이라는 것이고 “하늘이 나에게 명해 이 곳에 나라를 새로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였으므로 일부러 여기에 내려온 것”이라 한 것은 수로가 하늘의 아들임을 말하는 것이다. 수로를 포함한 6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당연하다. 민간 전승의 거북의 알이 여기에서는 분리되어 거북은 거북대로 있고 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닐까 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알이 화해서 성군이 되었다”고 하든지, 하늘이 “산 속에 알을 내려 보내” 임금이 되게 했다든지 하는 것은 이러한 천강 난생담이 고려에 이르기까지 수로 신화의 핵심적 요소로 각인되어 왔음을 말해 준다. 요컨대 바닷가 난생이 천강 난생으로 전환되면서 거북이 탈락하고 수로의 신성성과 절대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기』의 수로왕 신화는 『가락국기』에 와서 극도로 복잡하고 장황한 수식을 입었다. 그 본질적인 신화 요소라고 한 바 있는 난생도 6란으로 복수화될 뿐더러 9간이라는 선주민에 의한 추대, 탈해와의 경합술, 타국 공주와의 결혼 등 다양한 전승이 뒤섞이게 된 것이다. 그

리고 이렇게 확장된 서사는 수로를 신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탄생담 중 “하늘이 나에게 명해 이 곳에 나라를 새로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였으므로 일부러 여기에 내려온 것”이라고 한 대목은 단순한 천강 난생담에 족하지 않고 앞뒤의 속뜻까지 풀어 밝힌 것으로 수로의 강림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알이 직접 말을 한다는 형식을 취하면서까지 수로의 신령한 언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9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다. 그리고 탈해와의 경합 전승도 “신라의 것과 많이 다르다”는 『삼국유사』 편찬자의 말과 같이 일방적인 승리 일변도로 되어 있어 수로왕의 신성성,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허황옥과의 만남이라는 것도 작위적인 측면이 많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불탑연기 설화의 의미가 짙은 도래담을 끌어 들여 가락국에 성지(聖地)의 의미를 부여하고, 수로왕은 그러한 성지의 임금임을 강조한 것이다. 수로가 도읍할 곳을 정하고는 “이 땅은 협소하기가 여뀌 잎과 같지만 수려하고 기이하어 16나한이 살 만한 곳이다. 더구나 일에서 삼을 이루고 그 삼에서 칠을 이루니 칠성이 살 곳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요컨대 다양한 전승들을 끌어 모아 형성된 수로왕 신화는 다른 어떤 건국 신화보다도 완벽한 서사를 지향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수로를 극도로 신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3. 가야 건국신화의 체계화 과정

민간 전승으로 전하는 2년생담의 정견모주 신화가 가야 전 지역의 원고적인 시조 신화였을 것으로 본다. 성모가 알의 형태로 형제를 낳았다는 것은 가야사의 특수성 즉, 연맹체 내의 제 부족이 역학 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했음을 반영한 것이겠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 편으로 2형제 신화인 대가야의 건국 신화로, 다른 한편 알이 바닷가로 내려와서 임금이 되었다는 『고기』형의 수로왕 신화로 계승된 것으로 본다. 그 중 대가야 건국 신화는 망국과 더불어 전승 기회를 잃어 후대에 확장되고 윤색될 여지를 얻지 못해 탄생담만 남게 되었다. 수로왕 신화 역시 『고기』형의 바닷가 난생담으로 전승되다가 망국과 더불어 전승이 차단될 운명에 처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전하는 『가락국기』의 수로왕 신화를 보면 6년생담을 비롯하여 9간에 의한 추대, 탈해와의 경합설, 타국 공주와의 결혼 등 다양한 전승들이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수로의 절대적 신성성을 표방하기 위해 동원된 듯하다.

수로왕 신화는 『고기』형의 난생담으로 전해오다가 망국과 더불어 전승력을 현저히 잃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신라 통일기 무렵 가야 김씨 세력의 성씨 취득을 계기로 가락국 왕력인 『개황력』이 편찬되고 그 후속 작업으로 그들 중심의 시조 신화이자 금관국 건국 신화가 정비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락국기』형 수로왕 신화이다. 여기에 와

NOT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on the left page.

NOT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on the right page.

NOTE

제21기 가야학아카데미

| 가야 연구의 흐름과 시각 |



Part _ **3**

민족·국가·발전 중심의 가야사 극복



윤선태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I. ‘삼국시대’론에 대한 반성

1. ‘삼국시대’에 대한 문제제기

현재의 한국 고대사체계는 최종적 승자였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을 고대사 전체를 종관(縱貫)하는 문명사적 키워드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삼국 내부의 다양성보다는 통합성을 강조하고, 주변 소사회를 삼국에 종속시켜왔다. 삼국이 정립하기 전인 1~3세기조차도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로 명명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김원룡 1973). 가야는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삼국시대’라는 근대적 역사관으로 인해 소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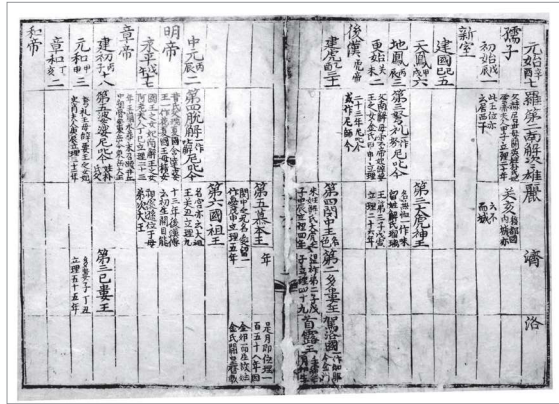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삼국시대라는 말은 근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고려시대에 이미 『삼국사기(三國史記)』가 있고, 가야가 존재했던 시기를 이미 고려 이전부터 삼국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 용어를 그대로 근대역사학이 묵수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전통시대의 가야는 멸망으로 인해 역사 속에서 사라졌거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존재였지만, 근대역사학에서 가야는 분명 뚜렷이 인식되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가야는 삼국보다 ‘덜 발달된’ 사회라는 근대적 역사관에 의해 제외되었고, 그 결과 고대국가로 발전한 삼국만을 강조하는 더 강한 틀이 탄생하였다.

특히 가야는 근대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정한론(征韓論)’의 역사적 배경으로 이용했던 소위 ‘임나일본부설’과 맞물려 들어가면서 역사상이 더욱 심하게 왜곡되었다. 왜의 한반도 남부 지배나 가야 지배를 허실화하기 위해, 한국의 고대사체계는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가야를 대신해,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의 입지를 더욱 키워 나갔고, 이와 반비례하여 가야의 역사적 위상은 점점 줄어들어버렸다. 가야의 역사 이해를 방해한 것은 문헌자료의 부족이나 물질자료의 부족이 아니라, 바로 ‘삼국시대’라는 근대역사학의 틀이었다.

2. ‘사국시대론’의 등장

사진. 『삼국유사』 왕력(파른본) ‘사국시대론’의 시원은 『삼국유사』 ‘왕력’에서 찾을 수 있다. 찬자 일연은 신라(羅), 고구려(麗), 백제(濟)와 대등하게, 김해 ‘가락국(洛)’의 역사를 넣어 우리 고대사의 흐름을 ‘사국’의 연표로 제시하였다.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연표(年表)만을 정리하였지만,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왕력(王曆)’편은 김해 ‘가락국’의 역사를 삼국과 대등하게 다루어, 『삼국사기』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사국’의 연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찬자 일연(一然, 1206~1289)의 역사인식은 고려 문종 때 찬술된 김해 가야에 관한 역사서인 『가락국기』를 읽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일연이 한국 고대사회의



< 사진1. 『삼국유사』 왕력(파른본) > '사국시대론'의 시원은 '삼국유사' '왕력'에서 찾을 수 있다. 찬자 일연은 신라(羅), 고구려(麗), 백제(濟)와 대등하게, 김해 '가락국(洛)'의 역사를 넣어 우리 고대사의 흐름을 '사국'의 연표로 제시하였다.

전개과정에서 가야를 비롯한 다양한 '소사회'의 역할에 주목하였기 때문이었다. 『삼국사기』에 누락된 가야 역사의 채록과 정리는 우리 고대 문화의 보물창고인 『삼국유사』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한편 7세기 이래로 삼한을 삼국과 동일시하여 변한을 고구려나 백제로 인식했던 역사관도 가야의 역사가 삼국에 가려졌던 대표적인 원인 중의 하나였다. 조선의 실학자 한백겸(韓百謙, 1552~1615)은 그의 명저 『동국지리지』에서 지리고증을 통해 변한이 가야로 발전했던 사실을 최초로 규명하였다. 북방의 부여 고구려와 구분되는, 남방의 삼한은 백제, 신라, 가야로 일신하였다는 그의 새로운 고대사 체계는 그동안 잊힌 가야의 존재를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부각시킨 쾌거였다.

최근에는 삼국시대라는 역사용어 대신에, 삼국에 가야를 포함시켜 '사국시대'로 불려야 한다는 견해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실제 삼국시대의 존속기간은 562년부터 660년까지 불과 98년으로 매우 짧으며, 둘째 가야의 영토가 낙동강 서쪽에서 전라남북도의 동부지역까지 백제 신라에 못지않은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셋째 700년에 이르는 가야의 장구한 역사 및 가야의 뛰어난 문화와 인물 등을 지적하였다(김태식 2002). 또 백제와 신라에 대항하기 위해 6세기 전반 대가야의 이뇌왕은 섬진강에서 낙동강 서안 일대의 사방에 성을 쌓아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한 단계 고조시켰던 사실을 고대국가로의 진전으로 평가하였다(김태식 2017).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가야가 백제나 신라에 비해 손색없는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삼국보다 뒤쳐진 소국연맹체에 불과하며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삼국에 가야를 포함하는 사국시대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이영호 2017).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확정 고시한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삼국 및 가야의 발전 과정을 통해 고대국가의 특성을 파악하고, 고대국가의 대외관계를 살펴본다."라고 명확히 제시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 고대사의 주체에 가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3. 사국시대론의 비판적 보완

‘삼국시대’란 용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볼 때, 분명 이 용어 자체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사국시대론’의 주창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그동안 가야사에 가했던 근대역사학의 폐해를 직시하고 있지 않다. 그간의 가야사 연구는 가야를 삼국과 함께 강하게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야연맹’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사국시대론에서 가야를 “미완의 문명”으로 본 것은 발전이라는 근대역사학의 기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제는 가야사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윤선태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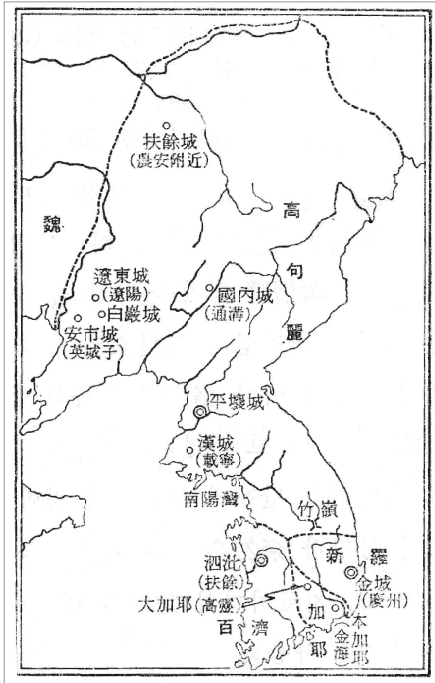
가야가 신라에 멸망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라보다 못한 사회, 덜 발달된 사회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지역의 다양한 환경에 따라 그에 적응해가는 고대 정치체의 변화양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모두 일원적인 단선적 발전론 속에 넣어서 하나의 틀로 줄 세워서는 안 된다. ‘사국시대’는 가야가 삼국과 다른 길을 걸었고, 우리 고대사회에 다양한 국가발전의 모습이 있었다는, 우리의 고대 역사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 방향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Ⅱ. 민족·국가·발전 중심의 근대역사학과 가야사

1. 가야에 대한 왜곡된 시선

현재 한국 고대사체계에서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달리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체’에 머물러 있었던 정치체로 이해되고 있다. 이 경우 ‘발전’이라는 어휘에서 이미 느껴지지만, 소국과 연맹을 고대국가보다 열등한 사회로 바라본다(김철준 1964). 이로 인해 가아는 늘 삼국보다 미숙하고 무언가 아쉬운 역사로 표현되어왔다. 이러한 시선은 20세기 이래 역사기술을 지배해온 민족·국가·발전 중심의 서구 근대역사학에 영향을 받아 탄생하였다.

이 점을 말없이 증명해주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역사지도’ 한 장이 있다. 요동과 만주, 그리고 한반도 중부지방까지 석권한 고구려의 거대한 땅덩어리 밑에 백제 신라 가야가 짓눌려 있다. 특히 가아는 백제 신라보다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그 둘 사이에 끼여 겨우 숨을 쉬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전성(全盛)’이라는 역사가의 의도된 판결이 가아에게 회복불능의 일격을 가해버렸다. 이 역사가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순간을 국가의 ‘전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가아의 역사에서도 과연 ‘전성’을 상상했을까?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도 속에 쪼그라져 있는 가아! 이 지도는 가아의 역사에 ‘전성’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윤선태 2014).



< 사진2. '고구려 전성시대' 속의 가야 >

이기백 『한국사신론』(1967)의 '고구려 전성시대도'이다. 이러한 역사지도는 그 연원이 이병도의 『조선사대관』(동지사, 1948) 속 '고구려 전성시대도'로까지 올라가며, 최근의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까지 빠짐없이 '전성시대'라는 명칭으로 똑같이 계승되고 있다.

이 지도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역사인식의 수준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송화강 유역의 '물길'이 사라졌고, 영산강유역의 '지미', '마련', 섬진강유역의 '기문' 등 삼국 주변의 독립적인 소국가나 소사회를 애써 지워버렸다. 백제 스스로도 이들을 자신이 직접 지배하는 22담로와 구분하여 '이웃소국(傍小國)'으로 표현하였는데(『梁職貢圖』), 지도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지도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고대사

회의 제요소, 즉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지향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멸망했던 소사회들의 역사적 시공간을 빼앗아버렸다.

더욱이 국가의 전성을 영토 크기로 재단했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고 교육받은 세대의 머릿속에는 국가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로 '영토팽창'이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영토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는 참이고 우월한 존재가 되는 반면, 가야와 같이 그 과정에서 패배한 자는 아무런 역사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 열등한 존재로 각인될 수밖에 없다. 약자를 경시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강자가 되라는 나쁜 울림이 지도에 가득 차 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서구의 발전단계론을 여전히 묵수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고대사회를 우리 스스로 빈약하게 만들고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중앙집권화의 길을 걸어간 고대국가도 있지만, 가야의 길도 그들과는 다른 고대국가의 길로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 가야가 패망했다고 해서 그들의 역사가 삼국보다 못할 수는 없다. 그러면 식민지 조선은 제국 일본보다 못한 나라, 덜 발달된 나라가 되어 버린다. 우리 스스로 식민사관의 '정체성론(停滯性論)'에 자승자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근대역사학의 발전론적 인식이 가져온 폐해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이성시 2011). '가야연맹체론'에서 벗어나는 길은 가야도 연맹체에서 고대국가로 발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소국의 자치성이 호혜의 정치네트워크 속에서 공존하는 고대국가의 길도 분명 있었다는 새로운 선언에서 출발해야 한다.

2. ‘임나(任那)’의 복권

필자는 과거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가야사에 관한 주제를 강의한 바 있는데, 그때 ‘임나’를 거론하자 청중들의 반응이 싸늘해졌다. 왜 식민사관의 ‘일본’측 용어를 사용하는가라는 힐문이 뒤따랐다. 또 최근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에 삼국시대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8개 유물에 대해 그 출토지에 ‘임나’ 또는 유물의 시기에 ‘임나시대’라고 기록되었다며 방송과 신문할 거 없이 연일 이는 “임나일본부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일본총리의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비평이 쏟아졌다. 이 두 경험은 필자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는 물론이고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기자들조차 ‘임나’라는 말을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와 대동소이한 말로 이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이는 ‘임나’를 애써 없애고 ‘가야’를 근대적 학술용어로 정립한 우리의 민족주의적 역사교육과 그 틀을 만들어낸 우리 역사가들에게 책임이 있다. 필자는 ‘임나’라는 우리 고대의 아름다운 어휘가 근대에 들어와 지워지면서, 가야사의 핵심적 가치들도 하나둘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한다. ‘임나’의 복권(復權)은 ‘가야연맹체론’을 극복하고 우리 고대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는 열쇠가 되리라고 본다.

중앙집권화의 길을 걸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최초 소국 때의 국호가 연맹체나 중앙집권화된 이후에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 줄곧 사용되었다. 마치 ‘로마’라는 도시국가에서 출발해 제국이 된 이후에도 로마를 계속 국호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가야(=가라)

와 ‘임나’는 그와는 다른 성격의 국호다. 고령의 ‘대가야’는 애초 ‘반파(3세기 중반)’라는 소국에서 출발했고, 이후 ‘가라(5세기)’, 중국에는 ‘대가야’ 및 ‘임나’라는 타이틀을 표방하였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국호의 변화가 그에 앞서 임나를 칭했던 김해 금관국의 길을 ‘모방(copy cat)’한 것이라는 점이다. 애초 금관국(수나라)이라는 소국도 가야(구야국, 3세기 중반)를 거쳐 ‘대가야(대가락)’ 및 ‘임나’(『광개토왕비』)라는 타이틀을 표방했다. 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국호 변경으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임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소국이면서 동시에 가야권의 여러 소국들을 ‘총합(總合)’해서 하나의 단위로 부를 때 사용했던 의미라는 것은 『니혼쇼기』나 5세기에 왜의 5왕이 중국 남조에 요청한 봉작호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거기에는 가야권 세력이 애초 김해의 임나(금관-구야-임나) 하나만 보이다가, 이후 임나와 고령의 가라(반파)로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그런데 그 균열 과정을 만들어낸 반파가 금관 소국이 이미 했었던 길, 즉 ‘가라’라는 타이틀과 ‘임나’라는 타이틀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고령의 대가야가 3세기 중반 이후 4세기대에 걸쳐 김해의 금관국이 성취했던 정치적 경험과 성과들을 계승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금관국의 길을 고령의 대가야가 따라했다고 해서 전기의 임나와 후기의 임나가 동일한 정치적 구조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후기의 임나가 여러 소국을 총합한 표현이 분명하고, 대가

야 양식의 고분이나 토기의 확산과 연결시켜본다면 대가야 세력이 주변 소국에 대해 일정한 통제력이 작동하는 정치구조나 네트워크를 실현하였고, 그것이 임나라는 타이틀과 그 개념을 설명하는 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도 분명하다. 그러나 더욱 유념해야 될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과 달리, ‘임나’라는 정치네트워크 하에서는 그 내부에 소국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앙집권화의 길을 걸어갔던 삼국은 자신의 소국 명칭만을 연맹체에서도 중앙집권화된 이후에도 계속 그대로 국호로 표방하였고, 나머지 자기 세력 내의 다른 소국들 명칭은 ‘國’의 타이틀을 지우고 지방행정단위로 변질시켰다. 이는 『양직공도』에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22‘담로’와 백제에 부용된 주변 ‘국’들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었던 사실로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집권화된 국가만이 진정한 고대 국가라고 개념 짓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고대사회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들을 없애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미 3세기 중반에 변한사회에서 달성된 ‘구야국’ 즉 가야라는 정치적 성과물은 곧 ‘임나’라는 더욱 진전된 정치네트워크를 탄생시키는 원천이었다. 더욱이 이를 5세기에 고령지역의 ‘반과’가 따라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가야-임나로 진전되어간 정치네트워크의 실현이 변한사회에 가장 잘 적용된 특화된 정치체제였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를 규명함에 있어 변한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외부 세력과의 관계 등등이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러한 정치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임나와 소국의 호혜와 공존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3. ‘변경’으로서의 가야 정치네트워크

소사회는 미숙하지도, 복합사회보다 열등하지도 않다. 우리는 언제나 중앙집권화 되지 않은 사회가 혼란 속에서 살았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가야가 삼국보다 더 발달해 있었음을 논증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자들이 자명하다고 받아들이는 ‘발전단계’라는 가설 그 자체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려는 것이다. “미숙한 가야연맹”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지적 오만이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소사회의 공존을 지양했고, 강대국 사이의 정치적 완충지대, 중립지대로서 교역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었다(김창석 2012).

근대국민국가의 엄격한 국경의식을 대입하지 않고 가야 그 자체의 시간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왜와 백제가 가야 지역을 모두 자기관할이나 간접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야권이 국가간의 경계(境界) 넘나들기가 가능하며, 이질적인 문화가 교류하는 독특한 역사적 공간임을 말한다. 백제도, 일본열도의 세력도, 임나제국(諸國)의 수장들도 모두 공존할 수 있었던 공간! 필자는 이 공간을 ‘변경(邊境)’이라 부르려 한다. 변경은 근대국민국가의 엄격한 국경과 대비하여 경계 넘나들기가 가능하고 유연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가 만나 서로 갈등, 대립, 적응, 혼합, 통합되는 교류의 장(場)이자 독특한 ‘하이브리드(Hybrid)’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역사적 공간을 의미한다(임지현 2004). 이러한 공간에는 ‘한국’이나 ‘일본’이라는 근대국민국가의 민족, 국가, 발전의

개념을 대입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그러한 개념의 재생산에 헌신해 온 현재의 '일국사(一國史)' 체계로는 이 공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다. 새로운 동아시아적 관점, 지역사적 관점에서의 접근과 해석, 더 나아가 일국사를 대체해가는 새로운 입론만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이성시 2001).

우리는 아직도 임나제국(諸國)이 어떤 정치체제인지 정확히 모르기도 하지만 정치체제의 진화 과정을 발전이 아니라 적응으로 이해한다면 어느 것이 더 발전된 체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변한사회에서는 그러한 임나제국과 같은 정치네트워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는가로 질문이 달라지게 된다. 기존과 동일한 질문들은 우리 역사학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 수 없다. 임나제국(諸國)은 소사회에 기초하면서도 한반도의 서북지역에서부터 왜에 이르는 고대 동아시아 세계를 교역으로 묶어낸 열린 공간이었다. 소국-연맹-고대국가라는 발전사관의 도식에서 벗어나는 것, 그때 비로소 소사회로 분리된 가야권의 임나제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가야유적과 가야의 역사를 세계에 내놓고, 가야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인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참고문헌〉

- 김상현 1991 「新羅 華嚴宗의 僧侶와 그 寺院」 「新羅華嚴思想史研究」 민족사.
- 김원룡 1973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 김창석 2012 「고대 交易場의 중립성과 연맹의 성립-3~4세기 加耶聯盟體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216.
- 김철준 1964 「고대국가발달사」 「민족문화사대계」 I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김태식 1993 『加耶聯盟史』 일조각.
- 김태식 2002 「서설: 가야를 포함한 사국시대를 제창하며」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권, 푸른역사.
- 김태식 2017 「가야가 연맹체제를 고집한 이유: 가야와 삼국의 차이」 「우리 시대의 한국고대사2」 주류성.
- 윤선태 2014 「가야,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 「한국 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노태돈교수정년기념논총1」 사계절.
- 이기백 1967 「한국사신론」 일조각.
- 이병도 1948 「조선사대관」 동지사.
- 이성시(박경희 옮김) 2001 「만들어진 고대」 삼인.
- 이영호 2017 「가야사연구와 사국시대론」 「대가야의 국가발전단계」 대동문화연구원.
- 이형기 2002 「滅亡 이후 大加耶 遺民의 向方」 「韓國上古史學報」 38.
- 임병태 1967 「新羅小京考」 「歷史學報」 35·36 합집.

NOT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NOT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NOTE

제21기 가야학아카데미

| 가야 연구의 흐름과 시각 |



Part _ **4**

문헌자료에 기록된 가야, 그리고 해석

남재우

창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들어가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문헌은 가야사 연구의 기본자료가 되었다. 가야가 존재했던 당시의 문자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토기와 칼, 비석에 새겨진 문자는 그 내용이 소략하고 단편적이지만, 가야사회 전체의 변화발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향후에도 이러한 기록이 없이는 가야사연구를 생각할 수도 없다. 다양한 학문연구방법과의 접목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롭게 읽어내야 한다. 기록, 씬 없이 읽다 보면, 가야사의 깊이와 폭의 확대를 통해 가야사회의 질적 변화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II. 가야의 기록과 해석

1. 우리 기록

기록을 통한 가야사회 내부의 질적 변화, 내밀한 사회구성 등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1) 『삼국사기』 : 가야 관련 기록이 많다. ‘가야본기’도 없고, 가야에 대한 기록이 단편적이긴 하지만 많이 남아 있다. 「신라본기」, 「제사지」, 「약지」, 「지리지」와 「열전」의 김유신·거도·이사부·강수·물계자전 등이다.

신라본기의 초기 기록에 가야 관련 기사가 많다. 하지만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대하여 일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가야사 이해에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다만 파사이사금, 지마이사금 기사에서 신라와 가야의 전쟁기사가 보이는데, 이를 통해 가야사회의 내재적 발전과정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물계자전 등에서 나타나는 포상 팔국전쟁 기사는 가야내부 사회의 질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2) 『삼국유사』 : 가락국기(駕洛國記)와 오가야조(五伽耶條)는 가야 관련 기록이 양적으로 풍부하고, 가야사회의 내부 상황을 전하고 있다.

다만 설화적 요소와 불교적 윤색이 많아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기에 문제가 있기도 하다. 철저한 사료비판과 『삼국사기』 등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가야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역사서임에 틀림없다.

「가락국기」의 내용에는 『개황력(목)(開皇曆(錄))』이라는 책이 있다. 현전하지는 않지만 가락국의 후손들이 김씨 성씨 취득을 계기로 가락국 왕력을 편찬하면서 만든 것이라 추정된다. 이외에도 가락국 건국 신화, 허황옥의 도래기사, 수로왕과 탈해의 술법 싸움, 물계자전에 보이는 포상팔국전쟁 관련기사, 오가야조(五伽耶條)의 내용 등은 가야사 이해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가야조에 등장하는 아라가야(阿羅伽耶), 고녕가야(古寧伽耶), 대가야(大伽耶), 성산가야(星山伽耶), 소가야(小伽耶) 등의 국명은 가야사 연구의 시작이기도 하다.

3) 조선시대의 역사서와 지리서 : 지리서나 지방지 등이다. 그 내용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고려시대의 역사서, 혹은 중국과 일본사서의 내용을 옮기 것이지만, 가야사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수로왕릉에 대한 훼손 및 보존과 관련된 기록이 대부분이다. 조선이 가야시조인 수로왕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우하고 있음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사서를 통해 가야사에 대한 인식변화도 엿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가야사를 한국역사 속에 포함시켰다. 영조대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東史綱目)』에는 기자 → 마한 → 통일신라 → 고려로 이어지는 정통체계를 설정하고 변한, 가락, 대가야 등은 소

국으로 처리하여 마한이나 신라에 포함시켰다.

지리서는 지명 등을 통해 가야의 권역과 변천을 추정할 수 있고, 전승 등을 기록하고 있어 가야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기도 했다.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지리지, 1432년(세종 7) 간행된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중의 하나인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는 고령현과 함창현, 김해도호부의 건치연혁 및 김해도호부의 토성(土姓) 등을 기술하였으며, 가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지리서 중에서 가야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헌기록 중의 하나가 1530년(중종 25)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이 책에 실린 가야 관계 기록은 조선시대 가야 유적 현황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현조에 인용된 최치원이 찬한 「석이정전(釋利貞傳)」과 「석순응전(釋順應傳)」의 내용은 대가야의 건국신화와 대가야·신라 사이의 결혼동맹에 관한 내용이 실려져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가야사회 내부의 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다. 특히 ‘가야연맹체설’을 주장하는 가야사연구자들에게 대가야가 후기가야연맹체의 맹주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정약용은 『강역고』에서는 가야의 연원과 가야사회의 발전원인을 언급하고 있다. 「변진고(弁辰考)」에서 변한(卞韓)이란 본래 없으므로 변진(弁辰)이 옳으며, 변진은 곧 가라(迦羅)라 하였다. 「변진별고(弁辰別考)」는 가라고(迦羅考)라 하기도 한다. 가야는 해운조건을 이용하여 발전하여 진한 즉 신라를 속국으로 삼았다는 독창적인 주장도 제기했다. 이러한 입장은 가야사회의 내재적 발전요인을 바탕으로 가

야사를 보려는 시각이었다. 가야사연구가 일본인들의 제국주의적 역사인식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면 가야사 연구성과는 현재와는 다른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가야를 기록한 지리서가 다양하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1615), 유형원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1656), 『여지도서(輿地圖書)』(1765), 정약용의 『강역고(疆域考)』(1811),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1864) 등이다. 영남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읍지』류도 있다. 함안의 『함주지(咸州誌)』(1587), 성주의 『성산지(星山誌)』(1677), 산청의 『산청현읍지(山淸縣邑誌)』(1744), 고성의 『고성현읍지(固城縣邑誌)』(1785), 상주의 『함창현읍지(咸昌縣邑誌)』(1786), 김해의 『김해부읍지(金海府邑誌)』, 고령의 『고령군읍지(高靈郡邑誌)』(1899) 등이다. 이들 지리서와 읍지류에서는 역사를 기록한 ‘건치연혁(建置沿革)’과 오래된 유적들을 조사한 ‘고적(古跡)’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가야의 정치집단이 존재했던 지역과 가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2. 중국기록

중국의 역사서인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남제서(南齊書)』등에도 가야에 대한 기록이 전하고 있다. 특히 진수(陳壽)가 편찬한 『삼국지』의 위서(魏書)에는 최초로 동이전(東夷傳)이 수록하였는

데, 삼한관련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1) 『삼국지』 : 3세기 이전 즉 가야가 존재했던 시기의 기록으로, 전기가야에 해당하는 변한제국의 사회모습을 보여주는 당대의 기록이다. 하지만 『삼국지』의 삼한에 대한 기록과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이 너무 상이하여 한국고대사회의 국가 형성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다.

2) 『남제서』 : 가라국왕 하지(荷知)가 남제에 사신을 보내고, 남제로부터 ‘보국장군본국왕(輔國將軍本國王)’이라는 작호를 제수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내용은 소략하지만 가야의 대외관계를 통한 가야의 정치적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며, 가야 전체를 통틀어 중국과 직접 교류한 사실을 전하는 유일한 자료이다. 또한 중국 중심의 동북아질서에 가야가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특히 ‘가라국왕’이라는 작호는 가라국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는 왕이라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 『양직공도(梁職貢圖)』 : 6세기 전반대에 쓰여진 『양직공도(梁職貢圖)』 백제국사(百濟國使) 신도경(臣圖經)조에는 6세기초 당시의 가야 여러 나라들의 국명이 전해지고 있어 가야사연구에 중요한 기록이다. 반파(叛波), 탁(卓), 다라(多羅), 전라(前羅), 사라(斯羅), 지미(止迷), 마련(麻連), 상기문(上己汶), 하침라(下枕羅) 등이다.

3. 일본기록

1) 『일본서기(日本書紀)』: 8세기 초에 편찬되었다. 가야와 임나 관련 사료가 풍부하지만 내용과 편년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백제본기(百濟本紀)』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6세기대의 기록인 계체기(繼體紀)·흠명기(欽明紀)는 6세기 전반 내지 중엽까지의 가야사회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백제의 가야지역 진출을 보여주는 기문·대사 관련 기사,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 529년 '안라고당회의(安羅高堂會議)와 백제 성왕 주도의 '사비회의' 등의 기록은 6세기대 가야사회를 이해하고, 가야사의 폭을 확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증거임에 틀림없다.

2) 『고사기(古事記)』(712), 『속일본기(續日本記)』(797),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815) 등 : 가야관련 기록은 극히 일부이며, 일본에서만 전승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어서 가야 사회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신찬성씨록』의 경우 가야계통의 성씨를 발견할 수 있어, 가야와 일본의 인적 교류를 엿볼 수 있다.

4. 새겨진 문자

1) 문자사용과 그 증거

가야가 존재했던 시기, 가야가 생산한 문자자료는 신라에 비해 드물다. 가야도 문자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근거는 유물에서 알 수 있다. 붓이나 먹, 벼루는 문자사용을 알려주는 문방구이다. 기원전 1세기대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다호리고분군 1호분에서 칠기 붓 5점이 출토되었다. 김해 봉황토성 내에서 벼루가 출토되었다. 공방으로 추정되는 전형적 가야식 수혈주거지에서 조사되었다. 주거지내에서 출토된 토기의 경우 5세기 4/4분기~6세기 2/4분기로 편년되고 있으므로 금관가야 멸망 이전 혹은 직후로 추정된다. 따라서 벼루는 가락국에서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사천늑도유적에서도 벼루로 추정되는 석제품이 출토되었다.

가야시기에 가야인들이 스스로 남긴 문자자료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삼국사기』 약지에 우륵이 제작하였다는 가야금 12곡의 곡명과 가사,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이는 同氣脫知爾叱今과 分叱水爾叱 등과 같은 가락국 고유의 인명, 그리고 『일본서기』에 보이는 가야계의 인명과 국명 표기 등을 통해 한자로 표기된 가야어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물론 한 균현과의 교섭과 후기가야에서의 남제(南齊)에 사신을 보내는 과정에서 작성되었을 외교문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한문으로 구사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가야가 존재했던 시기의 문자자료는 너무 소략하고, 단편적인 내용

이러서 가야의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가야 당시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는 뛰어나다. 가야사람들이 직접 생산했던 문자자료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것은 합천 매안리비, '大王'명 유개장경호, 저포리E지구 4-1호분에서 출토된 '下部思利利(하부사리리)'명 단경호, '二得知(이득지)'라 새겨진 토기다.

광개토왕비문은 가야사회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문자자료이지만, 가야의 것은 아니다. 창녕 교동 11호분 출토 환두대도명 역시 고구려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유명환두대도의 경우 출토지가 백제인지, 가야인지 명확하지 않다. 창녕 진흥왕척경비는 신라의 기록이다. 후대의 것이지만 「봉림사 진경대사 보월능공탑비(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는 통일신라시대 말[92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임나왕족(任那王族)'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어 임나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2) 가야의 문자

(1) 합천 매안리비

매안리비는 1989년 경남 합천군 가야면에서 발견되었다. 가야의 것인지, 신라의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판독이 가능한 글자가 많이 없었고, 비문에 등장하는 '村', '干支' 등의 용어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삼국시대의 다른 금석문과 달리 연구 성과도 적다. 하지만 매안리비는 가야비로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가야 유일의 비문이라 할 수 있다.

입석에 새겨진 것으로서 명문은 연구자들의 판독에 의하면, "□亥年□月五日□□村四十干支(신(?)해년□월오일□□촌(?)사십간지)"로 읽혀진다.

비문에서 관심의 대상은 건립시기와 '干支'였다. 건립시기는 '干支'를 통하여 561년 이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신라의 경위 표기에서 6세기 전반까지는 干群 경위에 '干支'라는 어미가 붙어있고, 561년 건립된 「창녕 진흥왕척경비」에는 '간지'가 붙지 않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561년 이전의 '□해년'은 555년(을해), 543년(계해), 531년(신해), 519년(기해), 507년(정해) 등이다. 대가야의 멸망시기를 560년 혹은 562년이라는 이견도 있지만, 대가야가 존재했던 시기에 대가야권역인 합천지역에 세워진 비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비문을 대가야연맹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대가야의 정치발전단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40간지'를 '40명의 간지'로 보아 간지를 촌락의 장이나 6세기 가야 제국(諸國)의 수장으로 보았다.

하지만 매안리비를 가야비로 보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가야의 수장을 『일본서기』에서는 '干支'가 아닌 '牟岐'로 표기되어 있으며, 신라에서 하나의 지역 또는 행정단위였던 '村'이 보이고 있다는 등이 그 이유이다.

매안리비가 위치한 곳이 대가야의 권역에 포함되었던 합천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건립시기도 가야멸망 이전이므로 가야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村'은 가야의 경우 사용된 예가 없다. 비 건립시기의 근거가 되고 있는 '干支'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야비인 만큼, 그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판독에서부터 검토와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2) '大王'명 유개장경호(有蓋長頸壺)

대왕명 유개장경호는 가야의 정치적 발전의 증거가 되고 있다. '大王'이란 명문이 새겨진 장경호가 충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76년 대구에서 구입했고, 출토지는 합천 삼가지역이라 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왕의 위상에 걸 맞는 출토 예상지는 고령 지산동고분이라 추정하기도 한다.

대가야 양식의 토기이며, 6세기 전반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에 백제세력이 침투해 있었고, 실제로 백제 문화의 요소가 많이 보이는 것을 근거로 그릇에 새겨진 '대왕'을 백제왕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

'대왕'이라는 칭호가 대가야의 정치적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임에 틀림없다. 대가야는 479년 중국 남제에 사신을 보내 '보국장군 본국왕(輔國將軍 本國王)'이라는 작호를 받았다. 신라와 마찬가지로 국호에 영역의 개념을 내포한 '라(羅)'를 칭하였고, 왕 아래에 관료집단이 분화되어 일정한 정치적 서열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대가야가 고대국가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3) '下部思利利'명 단경호(短頸壺)

합천 저포리 E지구 4호분에서 '하부사리리(下部思利利)'라는 글자가 새겨진 목 짧은 항아리가 출토되었다. 합천댐 건설로 인한 수몰 예정

지역 발굴조사 과정에서였다.

토기는 제사와 관련된 성격의 유물로 추정되며, 대가야계 단경호로서 6세기 3/4분기의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명문에 대해서는 마지막 글자를 '利'가 아니라 '己' 혹은 '之'라 보기도 한다. '下部思利利'에서 下部는 부의 명칭, 思利利는 인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지막 글자를 '己'와 '之'라 판독하는 입장에서도 인명으로 보고 있다. 하부의 경우에는 백제의 부로, 인명은 백제 사람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하지만 백제계 토기일 가능성은 낮다.

단경호로 인해 부체제(部體制)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가야에도 백제의 영향을 받아 5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지역연맹체단계에서 부체제단계로의 계기적 발전으로 보거나, 대가야가 지역연맹체를 이끌면서 다라국(多羅國)같은 인근 지역은 부체제로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반대의견도 많다. 가라 멸망이후 것이므로 대가야 전성기의 부체제를 주장하는 자료로는 부적합하다든지, 부체제의 원래 의미가 중앙의 핵심건국세력, 혹은 지배자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부체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명문토기의 예를 바탕으로 가야 부체제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다만 명문을 통하여 가야의 정치적 발전과정을 삼국과 비교하여 살필 수 있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종래의 가야연맹체설을 극복해 보려는 의미도 없지 않다.

(4) 토기에 새겨진 명문들

금석문과 토기에 새겨진 명문의 대부분은 가야가 존재하던 당시이거나 가야와 관련된 세력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하지만 금석문의 경우 그 내용이 적고, 많은 부분이 마모되어 가야사 전반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二得知(이득지)’라 새겨진 토기도 출토되었다.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유적 주거지에서 조사된 대가야식 파수부완(把手附盥)이다. 5세기 말~6세기 초의 것이며, 이득지는 사람이름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가야의 마지막 왕인 도설지(道設知), 사비회의에 참여한 다라국의 흘건지(訖乾知) 등으로 보아 ‘이득지’의 ‘지(知)’는 존칭어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파수부완을 만든 도공의 이름이라거나, 혹은 토기를 주문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득지가 어떤 인물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1차 자료에서 확인된 가야 사람의 이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외에 IB지구의 7호 주거지에서 ‘𠄎’ ‘卅’가 함께 새겨진 단경호 1점도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가야시기에는 각종 부호가 새겨진 토기가 출토되었다. 井, \, ○, ∨, +, × 등의 기호가 새겨진 토기는 토기를 만든 사람이나 집단을 표시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3) 가야 관련 기록

(1) 광개토왕비문(廣開土王 碑文)

광개토왕릉비는 414년(장수왕 3)에 건립되었다. 비문에서 가야사와 관련된 기사는 신묘년(391)조와 경자년(400)조이다. ‘임나일본부설’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임나일본부설, 즉 ‘한반도 남부에 대한 왜의 군사적 지배’라는 입장은 이제 설 자리를 잃었다. 따라서 가야사 연구에 영향을 미치면서, 여전히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은 경자조인데, ‘임나가라 종발성(任那加羅 從拔城)’,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다.

임나가라에 대해서는 그 위치 문제가 논란이 되어왔다. 김해 지역 아니면, 고령지역으로 비정되어왔다. 任那加羅를 任那(창원)과 加羅(김해)의 합칭으로 보아서 김해 가락국을 중심으로 하는 가야연맹 전체를 지칭한다는 새로운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성과를 보면 김해지역으로 비정하는 경향이 짙다.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10년 경자조는 비문의 제2면 8행부터 제3면 3행까지에 걸쳐있고, 없어진 부분이 많다. 안라인수병에 대한 해석은 고유명사로 보는 경우와 독립된 구로 보아 ‘안(安)’을 술어로 해석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를 왜의 별동대, 백제의 부용병(附庸兵), 고구려의 원군으로 보기도 하고, 신라와 대립하고 있었던 안라가 임나가라·왜와 함께 고구려·신라와 전쟁을 벌였다는 입장도 있다. 후자는 ‘나인(羅人)’을 신라인, 혹은 고구려의 순라병(巡邏兵)이라 추정했다.

고구려 지원군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안라인수병이 고구려군대에 동조해서 군사적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고구려 南征 이후에

가야지역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세력은 가라국[고령]과 안라국(安羅國, 함안)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남정을 고구려-신라나 대백제-왜-가야연맹간의 전쟁으로 이해해왔던 기존의 견해에서 벗어나, 고구려-신라와 임나가라-왜의 대립을 중심축으로 하는 전쟁이라 파악하였다. 안라국은 고구려측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비문에 보이는 ‘임나가라’, ‘안라인수병’은 가야사 전체의 변화를 이해하는 근거가 되었다. 광개토왕의 남정으로 김해의 가락국[금관가야]가 쇠퇴하고, 내륙지역의 가라와 안라가 가야의 중심세력이 되었고, 이로 인해 광개토왕 남정이 가야의 전기와 후기, 혹은 전기가야연맹과 후기가야연맹으로 나누는 획기가 되었다. 또한 ‘안라인수병’은 가야연맹체가 아니라 가야 각국사연구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2) 창녕 교동11호분 출토 環頭大刀名

환두대도는 1919년 谷井濟一 등이 창녕의 교동고분군 조사하다 제11호분에서 발견한 유물이다. 1983년 환두대도에 대한 X선 촬영이 이루어져 상감명문이 확인되었다. 명문은 환두대도의 칼등[刀背]에 금실[金絲]을 박아서 쓴 것으로 발견 당시에는 7자 정도 명문의 존재가 거론되었다.

판독이 이루어졌다. ‘上(下?) 部 先 人 貴 ? 乃(刀?)’이다. 이렇게 판독하기도 한다. ‘上(下?) 部 先 人 貴 ? 刀’이다. 이를 통해 ‘상부선인(上部先人)’은 고구려의 인명표기일 가능성이 높다. 선인은 고구려 제11관등명이다. 선인은 발음이 같은 선인(仙人)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명문의 ‘상부’는 가야 정치 발전 과정에서 부체제의 존재여부를 논쟁거리로 만들었다. 하지만 ‘先人’은 고구려의 관등이므로 가야에서의 부체제를 말하기는 어렵다. 고구려의 환두대도가 신라를 통해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힘에 기대고 있던 신라가 비화가야에 진출하려는 의도에서 가야 국왕을 회유하기 위해 고구려의 관등이 새겨진 고구려의 환두대도를 비화가야 왕에게 선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11호분이 5세기 중반 경 조성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시기부터 신라가 비화가야로 진출하려 했다는 추정도 더해졌다.

명문은 고구려의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명문을 통하여 신라의 비화가야 진출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5세기 중엽은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던 시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신라가 고구려의 관등이 새겨진 환두대도를 비화가야의 왕에게 보냈는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고구려가 직접 비화가야로 보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유명 환두대도

동경국립박물관에는 단용문(單龍文) 환두대도 1점이 소장되어 있다. 제작 시기는 5세기 무렵으로 추정되고, 출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명문 내용은 ‘이 칼을 가진 자는 두려울 것이 없고 재산이 풍족하며 지위가 높아지고 재물이 많아진다’는 의미로 새겨진다.

환두대도의 출토지에 따라서 당시의 대외관계 등을 추정할 수 있다. 명문 판독에 참여한 東野治之는 가야지역이라 적시했다. 백제계통으

로 파악하기도 하고, 경남 창녕에서 출토된 것으로 비화가야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대가야의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환두대도는 백제와 가야 그리고 일본 사이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출토지가 밝혀져야 명문이 지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Ⅲ. 나오며

소략한 기록이지만 쉽 없이 새롭게 읽다보면 가야사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히려 단편적인 기록은 다양한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의 바다이기도 하다. 하지만 늪에 빠지기 않기 위해서는 부족한 문자와 기록이지만 역사발전의 흐름 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백승옥, 2014, 「가야의 언어와 문자, 제사, 음악, 습속」 『가야문화권 실체구명을 위한 학술연구』,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 남재우, 2018, 「가야의 기록에 대한 이해」 『가야 문헌 사료편』, 가야자료총서 1권, 가야문화재연구소.
- 이현태, 2018, 『가야문화권의 문자자료』, 국립김해박물관.
- 국립김해박물관·한국역사연구회, 2019, 『문자로 본 가야』.
- 이동주, 「대가야 '대왕'명 유개장경호의 문자 새로 보기」 『문자로 본 가야』, 국립김해박물관·한국역사연구회.
- 신가영, 2019, 「광개토왕비문의 가야 관계 기사에 대한 재검토」 『문자로 본 가야』, 국립김해박물관·한국역사연구회.

NOT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on the left page.

NOT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on the right page.

NOTE

제21기 가야학아카데미

| 가야 연구의 흐름과 시각 |



Part _ **5**

가야가 만든 동아시아 네트워크



김대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 왜 네트워크인가?

니얼 퍼거슨은 최근 『광장과 타워-프리메이슨에서 페이스북까지, 네트워크와 권력의 역사』라는 저서에서 인류 역사를 위계적 조직이 지배했던 장구한 시대와 기술적 변화에 힘입어 각종 네트워크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던, 드물지만 좀 더 역동적인 시대로 구분한 바 있다.¹⁾ 위계제와 네트워크라는 이분법은 분명 과도한 단순화이지만, 계층과 서열로만 설명해 온 과거 사회의 역동적인 상호작용(interaction)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다.

세계가 거대한 체계(system)로 얽여있고, 다양한 층위의 교환(exchange)과 상호작용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매력적인 연구 성과²⁾에서 불구하고 많은 역사가들은 인류 역사에서 네트워크를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했다. 그것은 근대 역사학이 '발명'한 '민족'과 '발전'을 위계라는 진화론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믿음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전통적인 역사 연구는 국가와 같은 위계 기관이 생산한 문서들에만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흔적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전래문헌과는 달리 출토문헌을 포함한 고고학적 자료는 선사시대부터 아주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

1) 니얼 퍼거슨 지음(홍기빈 옮김) 2019 『광장과 타워-프리메이슨에서 페이스북까지, 네트워크와 권력의 역사』, 21세기북스

2) 대표적인 예로 에릭 R. 올프 지음(박광식 옮김) 2015 『유럽과 역사 없는 사람들』 뿌리와 이파리.

러 네트워크와 위계 조직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맺어왔는가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전해준다.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춰 가야 사회를 이해한다면 그 사회를 구성한 개인 및 조직 사이의 정보 및 재화의 교환에 주목해야 하고, 역시 관계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굳이 마르셀 모스의 고전적인 논의³⁾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행위 자체, 즉 관계가 물건보다 대개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왕의 가야의 대외교류 연구는 교환되는 물품을 주로 다루었고 그 관계, 즉 네트워크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못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많은 역사가들이 가야 사회가 언제 성립하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설명하는데 중심과 주변의 통합 과정을 강조한 경향이 하나의 원인이다. 그 결과 가야 사회의 기원과 성장을 장기적인 변동 과정으로 이해하는 등 나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계층화를 강조한 나머지 가야만이 가진 특수성을 잘 드러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사로국과 같은 정치체가 농업생산력을 토대로 전쟁과 같은 경쟁 방식으로 주변을 통합하면서 신라로 성장했던 사례와는 달리 금관가야는 교역을 토대로 성장했음에도 계층화 및 통합 과정에만 주목해 변동 과정을 설명해 왔다. 그러다보니 실제 통합 과정이 잘 나타나지 않는 5세기 이후의 모습은 양호한 고고 자료가 있음에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3) 마르셀 모스 지음(이상률 옮김) 2002 『증여론』 한길사.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표자는 네트워크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후술하겠지만 물품의 교역이나 교류보다는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의미로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주로 말한다. 네트워크에 주목한 것은 금관가야가 교역을 토대로 성장한 정치 체이기 때문에 통합이나 계층화의 진전이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관가야가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교역장의 중립성을 유지했다는 최근 흥미로운 연구⁴⁾는 좀 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여기서는 우선 네트워크와 위계제를 간단히 정리하고, 네트워크 이론에서 다루는 개념을 이용해 변진구야국 시기, 대성동 고분군 부상기, 5세기 후반 이후 신라 복속 직전 시기로 구분해 금관가야의 변동을 서술한다. 결국 이번 발표는 변진구야국 시기부터 금관가야가 신라에 복속당하는 6세기 대까지 가야 엘리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장기적인 변동 과정에서 서술하는 것이 되겠다.

II. 네트워크와 위계제

네트워크란 말은 16세기까지도 실을 서로 잡아 묶어 짜놓은 그물망이라는 것 이상 의미는 없었다. 셰익스피어는 이따금씩 ‘그물(net)’과 ‘망(web)’이라는 망을 풍유적 의미로 사용했다. 이아고가 오델로를 해치기 위해 꾸민 음모는 ‘모든 이들을 휘말아 넣게 될 그물’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네트워크’란 말은 그의 희곡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17세기와 18세기의 과학자들은 자연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거미줄에서 시작해 동맥과 정맥으로 이어지는 인체 순환까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19세기가 되어서야 지리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수로와 철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또 작가들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좀 더 풍유적인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시인 콜리지는 1817년 ‘소유의 네트워크(net-work of property)’를 이야기 했으며, 역사가 프리먼은 1876년 봉건적 토지소유의 네트워크를 이야기했다. 네트워크란 말은 20세기 후반이 되어야 비로서 확산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교통 및 전력 네트워크에 쓰였으며, 그 다음에는 전화 및 텔레비전 네트워크, 마침내 컴퓨터와 온라인 사회적 네트워크로 쓰이게 된다. 그리고 이 말이 ‘네트워크를 맺는다’는 의미의 동사로, 즉 이력과 스펙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뜻을 함축하게 된 것은

4) 김창석 2012 「고대 교역장의 중립성과 연맹의 성립」 『역사학보』 216 역사학회.

1980년 이후의 일이다.⁵⁾

네트워크가 오늘날의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은 앞에서 소개한 니얼 퍼거슨의 인용처럼 매우 짧다. 역사학이나 고고학계에서도 네트워크를 대체로 교류나 교역, 교섭, 관계사, 상호작용이라는 의미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네트워크는 위에서 서술하였다시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 더 강하다. 발표자는 네트워크란 말을 어원에 좀 더 가깝게 관계나 결사,⁶⁾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라는 의미로⁷⁾ 사용하고자 한다.

위계제(hierarchy)란 수직적인 구조를 가진 조직으로 권력을 집중하고 있는 중앙으로부터 명령과 통제와 의사소통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특징을 가진 조직이다. 네트워크로 설명하면 여러 위계적 제도들이 통제력을 발휘해 여러 네트워크를 폐쇄하거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상이다. 실은 위계제를 네트워크의 기초 요소들로 표현하면 결코 네트워크의 대립물이 아니고 특별한 네트워크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발표자는 네트워크를 상호작용을 위해 좀 더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차원을, 위계제는 수직적인 관계라는 차원이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연구자들이 어떤 개인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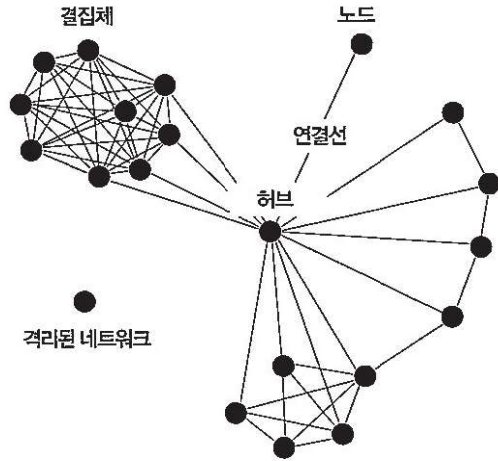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와서이다. 그들은 그러한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중심성(centrality)’이라는 말로 정의했다. 형식적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요성을 측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척도가 있다. 먼저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어떤 특정한 노드로부터 뻗어 나오는 연결선들의 숫자로서, 한 개인이 다른 이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단순한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사교성(sociability)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격을 포착한다.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사회학자 린턴 프리먼(Linton Freeman)이 1970년대 말 정식화한 것으로, 정보가 흘러갈 때 어떤 특정한 노드를 통과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어떤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들에 도달하려면 ‘몇 다리(steps)’를 거쳐야 하는가의 평균을 측정하며, 정보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해 접근성이 좋은 이를 발견하는 데 쓰일 때가 많다.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 있는 개인들로서 이 세 가지 중심성 중 어떤 것이 높은 개인들은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허브들’로 기능하게 된다.⁸⁾

5) 니얼 퍼거슨 지음(홍기빈 옮김) 2019 『광장과 타워-프리메이슨에서 페이스북까지, 네트워크와 권력의 역사』, 21세기북스 p.59.

6) 앤서니 기든스 · 필립 W. 서튼 지음(김봉석 옮김) 2015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동녘.

7) 石川榮吉 外 1987 『文化人類學事典』 弘文堂 p.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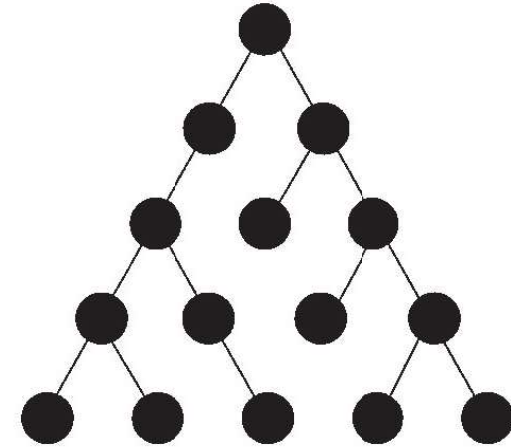
8) 니얼 퍼거슨 지음(홍기빈 옮김) 2019 『광장과 타워-프리메이슨에서 페이스북까지, 네트워크와 권력의 역사』, 21세기북스 p.71.



<그림 1> 네트워크 이론의 기초

네트워크의 기초를 간단히 도식화한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에서 모든 점은 ‘노드(node)’이며, 모든 선은 ‘연결선(edge)’이다. ‘허브(hub)’라는 이름이 붙은 점들은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모두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점이다. ‘결집체(cluster)’라고 부르는 노드들은 이 그림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국지적 결집 계수 혹은 밀도가 더 높은 것들이다.⁹⁾

9) 네트워크 이론의 기초 용어들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번역되고 있다. 가령 ‘노드(node)’는 ‘접점’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사례를 따라 노드로 그냥 번역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용례를 따랐다.



<그림 2> 위계제 : 특수한 형태의 네트워크

위계제는 관계망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이상화된 위계적 네트워크에서의 연결선들은 거꾸로 일어난 나무와 같은(혹은 뿌리와 같은)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 어떤 위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꼭대기의 노드에서 출발해 일정한 숫자의 종속적 노드를 더해 나가면 된다. 각각의 종속적 노드에다가 또 동일한 숫자의 종속적 노드를 다시 덧붙인다. 여기서 핵심은 항상 노드들을 아래쪽으로 더해 나갈 것이며 결코 수평적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는 특별한 성질을 갖게 된다. 첫째, 원이 없다. 즉, 어떤 노드로부터 나간 경로가 그 노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어떤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데는 오로지 하나의 경로만이 있을 뿐이며, 이는 명령과 의사소통의 사슬을 분명히 보여준다. 좀 더 중요한

것은 꼭대기에 있는 노드는 매개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이 가장 높다. 즉 이 시스템은 그 노드가 정보에 접근할 능력과 통제할 능력 모두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다른 노드들이 대다수의 노드들과 소통하려면 그 최고의 지배적 허브를 통하는 수밖에 없다. 즉 지배적 위치의 노드 하나가 의사소통을 거의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¹⁰⁾

Ⅲ. 가야의 네트워크와 위계제의 순환

변진구야국~금관가야 시기 네트워크의 핵심지구는 엘리트 무덤의 존재와 중심고분군의 위치로 추정 가능하다. 현재까지 연구 성과로 보건데 핵심지구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엘리트 무덤의 따라 변화했다. 김해 지역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본다면 네트워크의 핵심지구는 기원 전후 시기에는 다호리 지구, 2~3세기에는 양동리와 대성동 지구, 4~5세기는 대성동 지구가 핵심지구인 것은 분명하다.¹¹⁾ 다만 핵심지구의 형성과정, 동인, 주변부와의 관계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다. 아래에서는 시기 별로 핵심지구의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와 위계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검토해 보자.

1. 엘리트가 네트워크를 선택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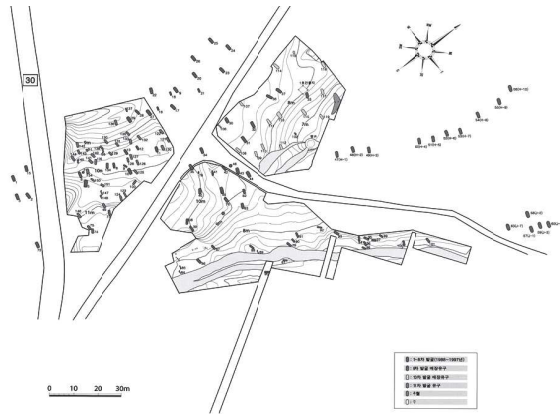
1) 네트워크의 허브들

다호리 지구는 기원 전후 변한 사회의 핵심지구 중 하나였다. 특히 저명한 다호리 1호묘의 주인공은 무덤의 규모나 입지에서는 고분군 내에서 다른 무덤을 압도하지 않지만 부장품만은 다른 무덤의 부장품

10) 니얼 퍼거슨 지음(홍기빈 옮김) 2019 『광장과 타워-프리메이슨에서 페이스북까지, 네트워크와 권력의 역사』, 21세기북스 p.89.

11) 이창희 2016 『변한의 성장과 정치체의 형성』 『진변한 국의 형성과 발전』 영남고고학회.

을 확실히 압도한다.¹²⁾ 부장품의 구성으로 볼 때 당대 변한 사회에서 가장 걸출한 엘리트였던 것은 분명하다. 다호리 1호묘의 부장품에는 다양한 계통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고, 장거리 교역을 통해 주인공이 획득한 물품이다. 이러한 물품들은 매일매일 사고파는 일용재가 아니라 선물이나 재분배 해 위신을 높일 수 있는 가치재라 할 수 있다.



<그림 3> 다호리 목관묘군 분포

다음으로 핵심지구로 등장한 곳은 양동리와 대성동 지구이다. 우선 양동리 지구를 핵심지구로 볼 수 있는 것은 162호묘의 주인공과 같은 엘리트의 존재이다. 162호묘의 주인공은 새로운 매장 시설인 관곽을 채용해 새로운 사후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를 도입하였고, 매장시설을 대형화하고 거기에 부장품을 대량 부장해 자신만의 위신을 새로

운 전통으로 강조했다. 부장품으로 위신을 강조하는 것은 앞 시기 다호리 지구의 엘리트와 같지만 새로운 매장시설로 위신을 강조한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무덤의 입지는 능선 위로 올라가면서 등고선 흐름 맞춰 배열되는데, 무덤의 배열에서 차별은 다호리의 사례처럼 확인되지 않는다. 대성동 지구의 경우 대성동 45호는 길이 750cm, 너비 475cm, 깊이 85cm이며, 목곽은 길이 565cm, 너비 340cm로 추정된다. 후대의 무덤에 의해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나 남쪽 장벽을 따라 노형토기와 단경호를 일렬로 배열하여 부장하였다. 앞 시기의 초기 목곽묘에 비해 토기의 부장량이 늘어났다. 규모는 대형이지만 부장품의 구성이 분명하지 않지만 이 시기 양동리와 대성동 지구가 함께 경쟁하고 성장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¹³⁾



<그림 4> 양동리 고분군의 분포

12) 이외에도 19호묘, 24호묘, 63호묘, 119호묘 등을 들 수 있다. 이재현 2016 『진변한 사회의 계층 분화 과정과 양상』 『진변한 국의 형성과 발전』 영남고고학회.

13) 이재현 2018 『김해지역의 고대묘제 변천과 대성동고분의 특징』 『가야고분군Ⅲ』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네트워크 이론에서 여러 노드를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개인으로 간주한다면 개인을 개인들이 맺는 관계, 즉 노드를 잇는 연결선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노드는 평등한 것은 아니다. 허브들끼리도 위계가 존재한다. 아주 많은 연결선을 가진 노드가 있고, 그 뒤를 바짝 따라서 연결선의 숫자가 덜한 몇 개의 허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더욱 적은 노드들 수십 개가 따라 붙는다.

다호리 1호묘와 양동리 162호묘의 주인공은 부장품으로 볼 때 일본 열도와 중국 근현과의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주변 엘리트와 네트워크를 가진 노드로, 허브라고 부를 수 있다. 이 허브는 양과 질의 수준에서 연결중심성에서 선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부장품 중 가치재의 수준으로 볼 때 매개중심성도 매우 높다. 왜냐하면 매개중심성이 높은 개인이란 꼭 연결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대신 중요한 연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알고 있는냐라는 것인데, 장거리 교역을 통해 입수한 한경과 일본열도산 물건과 같은 가치재는 그가 매개중심성이 높은 인물임을 알려준다. 다호리 집단과 양동리 집단은 지리적 결절지에 위치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위계가 높은 허브 역할을 하는 엘리트가 존재했기 때문에 변한 시기 핵심 지구를 형성할 수 있었다.

2) 엘리트 무덤의 불연속성

특이한 점은 이러한 엘리트 무덤이 연속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다호리 1호묘와 양동리 162호묘처럼 복잡한 매장의례가 베풀어지고 부장품이 탁월한 무덤, 즉 후장묘가 있는데, 그것은 연속되지 않고 단절적이다.¹⁴⁾ 후장묘가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축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김해 지역 목관묘 유적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다호리 집단과 양동리 집단에 우월한 세력을 계속 유지한 하나의 '지배적 친족 집단'¹⁵⁾ 또는 동족 집단'이 아직 등장하지 못한 상태, 즉 권력 기반의 취약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¹⁶⁾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¹⁷⁾이 가능하겠지만 발표자는 다호리 집단과 양동리 집단의 정치체는 개인에게 사회적 출세를 허용하면서도 공동체 차원에서 세습 상류층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균

14) 안재호는 양동리 고분군에서 초기 대형 목곽묘 이후 후속하는 중·대형 목곽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통해 후기와질토기 단계에 김해 지역에는 유력한 정치체가 형성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안재호 2015 『김해지역 와질토기 사회의 일면』 『우정의 고고학-고손명조선생추모논문집』 진인진, 그러나 이창희는 이러한 현상을 무덤 자료의 분포 문제로 보고 있다. 이창희 2016 『변한의 성장과 정치체의 형성』 『진변한 국의 형성과 발전』 영남고고학회.

15) 이성주 1993 『1~3세기 가야 정치체의 성장』 『한국고대사논총』 5 한국고대사연구소.

16) 이희준 2011 『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영남고고학』 58호 영남고고학회 p.616.

17) 사로국의 경우 사라리 130호묘 같은 무덤이 사로국 안에 여기저기 일정하게 존재하였을 가능성과 함께 적어도 현재로서는 사로국 주수급의 묘가 고정된 한 음악 안에 계속 축조되지 않았다고 해석하기도 하고(이희준 2011 전계논문 pp.169~170.), 초기에 일정 구역의 마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 배출되다가 그 이후 그러한 인물이 없거나 그 마을의 중심적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이해하거나, 일정 구역의 정체성을 확립한 수장이 국의 창시자 혹은 영웅으로 추앙받아 그의 무덤에만 다량의 위세품을 부장하였고, 그 경우 그 이후 세대에 국의 수장 무덤이라 하더라도 부장품의 규모에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능가하는 무덤을 쓰지 않은 결과로 설명하기도 한다(이창규 2005 『사로국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국읍에서 도성으로-신라 왕경을 중심으로』 p.22.).

형을 유지하는 사회적 제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인류학적 민족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음 세대 또는 연속적인 후장묘의 부재는 엘리트 무덤을 축조한 다수의 집단이 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지도자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당해 읍락이나 촌락 지도자의 지위가 크게 격하되어 후장묘를 축조할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다. 이들은 강력한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사라짐에 따라 중앙집권적인 지도체제에서 평등주의로, 또다시 중앙집권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⁸⁾

특정 공간에 공동묘지로서 목관묘군이 조영된 것은 당대 읍락 또는 촌락의 지도자급 인물의 매장 의례가 누적적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다호리 목관묘군 내와 양동리 고분군 내에서 무덤 간의 계층성은 유물의 질과 양,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하는 매장 의례의 복잡성, 매장시설의 규모로만 나타나고,¹⁹⁾ 최종 단계나 매장 의례 이후 공동묘지 경관에는 그러한 계층성은 분명하지 않

18) 정치체계의 순환현상 또는 순환변동이라고 한다. 류웰린 원저(한경우·임봉길 공역) 1998 『정치인류학-제2판』 일조각 p.54. 브라이언 페이건·크리스토퍼 스퀘레 지음(이청규 옮김) 2015 『고대 문명의 이해』 사회평론 pp.89 ~ 91. 대표적인 민족지적 사례는 에드먼드 리치가 조사한 버마(현재 미얀마)의 정치체계이다. 에드먼드 리치 지음(강대훈 역) 2016 『버마 고산지대의 정치 체계-카친족의 사회구조 연구』 황소길음. 이외에도 다른 민족지 사례는 켄트 플래너리, 조이스 마커스 지음(하윤숙 옮김) 2015 『불평등의 창조』 너머북스, 또 에게 가즈히로는 야요이시대 중기부터 중말기까지의 묘제 변동과 야요이 사회를 정치체계의 순환변동으로 이해한 바 있다. 倉下和宏 2011 『墓域構成の變化, 區畫墓の展開』 『古墳時代への胎動』(彌生時代の考古學) 同成社.

19) 물론 목곽의 경우 대형의 매장시설이고 반지상식이기 때문에 분구로 계층성이 드러났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목관묘의 분구 규모와 목곽의 분구 규모를 비교한다면 5~6세기 고총처럼 확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 사회가 위계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매장 의례 이후 공동묘지 경관은 그러한 갈등을 은폐해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기도 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²⁰⁾ 이는 매장의 규모나 입지 등으로 위계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4~5세기 대성동 지구 의 엘리트 무덤과는 크게 구별되는 특징이다.

또 목관묘군 내 각 매장 사이의 계보 또는 사회적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봉토는 확인되지 않지만, 대체로 각각의 매장은 등 간격으로 배치될 뿐 탁월한 매장을 중심으로 어떤 계보 관계를 표시하려는 의도나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목관묘군을 축조한 집단 내에서는 걸출한 매장만 두드러질 뿐 그와 관련된 어떤 계보나 특정 집단의 존재와 같은 것은 추론하기 어렵다.

다호리와 양동리 엘리트 무덤의 사례로 볼 때 이 시기는 '지배적 친족 집단 또는 동족 집단'이 아직 등장하지 못한 상태이며, 조직과 사회가 개인에게 사회적 출세를 허용하면서도 공동체 차원에서 세습 상류층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 시기 사회가 위계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매장 의례 이후 공동묘지 경관은 그러한 갈등을 은폐해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보니 중앙집권적인 지도체제에서 평등주의로, 또다시 중앙집권제로 순환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두 집단이 교역을 위해 네트워

20) 김종일 2007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을 넘어서』 『한국고고학보』 제63집 한국고고학회. 김대환 2012a 『임당 유적 묘제의 신라화와 전통의 창조』 『임당 발굴 30년 그리고 압록 문화』 (재)영남문화재단연구원 제25회 조사연구회 발표자료집) 영남문화재단연구원. 김대환b 2012 『원삼국 시대 포항 지역 정치체의 출현과 전개』 『한국 동남해안의 선사와 고대문화』 (제40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상고사학회.

크를 중시하고 위계제를 경계하거나 회피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한다.

<표 1> 시기 별 엘리트 무덤의 비교

구분	다호리1호묘	양동리162호묘	대성동29호묘
부장품의 질과 양	다른 무덤과 차이 있음	다른 무덤과 차이 있음	대량 및 복수 부장
무덤과의 규모 차이	없음	대, 소	대, 중, 소
입지 차이	등간격으로 배치/입지의 우월성 없음	등고선 흐름에 따라 배열/입지 우월성 없음/중소형묘와 혼재	능선 정상부 위치/독립적 배치/입지의 우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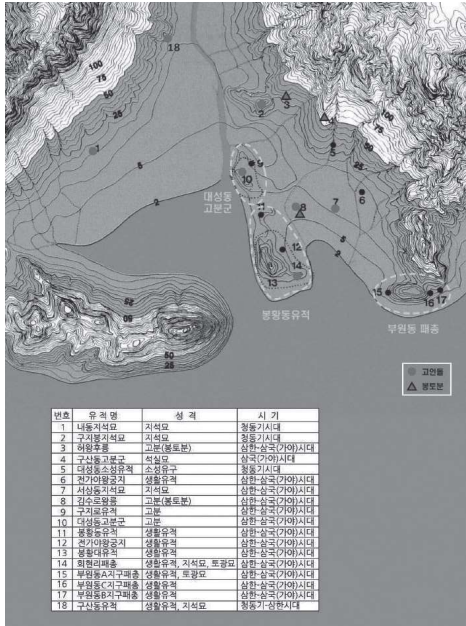
2. 네트워크가 위계제를 만났을 때

1) 최고의 지배적 허브 : 대성동 엘리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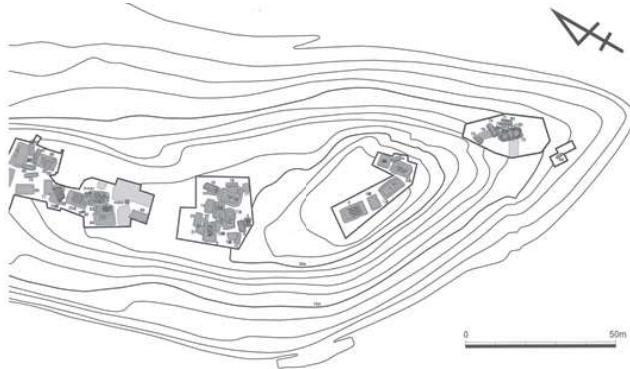
대성동 지구의 엘리트는 매장 시설의 규모와 부장품뿐만 아니라 입지로 위신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대성동 29호묘의 주인공은 능선의 정상부를 점유하기 시작한 최초의 엘리트이다. 29호묘부터 이어지는 엘리트 무덤인 13호묘, 88호묘, 3호묘, 2호묘, 1호묘는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배열되고 그 주변으로 중, 소형묘들이 능선의 경사면을 따라 배열된다. 엘리트 무덤은 능선의 진행 방향으로 일렬 배열되고 중, 소형묘들은 마치 엘리트 무덤을 둘러싸듯이 포진되어 있는 셈이다.²¹⁾

대성동 지구는 엘리트 무덤이 누세대적으로 축조된다는 점에서 앞의 두 지구와 차이가 있다. 300년 경 이후 등장한 29호묘 이후 엘리트 무덤은 400년 전후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엘리트 무덤의 누세대적인 축조는 우월한 세력을 계속 유지한 하나의 '지배적 친족 집단' 또는 '동족 집단'이 등장한 것을 알려준다. 대성동 지구가 등장하면서 위계화가 매우 강조되었다. 이 시기부터 장거리 교역을 통해 획득한 물건들이 엘리트 무덤에 부장된다(아래 표 2와 3 참조). 위계화가 강조되면서 엘리트 간의 네트워크도 매우 강화된 셈이다.

21) 이성주 1998 『신라·가야사회의 기원과 성장』 학연문화사.



<표 2> 대성동 고분군과 주변유적(이재현 2018)



<표 3> 대성동 고분군의 분포

장거리 교역을 통해 획득한 물건들은 바로 여기에서 교역 활동이 전문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준다. 특히 중국계와 일본열도산 물건들은 대성동 지구가 교역의 중심이고 그 이유로 집주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집주는 지도자나 지배자들이 추종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29호묘와 같은 대형 목곽묘가 축조되는 배경이 되었다. 대성동 집단은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교역이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늘어나는 엘리트와 한정된 자원으로 몇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집단의 반역을 유발할 만큼 강한 요구를 하거나, 기술 혁신으로 농업생산량을 늘리거나, 이웃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것 등이다.²²⁾

대성동지구의 엘리트들은 네트워크를 확대해 교역을 좀 더 확대해 갔을 것이다. 그러한 성장에 가장 중요한 계기로 위계제를 채택한 것이다. 즉 집주로 인해 한정된 자원과 늘어나는 지배자 사이에 빈번한 경쟁이 발생하고, 그 결과 지배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한도보다 정치체가 더 커지는 단계에 급격히 도달하여 영역을 관리하는 방법을 재구축해야 하며, 나아가 새로운 정치시스템에 걸 맞는 이념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했다.²³⁾

이러한 과정에서 대성동 지구의 엘리트 무덤에서 출토되는 중국계 유물이나 일본열도산 물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엘리트 무덤에

22) 브라이언 페이건 · 크리스토퍼 스카레 지음(이청규 옮김), 2015, 전계서, p.91.

23) 브라이언 페이건 · 크리스토퍼 스카레 지음(이청규 옮김), 2015, 전계서, p.91.

대량으로 부장되는 이러한 물품들은 이 시기 엘리트 권력의 기반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알려주며, 위계제와 네트워크가 만날 때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거리 교역품을 소유한 무덤의 주인공이다. 이들은 당시 가치 있는 물품을 모으고, 집중 관리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듯한데, 바로 대성동 지구를 핵심지구로 하는 통합을 주도한 세력일 것이다. 아마도 이들은 가치재를 대량으로 모으고, 위신을 과시함으로써 추종자를 끌어 모으고, 필요하면 교역을 위해 추종자를 먼 여행에 보냈을 것이며,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잔치 등을 벌였을 것이다.²⁴⁾

금관가야는 이러한 엘리트의 주도로 위계화를 진전시켰고,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전략을 만들었다. 엘리트는 대성동 29호묘와 같은 대형 곽묘를 채용하고 새로운 공동묘지에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조상 계보를 창조해 권력을 제도화 해 갔다. 그러한 차원에서 대성동 고분군은 다호리나 양동리 고분군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기념물이자 의례중심지였다. 지배 엘리트의 조상을 기억해 내고 전통이나 과거를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된 것이다.²⁵⁾ 이러한 전략으로 정치체를 통합해간 주도 세력을 우리는 바로 지배적 친족 집단이나 동족 집단으로 부를 수 있다. 이들의 네트워크는 금관가야 형성에 결정적인 동인과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24) 이성주, 2016, 전계논문, p.175.

25) 溝口孝司 2010 「彌生社會の組織とその成層化 - コミュニケーション, 偶發性, ネットワーク -」 『考古學研究』 第57卷 第2號 考古學研究會.

다만 흥미롭게 금관가야 엘리트는 장거리 교역 등으로 입수한 가치재의 재분배로 개인과 조직의 질서를 통제하지 않았던 것 같다.²⁶⁾ 신라나 백제가 가치재의 재분배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의 서열화를 통해 통합을 강화해 간 것에 비해 그러한 양상이 잘 보이지 않은 것은 금관가야의 특징 중 하나이다.

3. 네트워크만 남았을 때

1) 결집체 : 고구려 남정 이후 금관가야

금관가야는 문헌기록에 따르면 400년 고구려의 남정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대성동 고분군의 절대 연대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지겠지만 발표자도 기본적으로 400년 이후 대성동 고분군의 대형묘는 점점 소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 김해 지역은 토기 양식도 전형적인 양식이 확인되지 않는다. 엘리트 무덤으로만 보면 위계제는 해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봉황토성과 같은 초기국가의 도성과 같은 시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그 내외의 중요 시설과 건축물이 배치되는 현상²⁷⁾은 고층의 부재와 상치되는 것이다. 고층은 없고 중요 생활권역의 집주는 분명히 확인되는 셈이다. 발표자는 이러한 현상을 지배 엘리트가 사라지고

26) 이성주 2002 「남해안지역 출토 왜계유물」 『고대 동아시아와 삼한 삼국의 교섭』 복천박물관.

27) 이성주 2018 「국읍으로서의 봉황동유적」 『김해 봉황동유적과 고대 동아시아』 주류성.

위계 사회가 해체된 것으로 보고 싶다. 즉 금관가야 엘리트는 위계제가 발달했을 때 갑자기 붕괴된 셈이다. 위계제가 사라진 이후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일본열도와의 관계를 예를 들면 5세기 이후 가치재의 교역은 분산되고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일용재의 교역과 인적 교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스에키와 같은 일본열도산 일용재의 출토 사례로 보아 열도와의 교류에 참여했던 집단은 오히려 점점 증가했고, 면과 선으로 확대된 양상이 아닌가 한다. 특히 생활 유적에서 출토되는 일용재들과 남해안을 따라 즉흥적으로 등장하는 엘리트 무덤은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했던 일본열도와의 교류가 더 많은 노드와 허브의 등장으로 훨씬 확대된 것이다. 새로운 네트워크의 결집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대 일본열도와의 교류를 다양한 층위 또는 레벨에서 접근해야 함을 알려준다. 엘리트들은 그들의 권위나 위신을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일용재를 교환하는 개인과 집단들은 변진구야국 시기 이래 여전히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새롭게 확대해 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일 교섭사를 일방적인 왜 왕권의 요청에 다른 경제적인 교류로 보거나 철 소개 교환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대 네트워크를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것이 된다.

교역을 뒷받침하던 권력이 사라지면 모든 교역이나 교류가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관가야의 경우 교역을 주도하던 엘리트들이 사라졌지만 일상적인 교류는 여전히 진행되었

다. 그것은 오히려 권력이 사라짐으로써 더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²⁸⁾

이처럼 금관가야는 네트워크와 위계제가 순환하는 사회였고, 엘리트들은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네트워크와 위계제를 선택했던 것이다.

28) 김창석 2012 「고대 교역장의 중립성과 연맹의 성립」 『역사학보』 216 역사학회.

NOT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NOT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NOTE

제21기 가야학아카데미

| 가야 연구의 흐름과 시각 |



Part _ **6**

일제강점기의 '조선고적조사'와 가야유적



정인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1. 일제강점기의 '조선고적조사'

일본인들에 의한 한반도의 고적조사는 강제병합 이전 즉 19세기 말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다.

초창기의 고적조사는 일러진 것처럼 도쿄제국대학의 교원이나 출신 연구자가 주축이 되어 실시되었다. 인류학 교실의 야기쇼자부로(八木 奘三郎)와 도리이류조(鳥居龍藏), 건축학연구실의 세키노다다시(關野 貞), 문학부의 구로이타가쓰미(黑板勝美)와 이마니시류(今西龍), 그리고 야쓰이세이이쓰(谷井濟一)가 대표적이다. 이들이 실시한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교토제국대학의 교원이 된 하마다고사쿠(濱田耕作)와 열품실 조수였던 우메하라스에지(梅原末治) 등이 조선고적조사에 뛰어들면서 그 외연은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특히 1916년에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조직을 갖추면서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그 실권을 완전히 틀어쥐게 되었다.

제국대학 출신의 교원과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었던 조선고적조사는 일본 정부차원의 식민지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자들은 조선고적조사가 식민지 지배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국가권력의 의중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다. 조사에 참여했던 많은 관학자들이 실제로 신공황후 삼한정벌설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고고학적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특히 조선고적조사사업의 숨은 설계자인 도쿄제국대학 사학과와 구로이타가쓰미(黑板勝美)는 직접 가야유적의 고고학적 현지 조사도 실시하였다. 그 동선이 김해와 함안, 고령, 진주, 하동 등에 집중되었던 것을 보면 고고학적 현지조사를 통해 임나일본부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했던 조사 목적이 선명하게 읽힌다. 같은 도쿄제국대학 사학과 출신인 이마니시류(今西龍)와 야쓰이세이이쓰(谷井濟一) 역시 신라와 가야관련 유적의 현지 조사에 열을 올렸는데 이 역시 구로이타와 마찬가지로 '신공황후 신라정벌설'과 '임나일본부'의 고고학적 실체확인이 중요한 목적이었다. 제국대학 출신의 일본인 관학자들이 주도한 조선고적조사사업이 식민지 경영정책과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비판을 거듭해 왔다.

최근에는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 사업을 단순히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내용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왕에 조사된 유적을 재발굴하여 새롭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가야 관련 유적으로는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재발굴하고 보고한 양산부부총이 대표적이다. 특히 고적조사 과정에서 발굴되어 일본으로 반출된 유물을 현지에서 재실측하여 보고서에 게재한 것은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평가된다. 부산대학교는 김해 패총을 재조사하여 일제강점기의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퇴적양상을 재검증하였다. 최근에는 창녕의 송현동과 교동 고분군이 재발굴되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었던 고성 송학동고분도 재발굴과 보고 작업이 이루어졌다.

가야사와 가야 유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앞을 다투어 관련 유적을 조사하고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함안지역의 중요 유적에 대한 재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고령지역과 김해, 고성 등지에서도 중요 가야 고분과 생활유적에 대한 조사와 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고적조사의 성과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학계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의 재검토 작업은 학술자료의 확보와 재인식이라기보다는 연구사 정리라는 차원의 접근이 많았다.

그런데 생각하건데, 조선고적조사를 연구자 차원에서 경험한 한국 연구자가 없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 오랫동안 그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은 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최근 조선총독부에서 보관하던 조선고적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서류와 사진이 전면 공개되면서 드디어 오랫동안 일본 연구자들이 독점하였던 조선고적조사의 내용이 제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가야유적과 가야사에 대한 연구성과가 오랫동안 우리 학계의 연구에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조선고적조사사업'의 개관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 사업은 일반적으로 박물관협의회에 고적위원회가 설치되어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이 공포된 1916년이 되면서 제도화 된다.

이후 조선총독부가 사업을 주도하게 되는데 '고적조사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1916년이다. 이후 고적조사사업은 전국적으로 많은 성과를 쏟아낸다. 평양을 중심으로 고구려와 낙랑 관련 유적이 조사되었으며 영남지역에서는 신라와 가야유적들의 조사가 두드러졌다. 한강유역과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는 백제와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조사되었다.

관동대지진 이후 여러 사정이 겹친 일본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한반도 내에서의 고적조사사업도 위축된다. 그러나 조선사편찬을 주도했던 구로이타가쓰미의 노력으로 조선총독부의 외곽단체인 [조선고적연구회]가 설립되어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결국 1916년과 1931년은 조선고적조사사업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즉 19세기 말에서 1915년까지를 조선고적조사 1기로, 1916년부터 1930년까지를 제 2기로, 마지막으로 1931년부터 해방까지를 제 3기로 보아 조선고적조사사업을 살피는 것이 관련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시선이다. 제 1기는 강제병합이 이루어지는 1910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지며 제 2기는 학무국에 설치되었던 고적조사과가 폐지되

는 1924년이 기준이 되어 전후를 나눌 수 있다.

고적조사를 현장에서 담당했던 실무자를 중심에 두고 살핀다면 야쓰이가 중심이었던 시기(1902~1920)와 후지타료사쿠가 그 중심에 있었던 시기(1921~1945)로 나눌 수도 있다. 야쓰이는 세키노를 도와 조선고적조사의 초창기에 실시된 대부분의 가야 유적의 현지조사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러나 관련된 일체의 보고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내용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반면 이 시기 교토대학의 하마다를 도와 고적조사사업에 참가한 우메하라 스에지는 조사내용을 해마다 비교적 소상하게 남겼다.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가야 관련 유적 중 보고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적은 대체로 우메하라의 보고에 기인한다. 이마니시류도 가야 유적에 관한 보고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야쓰이가 조사보고서를 남기지 않았던 것은 이례적이다.

식민지 지배이데올로기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조선총독부의 인식과 지원하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조선고적조사사업은 태평양전쟁이 본격화 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3. 조선고적조사와 참여 연구자들의 '가야관'

조선고적조사를 주도했던 일본연구자들의 '가야관'은 조선고적조사사업의 초창기 보고였던 『朝鮮古蹟圖譜』 Ⅲ 의 해설 '任那'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조선고적조사 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해인 1916년 3월에 간행된 『圖譜』 제 3의 해설을 요약해서 살피면 아래와 같다.

“임나란 (일본)국사의 칭호를 습용(襲用)한 것인데 한사(韓史)에서 말하는 가야연방을 가리킨다. 그 건국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인강(隣強) 신라의 압박이 심해지자 송신천황(崇神天皇)의 시절에 이미 우리에게 원조를 구했는데, 살피건데 오래전부터 변한의 땅에서 흥기하였다. 한토(韓土)에서 우리 직속의 땅이었지만 欽明天皇 23년(기원 562년)에 신라에 병합되고 말았다. 그 영토는 신축이 심하였지만 대체로 낙동강유역의 경상남도 대부분과 경상북도의 서남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짧은 정리이지만 일제강점기를 관통하여 유지되었던 핵심 연구자들이 가졌던 '가야관'의 대강이 드러난다. 가야는 곧 일본의 임나이이며 이는 일본 직속의 땅이라는 이해이다.

신라, 가야의 강역에 대한 인식은 지금 우리학계의 기본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 결국 문헌사료가 부족한 가야사 연구는 고고학적 조사성과에 바탕했던 일제강점기의 연구성과를 무시할 수 없었던 분위기가 지속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적조사 초창기에는 대가야와 주산성, 함안 부근을 조사하였으며 창녕과 목마산성과 김해 등지를 답사하고 도굴에 준하는 발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김해 수로왕릉은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며 가야의 시조 왕릉이라는 지역의 전승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후대에 도굴을 당한 것이 분명하기에 지금의 봉분이 원래의 모습이 아닐 것이지만 그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였다.

세키노다다시가 함안지역의 가야유적에 대해서 내린 개관도 중요하다. “경상남도 함안군은 아라가야의 고지인데 옛적 일본부가 들어졌을 때 안라의 땅에 해당한다. 읍북의 성산에는 석성이 남아있고 서북 구릉에는 고분이 산포한다. 모두가 임나시대에 속하는 것인 듯하다.” 초기 고적조사를 리드한 세키노와 조수였던 야쓰이는 임나일본부가 실제했었다고 믿었으며 그것이 함안에 있었다고 판단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고적조사 초기에 거창과 선산을 조사하여 가야라 인식하고 진주 등지에서 발견된 고분과 출토유물 역시 임나와 연결시켰다.

방대한 『朝鮮史』의 편찬을 주도하고 나아가 세키노와 접촉하여 조선 고적조사 사업의 방향과 기구 구성, 담보해야 될 내용을 정했던 도쿄 제국대학 사학과와 구로이타 가쓰미도 김해와 함안, 선산, 진주 등 임나일본부의 중요 유적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였다. 신라지역 특히 경주에서의 고적조사에 열을 올렸던 이유가 ‘신공황후 신라정벌설’의 확인(실증)이 목적이었다면, ‘임나일본부’의 물적 증거확보가 가야 유적에 대한 열성적인 답사와 굴착조사의 강한 동기였음이 드러난다.

1909년에 실시된 세키노-야쓰이의 조선고적조사 예비조사에서는 김해패총에 대한 답사가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적은 야쓰이의 수기에는 김해 답사에서의 희망 성과가 적나라하게 묻어난다. 김해평원 곳곳에 임나일본부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존재할 것으로 굳게 믿었으며 심지어 김해 이주의 일본인들을 고대 임나일본부의 이주 일본인들과 같은 성격의 이주민이라고도 하였다.

메이지 후반기의 도쿄제국대학의 학부 수업에서 그들은 ‘신공황후 삼한정벌설’과 ‘임나일본부설’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학습하고 공유하였다. 특히 야쓰이 세이이쓰가 남긴 자료에는 학부 때 임나일본부와 관련하여 작성한 논문 습작이 남아 있다.

이상 일제강점기 가야유적의 조사와 연구를 주도했던 연구자들의 ‘가야관’을 참고하건데 그들이 ‘조선고적조사’라는 이름 하에 실시했던 가야유적의 조사 내용에 대한 재검토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한국고고학의 숙제라고 할 것이다.

《부록; 일제강점기 김해패총의 조사》

1. 1907년 이마니시류(금서룡)의 김해패총과 봉황대 발견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로 보건데 김해패총과 봉황대가 최초로 학계에 알려진 것은 1907년의 일이다. 당시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사학과 대학원생이었던 이마니시류가 김해패총을 발견하고 부분적으로 굴착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마니시는 이미 1906년에 경주를 중심으로 경상도 지역을 여행한 바 있었다. 당시 경주 남산에서 석기시대의 유물인 소형 마제석기를 채집하고는 고무되었다고 기록하였다. 당시 울산과 영일 방면을 여행하면서도 석기유물의 채집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석기가 동반되는 패총유적의 확인이 중요한 여행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에서 '일본민족의 기원' 문제가 화제가 되었기에 한반도의 상황은 당시 연구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항이었다.

1907년 이마니시류는 다시 부산으로 건너 와 답사여행을 수행하였다. 부산에서 낙동강 하구로 이동하여 하단으로 나와 낙동강의 동안을 거슬러 올라가 구포에 도착하였다. 구포에서 서쪽으로 걸어 강을 건너서 김해에 도착했다 한다. 1907년 더운 8월이라 하였는데 정확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해에 도착하여 역사 지리와 관련된 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김해에 도착한 첫날 저녁 무렵에 봉황대라 불리는 구릉을 조사하였다. 김해패총을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봉황대를 따라 올라 김해패총 쪽으로 내려오는 동선이었다. 언덕을 오르는 과정에서 절토지 단면상에 패각이 있음을 확인했다. 당시 조선의 현지인들이 실생활에서 패각을 버리는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주의깊게 이를 비교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새로운 패각이 아니라 오래된 패각 층임을 확신했다.

봉황대에서 패총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그 다음날 굴착조사를 결심하고 구릉의 동쪽허리를 돌아 김해패총 방향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기와편을 발견하였으며 또 다른 패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구릉의 남쪽에는 밭 하나가 하얗게 변할 만큼 패각층이 현저하였다. 즉 봉황대의 동남쪽에도 패각층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다음 지금의 김해패총 구릉으로 건너간다. 즉 봉황대에서 건너 났던 동남방향의 소구릉에서 노출된 측면이 하얗게 변해 있음을 발견하였다. 모두 오래된 패각임을 확인하고 환호하였다. 대규모의 패총임을 확신했지만 해가 저물어 그 다음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조사에 착수하였다.

김해패총의 발굴조사를 도운 것은 김해지역의 일본인 사카이였다. 그리고 김해 분지에 또 다른 패총이 2군데 더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튿날 일본인 경관이 인부를 확보해 주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에서 확보된 토기류를 통해서 이것이 일본열도의 야요이토기와 같은 성질의 것임을 확인한다. 조사는 불충분하였지만 본인보다는 도쿄대학 인류학교실의 시바타가 방한할 예정임을 알고 정식

조사를 양보하려 한다고 하였다. 사학잡지에 소개된 조사내용은 일본 국내의 여러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일본민족의 기원'을 추적하던 많은 연구자들에게 일약 가장 주목받는 유적이 되었다.

이마니시의 결론은 “소량이지만 석기를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금속기(철기)가 보급된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유적”이었다. 일본 내 지 쇼몬패총과는 성질이 다르고 토기도 진보된 늦은 것이라 하였다¹⁾.

2. 1909년 야쓰이 세이이쓰(谷井齊一)의 김해패총 조사

1909년 세키노다다시와 처음으로 조선고적조사를 실시한 도쿄제국 대학 문학부 사학과 출신의 야쓰이세이이쓰는 대학의 졸업동기였던 이마니시류가 발견한 김해패총을 답사한다.

당시 105일간의 답사일정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온 직후였다. 조사단장이었던 세키노는 도쿄에서 급전을 받고 귀국한 뒤였다. 사진촬영을 전담했던 터라 그 정리작업에 몰두하였지만 짬을 내어 김해지역을 답사하였다. 기록을 살펴건데 1909년 12월 24일부터 2박 3일이 소요된 단기답사였다. 낙동강을 3번이나 건너는 경로였다고 한다. 귀로에는 강이 얼어 망치로 얼음을 깨면서 나룻배를 저었다고 한다. 구포에서 부산역까지는 기차로 이동했다고 하기에 왕복 행로를 얼추 복

원할 수 있다.

부산 - 구포 - 나룻배 - 섬(중도)에 상륙하여 도보 - 나룻배 - 도보로 초선대로 이동 - 김해읍성 - 김해 패총으로 그려진다.

그가 제 1차 조선고적조사에서 단장 세키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김해패총과 김해지역 답사를 감행한 것은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학부시절에 남긴 자료에는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습작이 발견된다. 김해를 답사하면서 김해평원 곳곳에 임나일본부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 심지어 당시 김해로 이주하여 농사를 짓는 일본인 이주민들을 임나일본부의 일본 이주민들과 오버랩시키기도 하였다.

김해읍성에 도착한 야쓰이는 김해읍성을 중심으로 허황후릉과 김수로왕릉을 둘러보고 봉황대와 김해패총을 답사하였다. 파사석탑을 지역민이 감기에 효험이 있다고 쪼아서 가져간다고 기술하였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취조사가 있었을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수로왕릉이 도굴되었음을 기록하였다. 이는 문헌기록을 통해서 김해의 고적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김해패총을 둘러본 야쓰이는 굴착조사를 감행한다. 정확하게 어떤 지점을 발굴하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세키노가 이 때 남긴 사진자료나 도면, 기록류로 보건데 층위를 의식한 패총 해석 작업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체 출토유물을 통해 시기를 가늠하려고 하였다. 패각과 토기편만이 출토되었기에 시기가 늦은 패총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결론은 석기가 출토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하였다. 나중

1) 1908년에 김해패총을 조사한 도리이류조도 층위상 석상묘(지석묘 관련)가 패총에 선행하며 패총토기는 전반적으로 삼국시대 토기류보다 선행한다고 주장하였다.

‘금석병용기’의 패층으로 인식되게 되는 김해패층의 이미지는 이때부터 쌓여갔던 것이다.

이때 출토된 유물은 도쿄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해 평양이나 경주에서 발굴한 유물도 모두 도쿄대학으로 반출했기 때문이다. 세키노가 관여했던 조사의 경우 도쿄대학 건축학연구실에 보관하였으며 야쓰이 단독 조사유물은 문학부 열품실에 보관하였다.

도쿄대 건축학연구실로 반출한 유물은 대개 지금도 남아 도쿄대 박물관에 보관되었지만 문학부의 유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관동대지진으로 인하여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3. 1918년 도리이류조(鳥居龍藏)의 김해패층 조사

1918년에는 도리이류조(鳥居龍藏)가 김해패층을 조사한다. 도리이류조는 알려진 것처럼 도쿄제국대학 인류학연구실 소속이었다. 그의 발굴은 제법 정교한 층위학에 기반한 조사였다(國立金海博物館, 2014). 김해패층의 하층에 석관묘가 조영되었고 양자의 사이에 간층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김해패층의 구릉에 존재하는 지석묘의 시기가 봉황대 주변에 패층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보다 오래되었음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이다. 지금도 김해패층의 시간적 위치를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리이류조의 조사내용은 최근 국립김해박물관의 노력으로 비교적

선명하게 공개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던 도리이 채집(발굴) 유물이 소개되었도 일본의 도쿠시마 현립박물관 등지에 남아 있던 도면류와 지도, 사진 등이 추가로 공개되었다. 도리이류조도 ‘일본인 기원론’에 주목했던 연구자였다.

4. 1920년 하마다고사쿠(濱田耕作), 우메하라스에지(梅原末治)의 김해패층 조사

김해패층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20년에 있었던 교토제국대학의 하마다고사쿠(濱田耕作)와 우메하라스에지(梅原末治)가 실시하였다(濱田耕作·梅原末治, 1923).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굴법이었던 계단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층위별로 토기와 동반유물들의 수습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층에서 중원세계 화폐인 화천(貨泉)이 출토되면서 그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 발굴조사를 계기로 금석병용기라는 시대구분명에 대한 기본인식은 물론 초기철기와 김해기로 명명되는 패각층의 성격과 연대 비정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에서도 살핀 것처럼 1918년에 실시된 도리이의 발굴 중 두꺼운 패각층 아래에서 무문토기와 마제석촉이 출토되었다. 석관 내 부장품이었다. 이는 김해패층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층위정보였는데 그렇게 주목되지 않았다.

발굴조사가 마무리되고 현장 조사 담당이었던 우메하라는 전력을 쏟아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1923년에 완성된 보고서에는 ‘金石竝用期’라는 시대구분명이 구사되었는데 이는 이미 歐美에서 사용되던 시대구분 개념이었다. 다만 김해패총의 보고서에는 靑銅과 石器가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 철기와 부분적으로 석기가 같이 사용된다는 의미였다. 당시 철기 보급의 근거는 貝塚 出土의 鐵刀子와 鐵片 그리고 鹿角에서 관찰되는 철공구를 이용한 절단흔이었다. 이들 철기는 중국이 본격적인 철기시대에 들어선 前漢代 이후에 보급된 것이라 보면서도 金海貝塚의 거주민들이 직접적인 철기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기원후 1세기라고 판단하였다. 그 증거는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貨泉이었다. 김해문화는 금석병용기 중에서는 후반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보고서에서는 한반도 남부가 석기시대 단계에 정체되어 있었는데 漢代 中國(보고서에서는 지나)인들의 발흥으로 철기가 도입되어 鐵石併用期²⁾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금석병용기의 한반도는 內地 日本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 하였는데, 중국문화가 반도로 확산되는 현상은 漢代 以前부터지만 漢代가 되어 郡縣이 설치되면서 남부지역까지 연차 확산되었을 것이라 하였다. 낙랑군영향설의 확립인 것이다.

그리고 그 고고학적 증거가 바로 김해패총 유물이라는 설명인데 이

2) 금석병용기이지만 청동기와 석기가 아니라 철기와 석기의 조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부러 문장 속에서 사용한 것이다.

는 해방 후 김원용이 주도한 ‘김해문화’에 대한 기본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메하라가 발굴조사에서 금석병용기(鐵石併用期)의 시기를 확신한 것은 최하층인 제 7층에서 철기편과 철제편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즉 김해패총은 처음 생성될 무렵부터 철기가 동반된다는 인식이 마련되었다. 김해패총의 화전(貨泉)은 단지 상한연대를 시사할 뿐으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것이라 했지만 유통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원 1세기대로 정해진 것이다(浜田耕作·梅原末治, 1923).

보고서는 토기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주목된다. 보고서는 패총에서 출토된 3종류의 토기 중에서 청유색의 토기(회청색 경질토기)는 任那古墳의 것과 동일한 것이기에 김해패총 축조인은 임나고분 축조인의 직접 조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해패총 토기를 고분 출토 토기와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浜田耕作·梅原末治, 1923)은 1980년대 이후의 와질토기 낙랑영향설을 주장하던 신경철과 최종규의 언설과도 통하는 중요한 발언인데, 조상 운운한 것으로 보아 계승관계이면서 패총 토기가 선행한다는 인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발굴 성과의 총정리에서 조사원들이 가장 흥분한 것은 일본 內地, 특히 야마토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도자 및 도자병과 동일한 유물이 김해패총에도 존재하는 것을 밝힌 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영남지역이 야요이식 토기계통과 가장 밀접한 토기문화가 있는 공간이라고 결론내렸다(浜田耕作·梅原末治, 1923).

그런 맥락에서 김해패총의 조사가 단순히 조선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内地 日本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 명언하였는데, 이러한 결론은 비록 문장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신공황후 삼한정벌 설과 임나일본부설을 크게 의식했던 발굴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결국 이마니시류(今西龍), 야쓰이세이이쓰(谷井濟一)는 물론 구로이 타가쓰미(黑板勝美)와 같이 대표적인 신공황후 삼한정벌설 지지자들이 패총발굴에 매달리고, 지역의 好史家들까지도 끼어들어 끊임없이 김해패총 조사에 매달린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를 묶어서 선사와 역사 전환기의 문화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 것을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김해패총은 帝國 日本歷史의 考究가 목적인 조사였다. 조사 자체가 '日鮮同祖論'으로 귀결되는 측면이 지적되지만 해방 후 우리 고고학계는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5. 1934년과 1935년 가야모토가메지로(榎本龜次郎)의 金海貝塚 조사

1934년과 35년에는 가야모토가메지로가 김해패총을 발굴한다(榎本 1954, 1957).

보고서에는 층위별로 토기에서 그 차이를 인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김해패총의 퇴적이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이다. 김해패총이 층위 면에서 정확하게 新舊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결론은 해방 후 한국연구

자들의 발굴조사에서도 드러난 현상이다

가야모토는 赤色素土器들은 색조 등을 고려하여 二分하고 그 중 하나는 靑灰色土器類와 동반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다만 이것이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적색연질토기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는 김해패총의 유구와 유물을 크게 3개 群으로 나누었다. 제 1군이 先史土器와 磨製石器, 그리고 야요이토기(彌生土器)와 細形銅劍의 세트이고 제 2군은 原始新羅土器와 鐵器 및 骨器, 그리고 제 3군은 古新羅土器라는 것이다. 여기서 김해패총 퇴각퇴적층과 관련이 있는 토기는 第 2群과 3群이라 했다. 그리고 제 1군의 토기는 분묘와 관련된다고 판단하고 이는 명확하게 패총보다 선행한다고 이해했다(榎本 1954, 1957). 다만 옹관은 매납 후에 이동하였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패총에 옹관편이 섞인 이유라고 하였다. 옹관과 지식묘를 패총 이전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보는 시각은 해방 후 김원용의 해석과 통하지만, 패총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上下 차별이 없다고 판단하며 그 원인은 토목공사 등으로 인한 후대의 교란이라고 하였다.

NOTE

제21기 가야학아카데미

| 가야 연구의 흐름과 시각 |



Part _ **7**

『일본서기』 등 일본의 기록으로 본 가야



이근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일본서기』는 720년에 편찬된 일본 고대의 사서이지만, 한반도 관계 기사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또한 『일본서기』는 우리의 『삼국사기』와 달리, 고대인들이 편찬한 고대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기술이 대단히 소박하고 솔직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대인의 면모에 좀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한반도 관계 기사 중에서도 백제 및 가야에 관한 내용이 많다. 가야에 관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야의 국명과 가야의 국가 구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1) 가야의 국명에 대한 기사
- 2) 가야의 국가 구조에 대한 기사
- 3) 가야의 정치 제도에 대한 기사
- 4) 가야의 멸망 과정에 대한 기사

1. 가야의 국명

『삼국유사』의 5가야·6가야 이름으로 보이는 가야 국명이 상식이던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일본서기』의 가야 국명이 점차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가야라는 이름이 이상하다. 아무리 그렇지만 자신의 나라를 굳이 작다고 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일본서기』의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12개 이상의 가야 소국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韓條에 실려 있는 弁韓 12개국이라는 전승이 크게 실상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현재는 12개 이상의 가야 소국, 이것이 고대사 연구자들의 상식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시간적으로 보면 변한 12국에서 역시 비슷한 수의 가야 소국이 4, 5세기 대를 거쳐 6세기 대 초반까지 존재하였다. 김해의 남가라국이 멸망하는 것이 532년, 고령의 가라국이 멸망하는 것이 562년이다. 함안의 안라국도 고령의 가라국이 멸망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멸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5~6개의 가야라는 『삼국유사』의 기록은, 가야 소국들이 모두 멸망한 다음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후삼국 시대의 상황에 의하여 크게 굴절된 이후, 고려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편적인 가야 여러 나라에 대한 기억을 끌어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神功紀」의 加羅 7국

「神功紀」의 三韓 정벌기사에서는 고려시대의 5가야 내지 6가야, 3세기 대의 변한 12국, 혹은 12개 이상의 소국이 아니라, 가라 7국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서기』의 繼體 欽明紀 등에서 12개 이상의 소국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비자벌, 탁순, 탁, 남가라, 가라, 안라, 다라의 7국만을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존재하였던 변한 및 가야 소국이 12개 이상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고려시대의 5~6가야 전승과 마찬가지로 7개의 가야 소국을 정벌했다는 내용 또한 특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개의 나라만 정벌했다고 기록했는지를 문제삼은 연구는 많지 않았다. 막연히 이 7국이 가야 제국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긴 듯하다. 나아가서 「신공기」의 가라 7국 기사를 구체적인 사료비판 없이, 4세기의 ‘加羅’의 존재를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삼국유사』의 5가야 내지 6가야의 전승이 후삼국시대를 거치는 동안 성립된 인식인 것처럼, 가라 7국 전승 역시 특정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神功皇后의 삼한정벌의 문제를 또 다른 시점에서 조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왜 「神功紀」에는 가라 7국만을 공격하였다고 기록하였을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벌과정에서 7개의 가야 소국이 동일한 경로 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나라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이들 나라의 위치를 생각해 보자. 가라 7국으로 거명된 나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比自体이 있다. 이 국명은 의심의 여지없이 ‘빛벌’을 음차한 것으로, 非知火, 比斯伐, 非火와 동일한 용법인 것으로 보인다. 그 위치는 현재의 ‘창녕’이다. 南加羅는 현재의 김해에 있던 가야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김해의 가야국을 南加羅라고 한 시기가 문제가 될 것이다. 南加羅라는 용법은 고령의 통칭 대가야국 당시의 ‘(大)加羅(國)’이 위세를 떨친 이후에 일반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의 ‘加羅’의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479년에 중국 南齊 遣使를 중요한 획기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왜5왕의 자칭 작호 속에 포함되어 있는 加羅라는 용어도 5세기 중엽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고령지역이 4세기 중엽부터 이미 스스로를 加羅로 자칭하였을 수도 있지만, 김해가 ‘남가라’라고 불릴 만큼 ‘加羅’로 크게 성장하는 것은 늦으면 5세기를 넘어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南加羅라는 용어가 神功紀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이 기사의 원자료나 원자료에 담겨 있는 인식이 5세기 이후의 것임을 말해준다.¹⁾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啄國인데, 이 나라는 위치를 확정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 남가라를 김해, 탁순을 창원으로 보면, 인근의 칠원 등으로 비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安羅와 多羅로, 각각 현재의

1) 남가라라는 용어는 고령의 반파국이 성장하여 가라, 혹은 대가라를 칭하게 된 이후에 김해의 가라를 지칭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 세력이 가라를 칭하게 된 것은 빨라도 4세기 말 내지 5세기 초를 소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역시 木羅斤資 등이 정벌한 가라 7국의 국명은 4세기 중엽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田中俊明, 1992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pp.84~85.

함안과 합천 지역에 있었던 나라로 보는 데 큰 문제가 없다. 한편 卓淳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창원, 대구, 영산 등으로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는데, 필자는 이미 창원으로 보는 설에 긍정적이다. 백제가 倭로 건너가기 위해서 내륙지역에서 倭로 가는 길을 물었다는 것은 있기 어려운 일이다. 또 반대로 倭가 가야의 여러 나라를 공격하는 집결지로 내륙을 선택하였다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倭가 가야 여러 나라를 정벌하였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일찍부터 한반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倭가 대구나 영산 같은 곳에서 倭兵을 결집시켜 공격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탁순은 창원이며 현재 성산패총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성곽의 흔적도 있어서 그곳을 중심지로 한 골포국이 탁순으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닌가 생각한다.

탁국을 제외한 나머지 6나라의 위치를 보면 해안가의 김해(南加羅), 창원(卓淳), 내륙인 창녕(比自埽), 함안(安羅), 고령(加羅), 합천(多羅)이다. 만약 「신공기」의 기록순서가 의미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가라 7국을 정벌한 주체가 백제이든 왜이든 간에 대단히 이상한 경로를 밟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창원에서 시작된 공격은 일단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간 창녕을 치고 다시 원점인 창원, 그리고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탁국, 그리고는 김해. 이어서 다시 내륙 깊숙이 자리한 고령, 다시 창원에 인접해 있다고 할 수 있는 함안,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령에 인접한 합천을 공격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공격루트는 성립하기 어렵지 않을

까 생각된다. 따라서 7국의 배열순서는 공격한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7국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2) 加耶 諸國에 대한 다양한 기재

『神功紀』에 열거된 7국의 이름은 분명히 다른 사례들과 구별된다. 『일본서기』의 다른 기록을 통해서 12개 이상의 가야 소국이 확인되는 가 하면, 『일본서기』 자체에서도 10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기록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서기』 欽明 23년(562) 춘정월조에 의하면, “신라가 任那官家를 쳐서 멸하였다”고 하고 이 기사에 대한 주석에서는 “총괄해서 말하기를 任那라고 하며, 따로 말하면 加羅國 安羅國 斯二岐國 多羅國 卒麻國 古嵯國 子他國 散半下國 乞滄國 稔禮國으로 모두 10개 나라”라고 하였다.

이 10개의 나라에도 이상한 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신공기」의 7개 나라와 비교하면 비자발, 탁순, 탁국, 남가라가 빠져있다. 이 4개의 나라는 가야가 아니었을까? 물론 아니다. 김해의 南加羅는 그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히 加羅로 불리었으며 가야 여러 나라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였다. 卓淳도 창원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골포국을 계승한 나라였다고 생각한다면 의문의 여지없이 가야의 일원이다. 탁국도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른바 任那 부흥회의에서 거론된 나

라의 하나이며, 남가라 탁순과 함께 신라에 의해서 530년경에 멸망한 나라로, 당연히 가야의 일원이다. 결국 임나부흥회의에서 거론된 나라들이 임나의 구성원에서 빠져있는 셈이다.

이처럼, 『神功紀』의 7국으로 거론된 나라 중에서 4개의 나라가 欽明 23년조에서 나란히 빠져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들 4나라 중에서 남가라·탁순·탁의 세 나라는 임나부흥회의 기사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바와 같이, 531년을 전후한 시기에 신라에 편입되어 버린 나라들이다. 나머지 비자발(빛벌, 창녕) 역시 낙동강의 동안에 위치해 있었던 까닭에 한발 앞서 신라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진흥왕 척경비가 세워진 것은 561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신라에 종속 혹은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欽明 23년조에 任那로 기록되지 않은 네 나라는 530년 무렵을 전후한 시기에 신라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560년경에 최종적으로 멸망한 여러 나라와 구별하였던 셈이다. 결국 가라 7국 중 4나라는 신라에 일찍 편입되었던 나라들이며, 그래서 특별한 취급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나라의 기재순서는 정벌의 순서나 공격루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어떤 시점에서 이미 신라에 속해 있었던 나라들이다.

이에 대해서 加羅 安羅 多羅는 어떨까? 이들 나라들은 南加羅와 더불어 가야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들이자, 南加羅가 신라에 병합된 이후에도 여전히 가야의 중심세력으로 존재하였던 나라들이다. 또한 新羅와 마찬가지로 ‘羅’를 국명의 일부로 쓰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新羅와 대등하다는 의식을 표출하고 있었던 나라들이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점에서 가야를 대표하는 나라들이자 동시에 아직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나라들이다.

또한 이들 세 나라는 그 수장을 牟岐가 아니라 왕으로 불렀던 나라들이기도 하다. 이들 나라에 대해서만 加羅王, 安羅王, 多羅王이라고 쓴 용례가 보인다. 다른 가야의 소국들과는 구별되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加羅 7국에서 거명된 나라들은 신라에 병합된 나라들과 신라에 병합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었던 가야의 대표적인 나라인 셈이다. 즉 『神功紀』의 가라 7국은 적어도 남가라 탁순 탁 및 비자발이 신라로 편입된 이후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표 1> 가라 여러 나라에 대한 기재의 차이

현재 지명	가라 7국	임나10국	繼體欽明紀	우륵12국	신라 편입	백제 편입
창녕	比自休				比自休	
창원	卓淳		卓淳		卓淳	
	喙		喙己吞		喙	
김해	南加羅		南加羅		南加羅	
고령	加羅	加羅	伴跛國(加羅)	上加羅都		
함안	安羅	安羅	安羅			
함천	多羅	多羅	多羅	下加羅都		
의령 부림		斯二岐國	斯二岐	爾斯		
함양		卒麻國	卒麻			
고성		古嗟國	久嗟			(古嗟)
진주		子他國	子吞/子他			子吞
함천 초계		散半下國	散半奚	沙八兮		

현재 지명	가라 7국	임나10국	繼體欽明紀	우륵12곡	신라 편입	백제 편입
산청 단성?		乞食國				
의령		稔禮國				
남원			己汶	下奇物		(上)己汶
장수				上奇物		(下)己汶
하동			帶沙	達已		帶沙
사천				思勿		(史勿)
거창				居烈		
고성 상리?				勿慧		
사천 곤양?				寶伎		
합천 대병?				師子伎		
밀양					推封?	
			滿奚			
			爾列比			
			麻須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神功紀」의 가라 7국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欽明 23년조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남원에 있었던 己汶, 섬진강 하류의 帶沙, 그리고 『일본서기』에는 언급된 바 없지만 사천의 史勿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들 나라는 5세기 말부터 530년경 사이에 일시적으로 백제에 편입된 지역이다. 이들 나라는 가라 7국 기사에서도 임나 10국 기사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남가라, 탁순, 탁이 이미 신라에 의해서 멸망하였으므로, 임나 10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문, 대사, 사물 등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가야 여러 나라들에 대한 기술이 이렇게 편향성을 나타내는 것은, 『일본서기』에 기록된 가야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 백제계통의 사료라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야에 관한 『일본서기』의 기록은 백제의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백제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으로 보이는 己汶, 帶沙, 史勿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가라 7국 기사이든 임나 10국 기사이든 간에 그것이 가야 제국 전체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임나 10국 기사에서는 이미 그 이전에 신라에 편입 혹은 멸망한 비자벌, 탁순, 탁, 남가라, 그리고 백제에 의해서 멸망한 기문, 대사, 사물이 빠져 있다. 가라 7국 기사에서는 530년 전후에 신라에 편입된 것으로 생각되는 4국과 530년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었던 가야 제국 중 대표적인 나라들이 거명되었을 뿐이다.

결국 가라 7국의 이름은 왜이든 백제이든 간에 실제로 정벌한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들 국명은 분명히 어떤 인식에 의해서 선택된 것들이다. 4나라는 신라에 의해서 멸망 혹은 흡수된 나라이고, 나머지 3나라는 가야 제국을 대표하는 나라이다. 게다가 이러한 기록은 백제측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원사료에 의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가라 7국은 백제가 영토로 편입하고 싶은 가야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신라에 편입된 가야지역, 그리고 여전히 국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야 제국 중 대표적인 강국 3나라를 정복하고 싶은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2. 가야의 국가 구조

가야사 연구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소국의 내부 구조가 어떠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막연히 國邑-行政村-自然村이라고 3단계의 구조를 논의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역시 『일본서기』의 사료를 통해서 가야의 국가 구조를 엿볼 수 있다.

1) 기부리 = 코호리 = 고을

『日本書紀』繼體紀 24년 9월조에서는 “背評(背評은 지명인데 또한 能備己富里라고도 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背評을 能備己富里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評은 일본에서 縣 혹은 郡에 해당하는 행정단위의 명칭이기도 하며, 일본의 훈은 코호리(코오리)로 현재 우리말의 ‘고을’에 해당한다. 따라서 背는 能備에, 評은 己富里와 대응된다. 또 己富里는 己富利知伽의 ‘己富利’와 동일한 음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己富利知伽의 ‘己富利’가 코오리 즉 고을이라는 뜻이라면 그 뒤에 이어지는 知는 당시 수장을 가르키는 용어로 널리 쓰였던 支·智·岐 등과 같은 의미로 보아 評의 수장, 牟羅의 수장 혹은 村主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지명으로 나타나는 것은 己毗己利城 牟羅城 牟羅 및 여러 촌락의 이름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阿利斯等이 기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하는 己毗己利城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己毗己利城의 己毗己利는 현재와 같이 ‘기질기리’라고 읽을 수는 없을 것이며, ‘己’는 ‘코’, ‘毗’은 사이시옷과 같은 음가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己毗己利는 ‘콧코리’나 ‘콧콜’ 정도로 읽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음가를 가졌다면, 이는 4세기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骨浦國의 ‘骨’과 연관시킬 수 있다. 즉 己毗己利城이라는 지명은 骨浦國이라는 국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소국은 4세기 중엽 이후에 卓淳國이라는 국명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도 서두에서 인용한 사료에는 卓淳國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탁순국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背評 즉 能備己富里이다. 종래 이 지명에 대해서는, 일본의 評制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는데 그쳤으며, 심지어는 일본 고대어라는 주장조차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도 ‘고을’이라는 용어로 살아있는 이 말은 마을의 고어인 ‘牟羅’와 함께 우리의 고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야의 國制 속에서 그 의의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양서』 신라전에서 신라 왕경 부근의 촌락을 啄評이라고 한다고 하였으며, 『수서』 고려전에서도 內評 外評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評은 왕경민을 구성하는 중심촌락이거나 내외의 거점촌락을 일컫는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기초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阿利斯等の 나라

를 복원해 보고자 한다. 먼저 阿利斯等は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신라에 견주면 ‘大等’에 해당하는 용어이며, 이 시기에 가야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던 牟岐와 동일한 격의 용어로 생각된다. 아리사등 혹은 아리사등이 阿利(阿羅)+等으로 이루어진 말이라는 사실은, 『일본서기』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기사 중에서 阿羅斯等は 阿利毗智干岐와 대응한다. 그 중 阿羅와 阿利가 서로 같은 말이고, 斯와 毗은 모두 사이시옷에 가까운 음가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等に 대응되는 것이 ~ 智干岐라는 부분이다. “智干岐”라는 표기는 異斯夫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等과 智干岐는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아리사등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존귀한 수장을 뜻하는 일반명사인 셈이다.

또한 己能末多干岐를 阿利斯等으로 추정하고 있는 『일본서기』의 分注를 근거로 생각해 보면, 두 인물이 동일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그러한 등식을 성립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은 牟岐와 阿利斯等の 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阿利斯等は 창원을 중심으로 熊川·鎭海·馬山을 아우르고 있는 가야소국 즉 卓淳國의 수장이 사용한 독자적이거나 혹은 일시적인 용어일 지도 모른다.

가야소국의 수장인 阿利斯等の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왜왕과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역시 毛野臣을 자신의 지배지역 내로 불러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는 奴須久利와 久禮斯己母를 각각 신라와 백제에 파견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들 두

사람은 阿利斯等の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들의 이름 속에 지명이 들어있으며, 그들은 그 지역의 村主와 같은 신분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毛野臣이 원래 머물고 있었던 곳은 熊川 혹은 久斯牟羅였으며, 신라의 異斯夫가 무리 삼천을 이끌고 武威를 과시하자, 그곳으로부터 己毗己利城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또 백제가 阿利斯等에게 毛野臣을 내놓으라고 한 사실로 미루어, 己毗己利城은 阿利斯等の 居城이며, 毛野臣에 여기에 몸을 의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己毗己利城은 이 지역의 수장인 阿利斯等이 직접 지배하는 곳이자, 소국의 도읍에 해당하는 國邑인 셈이다.

2) 무라 = 모라 = 마을

그런데 毛野臣이 熊川 혹은 久斯牟羅를 떠나 己毗己利城으로 들어간 것은, 城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己毗己利城은 성곽시설을 갖추었으며 久斯牟羅에 비하여 방어에 유리한 곳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久斯牟羅는 그러한 성곽시설을 갖추지 않은 牟羅 즉 村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牟羅인 久禮牟羅의 경우를 보면, 백제(혹은 신라)가 이 지역에 축성한 이후에 비로소 久禮牟羅城으로 부르고 있다. 즉 이때 久禮牟羅城으로 불리기 전까지 久禮牟羅는 성곽시설을 갖추지 않은 牟

羅였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여기서 城과 牟羅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관련사료를 살펴보면 관련지명 중에는 牟羅가 붙은 지명과 枳 등으로 끝나는 지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布那牟羅·久斯牟羅·騰利枳牟羅·牟雌枳牟羅 등은 전자에 속하고, 刀伽·古跛·阿夫羅·久知波多枳 등은 후자에 속한다. 그 중에서 騰利枳牟羅·牟雌枳牟羅의 경우, 騰利枳·牟雌枳와 같이 枳로 끝난 지명에 다시 牟羅를 덧붙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즉 騰利枳·牟雌枳와 같은 村이 어떤 요건을 갖춤으로써 牟羅로 승격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들 지명의 끝에 나타나는 枳는 백제의 지명에서 많이 나타나는 只·岐·支·己 등과 동일한 어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백제 지명의 경우 城과 대응되는 경우와 村과 대응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只가 城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따라서 枳를 村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면 이 글의 논지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최하위 단위의 촌락에서 牟羅로 다시 牟羅에서 城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명이 바로 伊斯枳牟羅城이다. 伊斯枳 + 牟羅 + 城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명은 伊斯枳라는 촌락이 牟羅를 거쳐 牟羅城이 되었거나 혹은 바로 牟羅城이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추론이 성립될 수 있다면, 阿利斯等의 소국은 성곽의 시설을 갖춘 己叱己利城(國邑)을 중심으로 하여 牟羅城 ← 牟羅 ← 枳(村)로 나누어지는 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추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城이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은 지명에 대해서도 이를 정별하거나 초락하였을 때 몇 城이라고 헤아린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곽의 유무를 문제시한 것이 아니라, 촌락의 단위를 城이라고 하였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久禮牟羅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료에 나타나는 모든 마을들이 성곽시설을 갖추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개토태왕비문에서 백제를 공격하여 획득한 지역이 58城 700村이라고 한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城을 중심으로 약 10여 개의 村으로 구성된 정치단위를 상정할 수 있다. 백제의 경우이기도 하지만, 가야의 경우도 당시의 모든 촌락이 성곽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하고, 행정적인 거점 내지 전략적인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에 목책과 환호시설, 토루 등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런 시설을 갖춘 곳을 城이라고 부른 듯하다. 거점이나 전략적인 요충지에 일단 城이 축조되면, 그 주위의 촌락들을 포함해 城으로 명명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하여 背評은 牟羅城 牟羅 계열에 속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評의 ‘코오리’라는 음이 현재 ‘고을’로 정착되어 있고, 牟羅는 ‘마을’로 남아있는 사실로 미루어, 評이 牟羅보다는 상위의 지역개념 혹은 지방행정단위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본열도에서도 評이라는 행정단위가 후대에 郡으로 바뀌어갔음을 볼 때, 評을 일단 牟羅 혹은 牟羅城과 동격의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評은 國邑에 버금가는 지역중심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보아도 좋을 것이

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찍부터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牟羅나 牟羅城 혹은 村의 수장(須久利 및 牟羅知로 추정)과 달리 己富利知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차별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계층적인 구조 속에서 다시 阿利斯等の 명령에 따라 직접 신라와 백제로 향했던 두 인물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奴須久利·久禮斯己母의 이름은 각각 지명 + 호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구리와 오미는 일본열도의 용례에 따르면 각각 村主와 臣으로 불릴 수 있는 존재였을 것이다. 久禮斯己母의 경우는 추측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지만, 奴須久利의 경우는 ‘村主’로 보아 크게 잘못이 없을 것이다. 이들은 ‘岐’ 혹은 ‘次旱岐’ 등과 같이 수장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과 阿利斯等の 명령에 따라 직접 신라와 백제에 사신으로 갔던 점으로 미루어, 阿利斯等の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촌락의 수장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阿利斯等과 이들 사이에는 주종관계가 성립해 있었을 것이고, 이들의 호칭은 원시적인 관사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上首位·二首位와 같이, 한기 계열의 명칭으로부터 구별되는 상하서열을 나타내는 단계까지 진전되지는 못했지만, 阿利斯等에 대한 예속성에 있어서는 일반 牟羅 혹은 枳의 長보다는 강하였을 것이다.

다만 背評의 경우는 고립된 자료이므로, 이 卓淳國 내부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評이 일본에서는 郡에 해당

한 것으로 짐작해 볼 때는 이 背評은 己叱己利城과 버금가는 규모와 세력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阿利斯等の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역으로도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이해를 도식화하면 <표 3> 및 <표 3>과 같다.

<표 2> 소국의 내부구조

내부구조	당시 발음	수장
① 國邑 ↓	己叱己利-콧코리→骨浦	阿利斯等-왕
② 評 ↓	己富利-코후리 評은 코오리라고 하며 고을을 뜻함.	己富利知伽, 知는 치.
③ 牟羅城 ↓	성(城) 시키(斯鬼)?	母 ←오미(臣)에서 추정
④ 牟羅 ↓	무라(村) 마을의 고향	(牟羅知)?←무라지(連)에서 추정 須久利=스구리(村主)와 동일
⑤ 자연촌(枳, 羅, 那)		

國邑 己叱己利城(國邑, 阿利斯等の居城)
직할

評(己富里) 背評(能備己富里)

牟羅城 久禮牟羅城 伊斯积牟羅城
- 久禮斯己母

牟羅 (奴村=牟羅?) 布那牟羅 牟雌积牟羅
- 奴須久利 騰利积牟羅 久斯牟羅

自然村落? 阿夫羅 久知波多积
(刀伽 古跛 - 南加羅)

<표 3> 小國의 階層構造

3) 가야 소국의 범위

이제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야 소국의 범위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명을 통해서 그나마 그 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경우는 골포국과 南加羅이다.

우선 골포국의 國邑인 기질기리성은 창원의 중심지였던 성산패총

및 가음정동 일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의 난점은 이 지역에 安羅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총고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러나 金海에도 뚜렷한 고총고분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창원지역에 고총고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 小國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背評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阿利斯等이 백제와 신라에 원군을 청하였을 때, 近江毛野臣이 맞아 싸웠다고 하였으므로, 그가 원래 있었던 熊川 혹은 久斯牟羅에서, 백제와 신라의 군사와 대적하기 쉬운 곳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창원지역이 천주산 정병산 장복산 팔룡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를 이루고 있고, 마산 역시 해안의 산지 경사면을 따라 좁게 형성되어 있는 지형이므로, 분지 내에서 백제와 신라의 軍勢와 대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近江毛野臣이 적극적으로 맞아 싸웠다는 표현으로 보아서는 卓淳國의 일원을 형성하고 있던 세력 중 현재의 창원 마산지역 바깥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또 評이라고 기록한 점으로 미루어, 이 지역이 卓淳國 내에서는 국읍인 己叱己利城에 버금가는 중심지였을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背評이라고 한 점 등에서 과감하게 추측한다면, 창원지역에서 보아 등뒤에 해당하는 지역 즉 창원시 동면지역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호리를 중심으로 한 동면지역은 창원지역에 버금가는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國邑에 버금가는 지역의 명칭인 評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백제와 신

라의 군사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후보지로 칠원지역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은 久禮牟羅城이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背評의 후보지로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이사부가 공략하였던 지역으로 보이는 背伐도 가능성으로서는 背評과 연관지을 수 있을 것 같다. 背評은 能備己富里(능비고을?)로 읽었으므로, 고을의 고어인 “己富里”를 상당한 넓이를 가진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인 伐(벌)과 혼용되었을 수도 있다. 伐의 용례를 살펴보면, 比子伐 達句伐 骨火 音汁伐 推火 등과 같이 소국의 국명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伐(火)가 소국의 국명으로 사용될 정도의 영역을 표시하는 용어라면, 背伐도 작은 마을이라고 하기보다는, 背評처럼 ‘고을’이라고 불렸던 정도의 넓이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背評의 위치를 확정할 구체적인 단서는 없다. 그러나 評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한 인구와 면적을 가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다호리는 고분의 밀집도 등으로 미루어 당시 창원과 김해 외곽지역에 가장 큰 고을이었음이 틀림없다. 일단 背評(背伐)의 후보지로 다호리를 상정해 보고자 한다.

그밖에 골포국 주변에서 나타나는 牟此積牟羅 久禮牟羅城 伊斯積牟羅城 久知波多積, 布那牟羅 阿夫羅 등의 지명은, 安羅와의 경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久禮牟羅城을 제외하면 구체적으로 비정할 근거가 없다. 다만 牟此積, 伊斯積, 久知波多積 등과 같은 지명이 枳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枳 혹은 只를 어미로 하는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四海(해) = 동은 阿等邊[혹은 斤鳥只邊이니 退火郡], 남은 兄邊[居柒山郡], 서는 未陵邊[屎山郡:지금 沃溝郡 臨陂面], 북은 非禮山[悉直郡]

霜岳 (진략) 熊只[屈自郡 熊只縣]

河濱縣은 본시 多斯只縣(혹은 畚只라고도 함)인데, 경덕왕이 河濱으로 개명하여 지금도 그대로 일컫는다.

唐津縣은 본시 백제의 伐首只縣으로, 경덕왕이 唐津으로 개명하여 지금도 그대로 한다.

이상의 예로 미루어 只 혹은 枳, 支 등의 지명 어미는 해안, 강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내륙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삼국사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중에서는 적지 않은 경우가 해변, 강변의 의미로 생각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최소한 골포국 혹은 탁순국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只 혹은 枳의 지명 어미를 해안가 혹은 강가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골포국은 해안을 중심으로 발달한 小國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日本書紀』에 나타나는 熊川이라는 지명과 조선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熊川이라는 지명의 공통성은 새로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 이후 熊只 혹은 熊神이던 지명이 熊川으로 바뀌어, 결국 古代의 熊川이라는 지명과 일치하게 되는 것은 우연이다.

熊只라는 지명은 熊山 혹은 熊峰을 標識로 하는 이 지역의 해안을 나타내기 위한 뿌리깊은 표기방식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옹천이 일본열도에서 오는 왜인들이 첫 기착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옹봉의 특이한 지형이,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걸음 나아가서, 熊只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熊川 주변 및 골포국에서 나타나는 只 혹은 枳 등의 어미를 가진 지명은 이 지역의 해안 지역에 있었던 지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

한편 남가라의 경우는 일련의 기사 속에서 함께 등장하는 지명들이 있어서 이들 비교해 보면, 그 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南加羅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지명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繼體 二十三年 四月. (전략) 上臣抄掠四村(金官·背伐·安多·委陀, 是爲四村. 一本云, 多多羅·須那羅·和多·費智爲四村也).

敏達 四年 六月. 新羅遣使進調. 多益常例并進多多羅·須奈羅·和陀·發鬼, 四邑之調

推古 八年 是歲, 命境部臣爲大將軍, 以穗積臣爲副將軍. <竝闕名.>則將萬餘衆, 爲任那擊新羅. 於是, 直指新羅, 以泛海往之. 乃至于新羅, 攻五城而拔. 於是, 新羅王, 惶之舉白旗, 到于將軍之麾下而立. 割多多羅·素奈羅·弗知鬼·委陀·南迦羅·阿羅羅六城, 以請服. (하략)

金官, 背伐 등의 대응 관계 속에서 이들 지역의 비정할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먼저 金官이 須那羅(素奈羅)와 대응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須나 素는 ‘쇠(鐵)’를 음으로 나타내기 위한 借字이고, 金은 뜻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 官과 那羅가 대응하고 있는데, 나라 곧 國家를 뜻하는 우리 말은 이 대응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官이라는 의미와 통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공적인 지배기구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치를 위한 시설을 의미하였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결국 金官이라고 표기하더라도 그것을 당시 사람들이 읽을 때는 ‘쇠나라’라고 읽었던 것이다. 金官은 곧 지금의 김해시 중심부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背伐은 앞에서 다호리 쪽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熊川도 금관국의 범위에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표조사 등의 결과를 보면, 김해식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다대포로 비정되는 多多羅의 경우도, ‘쇠나라’와 함께 이사부가 초략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또 4음의 調를 바쳤다는 기사에서도 須奈羅와 함께 나타나고 있으므로, 남가라의 영역에 포함시켜도 좋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多多羅·須奈羅·和陀·發鬼를 하나의 단위로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和陀(和多, 委陀)와 發鬼(費智, 弗知鬼)도 南加羅의 영역일 것이다. 安多라는 지명도 보이는데, 이는 和陀(和多)의 이표기일 가능성도 있으나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해 보면, 南加羅를 구성하는 지역명으로는 素奈羅를 중심으로 多多羅, 和陀(和多, 委陀), 發鬼(費智, 弗知鬼)를 상정할 수 있으며, 四村 및 四邑으로 거듭 부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네 개의 단

위가 南加羅의 주요 구성체라고 하는 인식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삼국사기』 지리지에도 나타나듯이 주군현제가 완성된 단계에서는 하나의 郡은 대체로 3-4개의 領縣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 영현에는 다시 3-4개의 촌락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城·村으로 파악된 지역은 다시 縣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각각 縣으로 불리게 되었을 것이고, 그 아래에는 처음부터 城·村으로 파악되지 않았던 촌락들이 속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加耶諸國의 경우에 적용해 보기로 하자. 역시 남산신성비에 의하면, 안라국의 경우 郡上村主는 阿良村의 守知撰干으로 되어 있다. 이 阿良村을 중심으로 의령지역으로 비정되는 奴含村과 칠원으로 비정되는 柒吐(村)가 하나의 노역징발의 단위를 이루었다. 安羅國의 중심지 즉 國邑에 해당하는 阿良村에서 재지세력을 대표하는 지위와 관위를 갖고 있는 사실은, 신라에 편입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지역적인 세력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阿利斯等の 己叱己利城을 중심으로 한 가야소국도 신라에 편입되었을 때, 통상적으로는 이 소국을 형성하고 있던 지역 전체가 후대에는 하나의 郡으로 편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郡 속에는 사벌소국 혹은 안라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몇 개의 城 혹은 村이 편제되었을 것인데, 城·村으로 편제된 촌락은 대표적인 牟羅城과 牟羅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己叱己利城을 비롯하여 久禮牟羅城·伊斯枳牟羅城이 村으로 편제될 수 있는 우선적인 후보일 것이고, 그밖에 牟羅로 불리던

지역도 다른 촌락에 비해서는 큰 규모였을 것이므로 村으로 편제되었을 수 있다. 이렇게 城·村으로 편제된 지역의 수장들도 신라의 지방행정조직에 편입되었을 것이다. 安羅國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己叱己利城의 阿利斯等 혹은 그 후손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村主, 牟羅城 혹은 牟羅의 수장 중에 유력자가 그 뒤를 이어 보다 낮은 관위의 村主에 임명되었을 것이다.

己叱己利城을 중심으로 한 가야소국은 『삼국사기』의 편찬단계에서는 屈自郡이라는 명칭을 거쳐 義安郡로 정착되었다. 이 의안군에는 3개의 영현이 속해 있었는데, 현재의 함안군 칠원면으로 비정되는 漆吐縣(漆隄縣)과, 마산으로 비정되는 舍浦懸(骨浦縣), 창원시 熊川으로 비정되는 熊只縣(熊神縣)이 그것이다. 먼저 屈自郡은 久斯牟羅 혹은 己叱己利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 熊只縣(熊神縣)은 熊川으로 비정되고 있는데, 熊川을 久斯牟羅와 동일시할 수 있다면 牟羅가 縣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久斯牟羅와 己叱己利城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久斯牟羅는 熊川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호칭이었다고 할 수 있고, 熊川이 牟羅로 불리웠는지는 알 수 없게 된다. 한편 칠토현은 남산신성비에서는 阿良村과 함께 편제되어 있었으나, 그후 義安郡으로 편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원래 함안의 安羅國과의 경계에 위치한 곳이었으며, 또 久禮牟羅城을 칠원(칠토현)에 비정할 수 있다면 이 역시 당시의 牟羅城이 村을 거쳐 縣으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NOT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on the left page.

NOT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on the right page.

NOTE

제21기 가야학아카데미

| 가야 연구의 흐름과 시각 |



Part _ 8

전근대_{前近代}의 가야사 인식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전문위원

I. 머리말

초인간적 자연현상이 역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다. 커켜이 쌓인 인간 행위가 역사이다. 그리고 이를 기록하고 해석하는 것도 인간이다. 이러한 모든 인간 행동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것은 시·공간적 환경이다. 때문에 역사인식 탐구는 시대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가야사 인식도 당시 시대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은 그 변화의 흐름을 조선 사회가 몰락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정체성과 타율성에 바탕을 둔 식민사관의 시각이다. 광복 후 한국인 학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경제사적으로는 생산력의 제고와 상공업 등의 발전을 근거로 자본주의 萌芽論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17~19 세기를 중세적 질서와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변혁의 시기로 파악하였다. 근대의 싹을 본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보이는 새로운 思潮를 實學이라 부르고 있다. 실학의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자나 연구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략 조선 후기 봉건사회의 해체기에 등장한 탈 주자학적 사회 개혁사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대인들이 스스로 실

학 또는 실학자라고 자처한 바는 없었다.¹⁾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가야사 인식을 살펴보기 전에 그 이전 시기도 간략히 보고자 한다. 보다 정밀하고 폭 넓게는 향후를 기약하고자 한다. 결과부터 말하면,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가야사 인식은 새로운 차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의 전환적 발상은 획기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문제제기 수준의 논의에 거침을 양해 바란다.

1) 실학에 대한 전반적 정리는 2011, 『한국사 시민강좌』48-『한국 실학연구 80년』 특집호, 일조각이 참고 된다.

Ⅱ. 고려 이전의 가야사 인식

가야 및 가야사에 대한 인식은 언제부터였을까? 그동안 가야사 연구의 효시를 조선 후기 실학자 한백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²⁾ 그러나 난 의견을 달리한다. 가야는 三韓 가운데 弁韓이 성장 발전하여 형성된 諸國들이다. 따라서 삼한 중 변한의 역사는 가야사의 한 부분이 된다. 그러므로 전근대 변한의 위치 논쟁 또한 가야사 연구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한의 위치가 현재의 정설과 달라도 상관없는 것이다. 논쟁 결과의 시비 여부가 연구와 인식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崔致遠(857~908 이후?)은 삼한 중 마한을 고구려, 진한을 신라, 변한을 백제로 보았다.³⁾ 이러한 인식은 조선 초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가야는 없었다. 그러나 변한을 백제로 잘못 본 것일 뿐 가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변한이 곧 가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반박의 여지는 있다. 역사 연구에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의 인간의 모습이 필요 요소이다. 그런데 최치원의 인식에서는 공간, '가야'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점을 인정한다 하

2) 김태식, 1993, 『加耶聯盟史』, 일조각, 1쪽.

3) 『삼국사기』권34 잡지3 지리1, “新羅 崔致遠曰 馬韓則高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也.”(“신라 최치원은 마한은 고려가 되었고, 변한은 백제가 되었으며, 진한은 신라가 되었다 하였다.”). 같은 책, 권46 열전6 최치원전, “崔致遠 馬韓則高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也.”(“최치원은 마한은 고려가 되었고, 변한은 백제가 되었으며, 진한이 신라가 되었다 하였다.”)

더라도 최치원이 가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의 사료를 보자.

사료 A) ; 최치원의 釋利貞傳을 살펴보면, “伽倻山神 正見母主는 곧 天神 夷毗訶之에 감응한바 되어 大伽倻王 惱室朱日과 金官國王 惱室靑齋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靑齋는 수로왕의 별칭이다.”라고 하였으나, 가락국 옛기록인 육란 설과 더불어 모두 허황하여 믿을 수 없다. 또 釋順應傳에는, “대가야국의 月光太子는 正見의 10세손이요, 그의 아버지는 異惱王인데, 신라에게 청혼하여 夷絜 比枝輩의 딸을 맞이하여 태자를 낳았으니, 이뇌왕은 뇌질주일의 8세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역시 참고할 것이 못된다.⁴⁾

세주로서 최치원의 석이정전과 석순응전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로 보아 최치원은 대가야와 금관국, 수로왕, 월광태자, 이뇌왕 등 가야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야에 대한 인식은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文에서도 보인다. 비문은 新羅 景明王 8年(924)에 崔仁滾(868~944)이 찬한 것이다. 최

4) 『新增東國輿地勝覽』권29, 고령현 건치연혁조, “[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室朱日 金官國王惱室靑齋二人 則惱室朱日爲伊珍阿鼓王之別稱 靑齋爲首露王之別稱 然與駕洛國古記六卵之說 俱荒誕不可信 又釋順應傳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惱王 求婚于新羅 迎夷絜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惱王 乃惱室朱日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

인곤은 최치원과 사촌간이다.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890년 건립)의 경우 최치원이 짓고, 최인곤이 썼다.

봉림사는 신라 孝恭王(재위 897~911) 때 圓鑑 국사 玄昱(787~868)이 창건한 사찰이다. 신라 말기에 성립된 九山禪門 가운데 하나인 봉림산문의 중심 사찰이었다. 진경대사는 법명이 審希(854~923)로 현욱의 제자이다. 봉림사에 머물며 크게 교화 활동을 폈으며 이곳에서 입적하였다. 진경은 시호이고 보월능공은 탑호이다.

사료 B) ; 대사의 이름은 심희이고, 俗姓은 新金氏이다. 그의 선조는 임나왕족이었다. 풀에서 성스러운 가지를 뽑았으나(이는 '나라를 세우긴 했으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주변으로부터 고난을 당해왔었다. (이후) 우리 신라에 투항해 왔다. 遠祖는 興武大王(김유신)이다. 그는 오산의 늪늪한 기상과 커다란 물결의 정기를 타고, 문신의 부절을 잡고 재상이 되었다. 무신의 지략을 잡아 왕실을 높이 부양하였으며, 마침내 이적(고구려와 백제)을 평정하고, 나라 사람들을 오래도록 안정시키었다.⁵⁾

비문의 내용 가운데, “심희의 속성이 신김씨이고 그 선조가 ‘任那王族’이었다. (임나는)매년 주변으로부터 고난을 당해왔었다. (이후) 우리 신라에 투항해 왔다. 遠祖는 興武大王(김유신)이다.”는 기록이 주

5) 大師諱審希 俗姓新金氏 其先任那王族 草拔聖枝 每苦隣兵 投於我國 遠祖興武大王 鼈山稟氣 鯀水騰精 握文符而出自相庭 携武略而高扶王室 〇〇終平二敵 永安兎郡之人 克奉三朝 遐撫辰韓之俗

목된다. 이로 보아 비문 찬자 최인곤은 가야(임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 1145년 편찬된 『삼국사기』에서는 마한-고구려, 진한-신라, 변한-백제로 보았다. 최치원의 설을 따랐다. 이는 당시 고려인들의 역사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찬자 金富軾[1075(문종 29)~1151(의종 5)]은 시대적·유교적인 역사가로, 불교적인 내용과 전통적인 고유사상을 삭제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 평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조선시대 역사가들보다 덜 시대적이며, 신라 중심적인 서술이긴 하나 삼국에 대한 공평한 입장의 견지, 사료의 날조는 없으며, 지나친 산삭과 변경개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본다. 초인간적인 신비의 힘이 역사에 작용한다고 보던 고대적인 역사관으로부터 인간 중심적,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현실 중심적 중세사학 역사관으로의 변화로 평가하기도 한다.⁶⁾

※ 『삼국사기』 편찬 동기 : “우리나라의 古記는 조잡하고 빠진 것이 많아서 군주의 善惡, 신하의 忠邪, 국가의 안위, 인민의 治亂을 밝혀 勸戒를 줄 수 없다.”

※ 교훈적인 역사 강조 ← 宋 司馬光 『資治通鑑』의 영향

○ 1280년대 찬술된 『삼국유사』의 곳곳에는 가야사에 대한 인식이 보인다. 「가락국기」를 권2, 紀異의 마지막에 추려서 실은(略而載之)

6) 정구복, 1991, 「金富軾」 『韓國史 市民講座』9, 일조각, 142쪽.

것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王曆은 물론 오가야조, 금관국 파사석탑조, 어산불영조, 물계자전 등에 가야사 관련 기사들이 보인다.

특히, 五伽耶條를 수록함에 앞서 <駕洛國記>를 읽고 참고했음에도 불구하고, 『本朝史略』 등 별도의 전승 자료를 이용했다. 가야와 관련하여 복수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한에 대해서는 紀異 1에서 ‘弁韓 百濟條를 실고 있어 최치원 설을 그대로 따랐음을 알 수 있다.’⁷⁾

변한=백제 인식은 고려시기 내내 동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 초까지 이어진다.

※ 一然의 경우 ⇒ 인간 역사에서 인간의 힘만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초인간적인 힘도 작용하였으며, 역사의 자료는 설화나 구전도 자료가 될 수 있다.

7) 『삼국유사』권1, 기이1, 변한·백제, “新舊唐書云 卞韓苗裔在樂浪之地, 後漢書云 卞韓在南 馬韓在西 辰韓在東, 致遠云 卞韓 百濟也(『신·구당서』에는 변한의 후손들이 낙랑의 땅에 있다고 했다. 『후한서』에는 변한은 남쪽에 있고, 마한은 서쪽에 있으며, 진한은 동쪽에 있다고 했다. (최)치원은 변한은 백제라 하였다).”

Ⅲ. 조선시대의 가야사 인식

1. 조선 초 관찬사서

1) 『朝鮮王朝實錄』

태조~철종실록까지 472년 간 25대 왕들의 實錄이다.⁸⁾ 편년체 사서로 일종의 연대기이다. 왕이 승하하면 춘추관에서 재위 기간 동안의 史實들을 편찬하였다. 가야 관계 기사는 수로왕릉의 보수 및 제사와 관련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2) 『東國史略』

‘동국사략’이라 불리는 저서는 여러 종류가 있다. 16세기에 李嶠·朴祥·柳希齡·閔齊仁 등이 각각 『동국사략』을 지었으며, 1906년 玄采가 지은 『동국사략』도 있다. ‘三國史略’이라고도 한다. 최초의 『동국사략』은 1402년 6월에 왕명으로 착수되어 이듬 해 8월에 완성되었다. 河崙·권근·李詹 등이 편찬에 참여했다. 권근이 서문과 箋文을 썼다. 50여 편의 史論도 대부분 그가 쓴 것으로 보아 권근이 편찬의 주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단군조선을 시발점으로 하여 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二府·삼한·삼국의 순으로 서술해 조선시대에 들어와 처음으로 고대사의 체계를

8) 순종과 고종실록은 일제강점기인 1927~1935년까지 李王職의 주관 하에 편찬, 간행되었다.

수립하였다. 단군·기자·위만의 3조선을 설정한 것은 이미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보인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한의 위치에 대해서는 최치원의 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한을 백제, 변한을 고구려, 진한을 신라에 비정하는 새로운 설을 내세웠다. 『唐書』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설은 그 뒤 『동국통감』에 이르기까지 조선 초 모든 사서들이 따른다.

삼한 다음에 2부를 설정한 것은 『삼국유사』를 좇은 것이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보이는 낙랑·부여·대방·흑수·옥저·가야·발해 등 국가는 『동국사략』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잃고 말았다. 이것은 상고사 체계가 그만큼 단순화되고 일원화된 것을 뜻한다.

삼국시대에 관한 서술은 신라를 위주로 하여, 신라의 年紀 밑에 신라·고구려·백제의 순으로 사건을 서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신라를 삼국의 주인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권근은 신라가 ‘先起後滅(가장 먼저 건국하고 가장 늦게 멸망함)’한 까닭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서술 방법은 뒤에 많은 비판을 받아서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에서는 삼국을 대등하게 서술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이 책은 편년체 사서로서 주자의 綱目法에 따라 사건의 큰 줄거리를 먼저 서술하고 다음에 그 세목을 작은 글씨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강목법을 따른 효시이기도 하다. 신이한 내용을 담은 신화나 전설은 荒誕不經(근거가 없고 허황되며 상도에 어긋남)한 것으로 여겨서 대부분 삭제하고 실지 아니하였다. 엄격한 성리학적 명분론을 기저에 깔고 고대문화를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東國通鑑』

조선 전기 대표 관찬사서이다. 1458년(세조 4)에 편찬 사업이 시작되어 1484년에 완성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전년에 완성된 책에 찬자들의 사론을 붙여 『동국통감』 56권이 만들어졌다. 조선 이전의 역사를 모두 모아 하나의 역사를 만든, 최초의 ‘한국사’라 할 수 있다.

권근의 『동국사략』에서 신라 중심으로 서술한 것을 수정하였다. 삼국의 세력이 대등하다는 입장에서 삼국시기를 無統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관한 한 최초이다. 편년체이다. 단군조선에서 삼한까지를 外紀, 삼국의 건국으로부터 신라 문무왕 9년(669)까지를 삼국기, 669년에서 고려 태조 18년(935)까지를 신라기, 935년부터 고려 말까지를 고려기로 편찬하였다. 삼국 이전을 외기로 처리한 것은 자료 부족으로 체계적인 왕조사 서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신라기를 독립시킨 것은 신라 통일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이 책에서 표방한 것은 ①조선왕조 건국의 합리화 ②文臣 중심적 인식 ③排佛的 입장 견지 ④三綱五倫의 강조 ⑤事大情神의 표방이다.⁹⁾ 이러한 기조는 조선 전 시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견지된 것이다. 그러나 양란과 사회와 당쟁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그 설득력이 상실된다. 이러한 시기에 실학자들의 사학이 새로운 것을 모색하면서 등장하는 것이다.

9) 김철준, 1974, 「修山 李種徽의 史學」 『東方學志』15, 107쪽.

2. 조선 후기 실학자들

1) 吳灑[1540(중종 35)~1617(광해 9)], 『東史纂要』(1606)

본관은 高敞, 咸安 태생. 退溪(숙부가 오운의 외조부)와 南冥 문인. 김중직, 김성일 가문과도 姻戚으로 영남 사림의 정맥을 이음. 뚜렷한 당색은 없으나 남인계에 가까운 東人. 『東史纂要』을 유성룡(동인)이 王에게 올림. 서인계 朴祥 편찬의 『東國史略』(중종 대)에 불만(신라를 중심으로 한 삼국 서술하지 않고 渾述). 신라 정통사관은 영남인사들의 이해관계와도 관련.

2) 韓百謙[1552(명종 7)~1615(광해 7)], 『東國地理志』(1615)

徐敬德[1489(성종 20)~1546(명종 1)]과 閔純[1519(중종 14)~1591(선조 24)]의 비정주자학적 학문의 영향을 받음. 변한을 가야로 인식한 최초인

3) 柳馨遠[1622(광해 14)~1673(현종 14)], 『東國輿地志』(1656)

본관은 문화. 호는 반계. 종래의 정통주자학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체제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가를 재조하려 했다. 그의 사상은 조선 후기 실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1654년 진사시에 급제했지만, 당시 과거제의 폐단이 극심한 것을 보고 이후 다시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종래에 소홀히 되었던 우리나라의 역사·지리·어학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개혁을 위한 정치·경제 문제의 연구에 힘썼으며, 국방을 위해 군사학도 연구했다. 종래의 정통주자학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체제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가를 재조하려 했다. 그의 사상은 조선 후기 실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

저술 가운데 역사학에 관련된 것으로는 1665년에 편찬한 『東國史綱目條例』와 『東國歷史可考』, 『續綱目疑補』, 『東史怪說辨』이 있다. 『東國輿地志』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17세기를 대표하는 지리지이다. 9권 10책으로 구성된 역사지리지로서 최초의 私撰 지리지이다.

그의 사상은 당시 재야 지식인들의 理想論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권에서 소외되어 있던 畿湖南人을 통하여 계승되었다. 신경준, 안정복, 정약용 등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1769년 영조의 명에 의해 경상감영에서 『반계수록』이 간행되었다.

4) 洪汝河[1621(광해 13)~1678(숙종 4)]

경상도 안동 출생, 어려서부터 李滉 문인들의 학문적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남인. 1654년 진사. 1659년(효종 10)에 宋時烈 등 서인 집권세력을 공격하는 소를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관직에서 물러나 18년간 은거. 이때 『동국통감제강』(1659이후, 13권 7책) 저술. 徐居正의 『東國通鑑』을 취사·절충해 지은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파주에 은거하는 동안 지은 것으로, 그가 죽은 지 100여년 뒤인 1786년(정조 10)에 출간되었다. 安鼎福이 서문을 썼다. 그 동안 가숙용으로 필사되어 읽혀졌다.

『동국통감』의 고대사 부분을 朱子の 綱目法에 따라 고쳐 쓴 것인데, 주요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 구분을 조선·삼국·신라의 크게 세 시기로 나누고, 조선은 다시 箕子와 馬韓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는 기자와 마한을 정통국가로 인정한 결과이다.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은 기자 밑에 附記되고, 진한과 변한은 마한 밑에 부기되었다. 둘째, 삼국시대는 신라왕을 표제로 내세워, 그 밑에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를 부기하는 형식을 취해 신라를 정통국가로 취급하였다. 그 다음에는 669년(문무왕 9) 이후를 '新羅紀'로 독립시켜 발해의 존재는 무시되고 있다. 셋째, 중국 정통왕조 帝王의 사망 기사를 실어 처음으로 한국사에서 중국사를 포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결국 이 책은 기자에서 마한을 거쳐 신라로 이어지는 국가 활동을 고대사의 정통으로 부각시키고, 그 나머지 국가들은 신하나 찬탈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흥여하의 새로운 역사서술 방식은 그 뒤 俞樾의 『麗史提綱』, 林象德의 『東史會綱』, 안정복의 『東史綱目』 등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사 서술을 정통론을 빌려 재구성한 것은 새로운 중원의 지배자로 등장한 청나라에 대해 문화적 우월성을 확인해 국가의 권위를 드높이려는 국가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학문적으로는 주자의 강렬한 尊華攘夷의 역사서술 방법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전통적인 華夷의 동아시아 세계질서 속에서 청나라의 등장은 조선 지식인의 세계관에 尊華와 尊夷의 상반된 대응을 야기시켰다. 전자는 문화자존 의식을 통한 국가의식으로, 후자는 혈통적 독자성에 대한 자각을 통하여 민족의식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5) 俞樾[1607(선조 40)~1664(현종5)], 『麗史提綱』(1667)

『市南集』, 사계 김장생의 문인. 시호 文忠. 율곡 이이-김장생-우암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의 전위적인 역할을 함. 말년에 주자의 『자치통감강목』을 본받아 노론 정권 하의 고려사에 대한 역사관을 대변해 주는 『여사제강』을 강목체로 편찬함

6) 許穆[1595(선조 28)~1682(숙종 8)]

『眉叟記言』(1667·1673·1677), 제35권 원집 외편, 『東事』, 남인의 영수. 기전체 형식을 따름. 정통성을 인정할 만한 나라들은 '세가'로 서술하고 있고, 방계로 인정할 만한 나라들은 '열전'으로 함. 靺鞨, 毛羅(=제주도), 黑齒(=일본) 열전

7) 林象德[1683(숙종 9)~1719(숙종 45)], 『東史會綱』(1711), 27권

10책. 목활자본

『麗史提綱』, 『東史綱目』과 함께 17, 18세기의 역사서술의 새로운 경향인 강목체 史書를 대표함. 소론 청류계의 인물로 노론·소론 연정이 성립된 1694년(숙종 20)부터 관직에 진출하여 이조정랑의 지위에까지 오름. 저술 시기는 노론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저자도 중앙관직에서 물러났던 1711~19년으로 추정됨

체제는 序例·법례·年表·論辯을 실고 본문은 삼국기·신라기·고려기로 나누어 기술했다. 책의 저술 동기는 노론의 俞樾가 앞서 지은 『여사제강』을 보완한다는 것이었다. 서례에서 그는 朱子の 강목체가 역사서

술의 가장 좋은 방식임을 논설하며 『여사제강』의 강목법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내용에서도 고려 이전 부분을 보완한다고 했다. 이 취지에 따라 범례의 항목은 거의 주자의 강목을 따랐다.

본문의 내용은 『東國通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는 통일신라와 고려를 正統으로 보고 삼국은 무통의 시대로 처리했다. 기자는 문헌이 부족하고 마한은 실국했다 하여 삼국 이전은 정통을 따지지 않았다. 이는 실세보다도 도덕적 명분을 추구하는 강목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주자성리학자이지만 근거가 없으면 기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다. 安鼎福의 『동사강목』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삼한의 위치고증과 관련하여 3국과 삼한의 관계도 새롭게 설명했다. 마한은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이고 진한은 경상도, 변한은 전라도로 비정했다. 조선과 삼한은 구역을 달리했다고 보는 것은 한백겸과 같으나 변한을 경남 가야지방으로 비정한 한백겸과 달리 임상덕은 전라도에 비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⁰⁾

8) 李瀾[1681(숙종 7)~1763(영조 39)]

- 본관은 驪州, 호는 星湖, 기호 남인
- ‘成敗論’과 ‘華夷論’, ‘時勢論’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史論’을 통하여 전통적인 중국사 인식에서 벗어난 자국사 입장의 역사서술, 그리고 歷史學을 하나의 독립 학문으로 인정하는 방향성을 제시. 다만

10) 韓永愚, 1989, 『朝鮮後期史學史研究』, 一志社, 179쪽.

그의 사론에 보이는 새로운 경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지 못하고 유교적 윤리사상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도 존재 ⇒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사관

- 이단잡설과 訓話·詞賦는 물론, 理氣의 논의도 당시 사회의 현실 문제에 비추어서는 아무런 실익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그러한 의미에서 예학이나 이기설 같은 것이 당시에는 건요하고 절실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내외적으로 당시 조선이 처한 사회현실로 보아 경세실용이라는 면에 중점을 둬

- 역사인식도 종래의 주관적이고 의리·시비위주의 인식태도를 벗어나 객관적이며 비판적·실증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믿음. 문헌에 대한 충분한 고증과 비판이 없이 주관적인 억측이나 요량으로 역사를 서술해서는 안 됨

-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생존 보장의 방책으로서 事大는 불가피하다고 봄

- 史家가 무엇보다도 먼저 파악할 것은 ‘時勢’, 즉 역사적 추세이며, 시비를 앞세워서 안 된다고 함 → 『東國通鑑』, 『麗史提綱』(俞榮)에 불만

- 역사는 성공한 자의 記述. 엄밀한 문헌 고증 필요. 上古시대를 이상으로 생각함

- 단군·기자 → 삼한(마한) → 3국은 무통시대로 파악(3국 무통론) → 정통은 나라의 강약이 아니라 大義가 기준이라는 인식(檀君朝鮮 정통론)은 柳馨遠에서 시작되어 許穆에 이르러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고,

이들의 역사관을 계승한 것이 이익과 安鼎福)

- 三韓의 성립 시기를 箕準이 남하하기 훨씬 이전부터 韓이 존재한 것으로 봄
-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서학의 수용으로 세계관·역사의식을 확대, 심화시켜갔고, 보다 더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방식을 체득
- 李珣과 柳馨遠의 학풍을 존숭함, 안정복 이공익 정약용, 한치윤에 영향을 줌
- 『성호사설』, 『藿憂錄』, 『성호서생문집』, 『李先生禮說』, 『四七新編』, 『喪威前後錄』과 『사서삼경』, 『근사록』, 『심경』, 『이자수어』

9) 申景濬[1712(숙종 38)~1781(정조 5)]

전북 순창 출생. 1754년(영조 30) 향시 및 증광시 을과에 급제하였고, 1757년 성균관 典籍, 예조·병조 낭관에 임명. 1770년(영조 46) 『東國文獻備考』를 편찬할 때 『輿地考』를 담당하였으며, 그 해 6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東國輿地圖』를 감수하였다. 지리학과 관련된 분야의 저서로는 『疆界志』, 『山水經』, 『道路考』, 『山水緯』, 『郡縣之制』 등이 있다. 조선의 산맥 체계를 水系와 연결시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놓은 『산경표』(1책)는 대동여지도의 초석이 되었다.

10) 安鼎福[1712년(숙종 38)~1791(정조 15)]

○ 본관은 廣州. 자는 百順, 호는 順庵. 남인의 정치적인 입지에 따라 영락한 환경

○ 1744년 유형원의 『磻溪隨錄』을 구해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아 1775년에 『磻溪年譜』를 찬함. 1746년 李瀾을 찾아 문인이 됨. 그러나 35세라는 장년기를 家學으로 보낸 탓에, 여기에서 형성된 자기 나름의 학문체계와 사유구조는 성호를 비롯한 문인들과의 교류에서도 쉽게 변화되지 않음. ⇒ 다른 실학자들 보다 개혁적인 면에서 참신성이 덜 하고,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 선 것도 이러한 가학의 분위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됨

○ 단군조선으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서인 『東史綱目』을 1759년에 완성함

○ 말년에는 정주학 이외의 異端思想의 배척에 앞장섰다. 서학, 특히 천주교에 대해 철저히 비판 ⇒ 천주교의 도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785년(정조 9)에 『天學考』와 『天學問答』을 저술해 천주교의 來世觀이 지닌 현실부정에 대해 비판. 제자이면서 사돈지간인 권철신과 사위이자 권철신의 동생인 權日身에게 수많은 서찰을 보내 경계시킴

○ 반성리학적 사상이 담긴 도교나 불교, 심지어는 양명학까지도 부정 ⇒ 이러한 보수적인 사회사상은 당시 정주학으로 재무장한 노론 독주의 정권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짐 ⇒ 親老論的

○ 참신한 개혁사상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질서를 고수하려는 近畿南人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 선 인물. 정치적인 업적이나 경제적인 실천보다는 학문적·사상적인 측면에서의 공헌이 더욱 큼

○ 역사서인 『동사강목』은 유형원→이익→안정복으로의 계보를 이음

11) 李種徽[1731(영조 7)~1786(정조 10)]

『東史』: 당색은 소론파에 속하며, 백부 廷傑이 尹拯의 문하인 관계로 그의 학통을 계승하고 있다. 소론파 중에서도 양명학자 鄭齊斗의 孫堦 申大羽와 가까웠고, 洪良浩·趙重鎭 등과도 교유가 있어 이들 3인의 序와 跋을 받아 1803년에 『修山集』을 간행하였다. 그 속에 『東史』가 들어 있다. 한국사 서술에서 최초로 本紀·世家·列傳을 중심으로 하는 기전체의 형식을 완전히 갖추어 고대부터 고려까지 서술하였다. 이것은 가치평가를 앞세우는 綱目法에 의거했던 것에 대비된다. 고조선과 삼한, 그리고 부여·고구려 계통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것이 특징이다.

지은이가 고대사에 주로 관심을 둔 것은 우리 고대의 문화와 영토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다. 즉 청나라가 중원의 지배자가 된 이후 중국에는 이미 中華의 전통이 끊어졌고 오직 우리나라만이 중화의 문화를 간직한 선진국가라는 인식하에, 이미 단군·기자 때부터 중국의 三代와 같은 문화가 형성되어 고구려·발해로 이어져 온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본기에서는 단군 기자 삼한 後朝鮮을 두었다. 世家에서는 기자(補遺), 부여, 발해, 伽倻世家를 두었다. 부여·고구려·백제·예맥·옥저·비류 등을 모두 단군의 후예인 것으로 간주하고, 발해 또한 고구려의 후계자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이 만주에 세웠던 나라들이 본래 우리의 강토였음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하였다. 단군·기자·위만조선을 3조선이라 하여 三皇에 대비되는 당당한 국가로 인정하며 이를 本紀에 넣고, 부

여·옥저·비류·예맥·삼한 등도 고조선에 臣屬한 나라로 보아 고조선의 역사적 위치를 격상시켰다.

특히 삼한을 단군·기자조선에 신속한 나라로서 生民의 초기부터 있었다고 한 것은, 삼한을 중국의 유망민 집단으로 해석하고 箕準 이후부터 마한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통설과는 다른 것이다.

고대국가의 강역에 관한 위치비정에 있어 대체로 선배 소론학자인 林象德의 설을 따랐다. 특히 삼한의 위치를 황해도 이남으로 본 것이나 그 밖에 비류·대방·패수·환도·졸본 등의 위치 고증은 임상덕의 설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유학자의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당시 유학자들 사이에 유행하던 史體인 綱目法과 正統論을 따르지 않았으며, 또 유학자의 시각에서 볼 때 미신으로 간주되던 귀신 숭배의 전통을 神事志라는 독립된 항목을 두어 정리한 것이 특이하다.

12) 柳得恭[1748(영조 24)~1807(순조 7)]

유득공의 가계는 서얼이었다. 그의 증조부 유삼익이 고조부 유성구의 서자였고, 외할아버지 홍이석은 외증조부 홍시주의 서자였으며, 외조모 우계이씨는 이서우의 서녀였다.

1779년(정조 3) 奎章閣檢書가 되었으며 포천, 제천, 양근 등의 군수를 거쳐 풍천부사에 이르렀다. 규장각 검서 당시 다양한 서적을 읽으면서 신라사 위주의 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고, 이후 발해고와 사군지 등을 출간하였다. 외직에 있으면서도 검서를 겸임하여 이덕무·박제가·서이수 등과 함께 4검서라고 불리었다.

그는 최초로 발해사에 관심을 갖고, 발해사가 고구려의 유민들에 의해 건국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는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자로 봤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조선 역사의 체계 안에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통일신라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라와 발해가 병존했던 시기를 '南北國時代'로 규정했다.

그는 『발해고』를 통하여 발해의 옛 땅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하였고, 『사군지』에서는 북방 역사의 연원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특히 『발해고』 머리말에서 유득공은 역사가 신라사 중심으로 된 것을 고려의 탓이라 보았다. 유득공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자처한다면 당연히 고구려의 후신인 발해 역사까지도 포함된 南北國史를 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으며, 발해를 세운 대조영의 大氏가 고구려의 유민이었고 발해의 땅도 원래 고구려 땅이었으며 고구려인들이 구성된 국가임을 기록하여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는 발해사에 대한 초기 연구의 하나이며 그의 역사 인식은 나중에 丁若鏞·韓致滄 등의 연구 업적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3) 이공익[1736(영조 12)~1806(순조 6)]

본관은 전주. 호는 完山·燃藜室. 아버지는 匡師이고, 어머니는 윤씨이다. '연려실'이란 漢나라 劉向이 옛 글을 교정할 때 신선이 비단으로 만든 지팡이에 불을 붙여 비추어주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유명한 서화가였던 그의 아버지가 그의 書室 벽에 손수 휘호해준 것을 그대로 호로 삼았다. 가학인 陽明學의 영향을 받아 실증적 역사서인 『燃藜室記述』을 저술했다.

그의 가문은 전통적으로 少論에 속했다. 그의 5대조인 景稷과 그 동생인 景奭은 金長生의 문인으로 학문이 뛰어나고 호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지낸 인물이었다. 특히 경석은 산림의 학자들을 대거 천거하여 宋時烈·宋浚吉 등이 이때 처음으로 요직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후 그가 천거한 송시열과 정적이 되어 老少分黨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이공익의 가문은 소론에 당적을 두고 노론과 정치적 각축을 벌였으며 증조부인 大成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소론의 대표자가 되었다. 조부인 眞儉은 노소당쟁의 절정이었던 신임사화에서 주모자가 되어 노론의 축출에 앞장섰으나, 영조의 즉위로 국면이 반전되어 처형되었다. 이때 처형된 소론의 잔여세력이 일으킨 1728년(영조 4)의 李麟佐의 난과 1755년 나주괘서사건으로 아버지 광사는 유배당했다가 죽었다.

이처럼 소론으로 일관한 가문에서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일생을 보내야 했던 그는 벼슬을 단념하고 오직 野史 정리에만 몰두하여 『연려실기술』의 저술을 평생의 사업으로 삼았다. 당시 주자학적 이념이 지배하던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소론의 선비들은 양명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아버지 광사는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이사하여 양명학의 거두인 鄭齊斗에게서 배웠는데, 이공익은 이러한 집안 분위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약 30년간에 걸쳐 저술된 『연려실기술』은

조선의 역사를 紀事本末體로 엮은 역사서로서 原集 33권, 별집 19권, 續集 7권으로 된 대저술이다.

이로써 강화학파가 역사학을 연구하는 실마리를 마련했다. 이 책의 義例에서 역사서술의 기본태도로 조직적인 체계, 편리한 열람, 충분한 자료수집, 조급한 서술의 금지, 정확하고 풍부한 사실수록의 5가지 기준을 들고 있는데, 이는 곧 객관적인 자기인식을 기반으로 한 사학을 주장한 것으로서 실학적 역사서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역사인식은 객관성·공정성·체계성·인과성·현실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뒤에 丁若鏞 등 실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14) 丁若鏞[1762(영조 38)~1836(헌종 2)]

『疆域考』(1833), 南人. 주자학의 ‘人物性同論’을 부정하고 인간과 물의 차이를 ‘自作(律)’과 ‘非自作’이라는 측면에서 확연히 구분. 인간만이 자연을 이용하여 인간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봄 ⇒ 利用厚生의 능력. 「技藝論」⇒ 역사진보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衆人, ‘聖人이라도 천만인의 共議를 당할 수 없다.’ 이는 성인이 역사를 주도한다는 유교적 역사관과 근본적 차이. 기예의 진보에 의해 역사 발전. 그러나 동시에 도덕적 가치도 중시함. ⇒ 三代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尙古의 역사관. 역사관의 약점과 한계

○ 자연환경론 중시하여 삼한 중 마한 중시. 이에서 나온 백제를 ‘最強最文’, 다음을 변진=가락으로 보고 진한=신라는 처음에 가락의 속

국으로 봄. 가락은 해안국가로서 선박 이용기술로 인해 신라보다 앞설 수 있었다고 함(『疆域考』 弁辰別考)

○ 변진과 진한에 대한 연구

① 卞韓이란 명칭은 본래 없었는데 이를 나누어 卞韓·辰韓이라 한 것은 잘못이며, 弁辰이 맞다. 변진을 가락이라고 본 한백겸의 설을 탁견이라 함. 冠幘의 尖頭을 ‘弁’이라고도 하고 ‘駕那’라고도 함 ⇒ 弁이 곧 駕洛. 변진이 북방에 있었다고 한 최치원과 권근의 설 비판

② 駕洛=伽倻는 처음에 6국이었으나 12국으로 성장했고 16대 520년 동안 존속했다. 『삼국사기』에서 가야본기를 넣지 않은 것은 실책이라 함

③ 金官國(金海)은 변진 12국의 總王이며, 김수로왕은 馬韓人(『漢史』·『魏志』에 의거)이었다. 舟楫을 사용한 변진=가야를 육지에 深居한 진한보다 선진국으로 보아야 한다.¹¹⁾

○ 『강역고』는 개화기 역사학에 영향 줌 ⇒ 장지연(張志淵)의 『大韓疆域考』는 다산의 『강역고』에 일본 측 史書에서 뽑은 자료로 三韓에 대한 사실을 보완한 것임

15) 韓致齋[1765(정조 41)~1814(순조 14)], 『海東繹史』(1823), 필사본

○ 본관; 淸州. 호; 玉蕪堂. 조선 초 훈구파 가문이었으나 성조 조 이후 가세 기울. 16세기 말 동서봉당 이후 동인·남인 계열에 속함. 7대조 준겸은 정여립과 친한 사이. 父 元道(生母가 妾?) 요절. 1799년

11) 이상은 韓永愚, 1989, 『朝鮮後期史學史研究』, 一社社, 367쪽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35세) 족형 致應(한백겸의 7대손. 남인이지만 노론 북학파의 영향 받음)을 따라 北京에 갔다 옴 ⇒ 이후 『해동역사』 저술(540여 종의 장서 참조). 序文; 유득공(북학파, 1749~?) 추사 김정희(북학파의 대가, 한치윤보다 21세 연하. 당시 29세)의 挽章 ⇒ 博學考舉主義 칭송. 당색을 초월한 교류

○ 『海東繹史』는 한치윤이 죽기 10여 년 전부터 착수해 본편 70권만 완성.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地理考 15권을 조카 한진서가 속편으로 완성. 청나라 馬驢이 찬술한 『繹史』를 모범으로 하여 ‘해동역사’라 함

○ 단군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기전체로 서술. 『삼국사기』와 같은 기존의 사서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자국사의 체계화를 새롭게 시도. 단군부터 고려까지를 계승관계로 설정했으며, 고구려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으며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분명히 함

○ 기전체를 취하면서도 世紀보다 志와 考를 중시하여 역사인식 범위의 확대와 문화사적인 면을 강조. 역사연구 방법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사료 수집과 비판의 방대함 ⇒ 중국 측 자료 523종과 일본 측 자료 22종을 이용했고, 한국 측 자료 10여 종을 들어서 외국의 자료와 대비함. 그러나 외국 사료를 사료 비판없이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옮겨놓는 한계 있음

⇒ 『異稱日本傳』(松下見林, 1688), 『和漢三才圖會』(寺島良安, 1713)¹²⁾

12) 明代 王圻의 『三才圖會』(1607)를 大阪 의사 출신 데라지만 료요안이 보충하여 105권으로 편찬. 일본을 왕래한 朝鮮通信使에 의해 조선에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3국의 학계에서 실증적이고 백과전서적인 학풍이 학계의 조류를 형성했기에 수입 가능했다. 이 책은 외국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李德懋, 柳得恭, 朴齊家 등의 北學派학자들이 일본에 관한 정보를 얻는 주요자료였다. 고증적 학술방법의 참고서로서 많이 활용되었다. 특히 이

○ 加羅와 任那는 世紀 16권에서 탐라, 태봉, 후백제 등과 서술. 地理考 권71~85에서 弁辰 다룸. 交聘志(33~41권)

○ 실사구시·무징불신의 고증적 학풍을 수용하며 반성리학적 입장의 학문을 전개. 역사연구방법론에서도 고증학적 문헌 비판이나 사료의 수집을 중시하고, 역사서술에서도 객관성을 중시. 述而不作의 태도 취함. 그러나 ‘按說’이라는 제목 하에서 자신의 의견 제시 ⇒ 실학기 한국사연구를 대표

○ 기존 기전체 사서의 本紀, 世家 용어 버리고 世紀 사용 세기는 건국순서에 따름. 志의 명칭 중에 ‘事大朝貢’ 대신 =交聘을 사용 ⇒ 수평적 국제관계 지향. 한국문화의 뿌리를 東夷文化로 봄 ⇒ 夷=華. 영토에 대한 관심 = 근대국가의 3대 요소(영토 주권 인민) 중 영토 인식. 考據主義 지향. 남인이지만 노론 북학파의 영향 받음

책을 학계에 소개하고 적극 활용한 학자가 이덕무이다. 18·19세기에 이 책을 활용한 지식인은 거의 대부분 이덕무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 19세기에 들어 특히 徐有榘(1764~1845, 노론 명문가 출신, 『林園經濟志』), 李圭景(호; 五洲, 이덕무의 孫)에게 애호를 받았다. 이덕무는 甲申(1764) 통신사행(영조 40년, 정사; 趙曦) 때의 書記 成大中(서얼출신, 영조 때 탕평책으로 1784년 흥해군수. 老論), 元重攀(아들 有鑣이 이덕무의 여동생과 혼인, 노론계)와 친분이 있었다. 당색을 벗어난 학문적 교류가 보인다.

이 책은 백과전서파 학자들에게 일본에 관한 정보를 얻는 주요 참고서로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양에 관한 정보, 세계를 구성하는 다채로운 실상을 파악하는 주요한 정보원으로 이용되었다. 18·19세기 조선의 실증적 학풍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조선 후기 학술을 연구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주요 저작이다. 안대회, 2010, 『18·19세기 조선의 百科全書派와 “和漢三才圖會”』 『대동문화연구』 69, 419쪽 참조.

<표 1> 삼한-삼국의 관계와 위치에 대한 역대 인식
(문창노, 2014, 252쪽을 보완 작성)

『三國史記』 (1145)	●		●		●	최치원 설(삼한→삼국), 辰韓=秦韓(我邦)	
『三國遺事』 (1281)	●		●		●	최치원 설(삼한→삼국), 고조선-삼한- 삼국(箕準-馬韓)	
權近·河崙· 李詹『東國 史略』(1403)		●	●	●		최치원의 삼한설 비판, '下韓在南'- 漢나라 경계인 遼東을 기준으로 상정	
李荇·尹殷輔 『新增東國 輿地勝覽』 (1530)	●		●		●	최치원의 삼한설 지지, 권근의 삼한설을 비판. 마한-황해·경기·충청, 변한- 진라, 진한-경상	
李晬光 『芝峯類說』 (1614)	●		●		●	최치원의 삼한설을 지지 / 마한- 경기·충청·황해, 변한-진라, 진한-경상	
韓百謙 『東國地理誌』 (1615)		●	●		●	남·북 이원적 역사체계(북:三朝鮮- 四郡-二府-高句麗, 남:三韓- 百濟-新羅-駕洛) / 馬韓-호남·호서, 辰韓-경상 동북, 弁韓-경상 서남 / 최치원 및 권근의 삼한설 모두 비판 ★東人, 弟 浚謙(정여립의 난 때 수급 → 한치윤의 7대조)	
구분	馬韓		辰韓		弁韓(弁辰)		비고 (★당색)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신라)	

柳馨遠 『東國輿地誌』 (1656)		●	●			한강 중심으로 南(三韓)-北(朝鮮)之界 / 진국-삼한, 마한-箕準의 金馬(익산) 南遷, 辰韓-秦의 亡人 유입 / 後漢書 韓傳 취신 ★父 유희이 柳夢寅의 옥에 연좌. 외삼촌 이원진(제주목사)→李瀼의 당숙, 주자의 理氣二元論을 뛰어넘어 實理를 중시→기호남인(이익-안정복- 정약용)으로 이어짐.	
李瀼 『星湖僊說』 (1740)		●	●			三韓正統論(檀君-箕子-馬韓), 최치원의 설을 옹호 / 마한-중국의 韓 亡人, 진한-秦 亡人, 변한-마한 후에 / 지리산을 경계로 북쪽-6가야, 남쪽- 변한 / 後漢書 韓傳 취신 ★近畿 南人	
申景濬 『疆界考』 (1756)		●	●			남·북 이원적 역사체계(북:三朝鮮- 漢四郡-二部·二郡-高句麗, 남:辰國- 三韓(마한-진·변한)-신라·백제·가야) / 三馬韓國(前馬韓-箕準 馬韓-後馬韓)	
安鼎福 『東史綱目』 (1778)		●	●			三韓正統論(檀君-箕子-馬韓- 三國(無統)-統一新羅-高麗), 최치원의 삼한설 옹호(고구려의 마한병합, 백제의 변한 半面 통합) / 韓(중국 韓終 등 韓 亡人)-辰國(秦 亡人 유입 이후)- 馬韓(箕準 이후) / 가야-낙동강 以西, 지리산 以南 / 後漢書 韓傳 취신 ★근기남인 중 가장 보수적(천주교 비판→親老論)	
구분	馬韓		辰韓		弁韓(弁辰)		비고 (★당색)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신라)	

丁若鏞 『我邦疆域考』(1811)	●	●	●	남·북 이원적 역사체계(북:朝鮮-四郡-高句麗-渤海, 남:韓國-三韓(마한-백제, 진한-신라, 변진-가야) / 최치원의 삼한설 비판 / 수로·석탈해(마한계통) / 백제·가야의 선진성 부각 / 三馬韓說(前馬韓-箕準馬韓-後馬韓) / 後漢書 韓傳 취신			
				★유형원과 이익을 잇는 기호 남인			
韓致滄 『海東釋史續』(1823)	●	●	●	삼한 요동설 비판, 삼마한설 주장, 韓國=辰國 / 혁거세-진한의 총왕, 진한=신라, 변한=가야 / 狗邪韓國, 任那(=대가야)-일본의 附庸國 / 後漢書 韓傳 취신			
				★ 畿湖 南人			
구분	馬韓 고구려	辰韓 백제	弁韓(弁辰) 신라	高句麗 고구려	百濟 백제	加 야 (신라)	비고 (★당색)

<표 2> 조선 후기 주요 사서(한영우, 1989, 448~449쪽에서 정리)

東史纂要	1606·1609·1614(광해6)	吳澐 (1540~1617)	8	檀君~고려 말	紀傳體	東人 (親南人)
東國地理誌	1614~1615 (광해7)	韓百謙 (1552~1615)	1	上古~고려 말	地誌	東人 (북인계 친남인)
海東樂府	1617 (광해9)	沈光世 (1577~1624)	1	古代~조선	樂府體	
歷代紀年	1602~1615	鄭述 (1543~1620)	3	단군~ 광해원년	年表	남인?
서명	저술연대	편찬자	권수	서술시대	체재	당색

歷年通考		鄭克後(1577~1658)	1		〃	
東史補遺	1630전후 1646간행	趙挺(1551~1629)	4	단군~고려 말	編年體	北人
東史補編	1644	申翊聖(1588~1644)	9			
東國輿地誌	1656	柳馨遠(1622~1673)	13	단군~고려 말	地誌	畿湖南人
東國歷史可攷		〃				〃
東國史綱目條例		〃				〃
彙纂麗史	1640경 1770년대 간행	洪汝河(1620~1674)	48	고려	기전체	
麗史提綱	1667(현종8)	俞榮(1607~1664)	23	〃	綱目體	서인-노론
東事(記言)	1667·1673·1677(숙종3)	許穆(1595~1682)		단군~고려	기전체	남인
東國通鑑提綱	1672 (현종13)	洪汝河 (1620~1674)	13	단군~고려 말	강목체	남인
東國三韓四郡古今疆域說	1690년대	李世龜(1646~1700)		단군~삼국		
東史辨證	1690년대	南九萬(1629~1711)				
東國歷代總目	1705	洪萬宗(1643~1725)	2	단군~ 조선현종	總目體	
東史會綱	1711	林象德(1683~1719)	27	단군~고려 말	강목체	소론
星湖僿說 (經史門)	1720년대~ 1750년대	李瀾(1682~1764)				남인
楓岩輯話	(英祖代)	柳光翼(1713~1780)	7	삼한~ 조선숙종	편년체	
疆界考	1756	申景濬(1712~1781)	4	단군~조선	地誌	
東史綱目	1759·1778	安鼎福(1712~1791)	20	단군~고려 말	강목체	남인
東國文獻備考 (輿地考)	1770	申景濬(1712~1781)	100	단군~조선	지지	
서명	저술연대	편찬자	권수	서술시대	체재	당색

同文廣考	(英祖代)	?	4책	단군~삼국		
箕子外紀	1776	徐命膺(1716~1787)	3	기자조선		
紀年兒覽	1778	李萬運(1723~1797)	8	단군~고려 말	年表	
增補東國文獻備考(輿地考)	1782~1796	李萬運	246	단군~조선	지지	
東史(修身集)		李種徽(1731~1797)	4	단군~고려	기년체	소론
渤海考·四郡志	1784	柳得恭(1749~?)	1	渤海·四郡		노론 북학파, 서얼출신
燃藜室記述	1797	李肯翊(1736~1806)	59	단군~조선	記事本末體	소론
疆域考	1811·1833	丁若鏞(1762~1836)	4	조선~조선	지지	남인
海東釋史	1814·1823	韓致齋(1765~1814)·韓鎭書()	85	고조선~조선	기전체	남인
渤海世家(淵泉集)	1820년대	洪奭周(1774~1842)		발해		
叢史(東史辨疑)		洪敬謨(1774~1851)	1	단군~삼국		
大東掌攷(歷代考)	(憲宗代)	洪敬謨	13책	단군~고려 말	편년체	
東史約	(哲宗代)	李源益			편년체	
東史撮要	(哲宗代)	?	2책	단군~조선순조	편년체	
東國通志(地理志)	1868	朴周鍾(1813~1887)	24	단군~조선	지지	
東史節要	1878	安鍾和(1860~1924)	5	단군~고려 말	기전체	
서명	저술연대	편찬자	권수	서술시대	체제	당색

IV. 맺음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가졌다. 그 가운데 역사에의 관심은 조선의 존재와 전통 때문이었다. 실학자들은 민족의 역사적 전통에 대해 관심을 쏟았으며, 자신이 제시하는 개혁안의 원리도 지난날의 역사 경험을 통해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그들에 있어서 역사란 조선의 주체적 인식을 위한 도구였다. 그리고 자신의 개혁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게 해주는 스승이었다. 그들은 역사를 성리학과 구별되는 독자적 학문체제로 인식하였고, 역사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역사의 원동력으로 성리학적 윤리성을 거부하고 지리를 주목하거나 時勢를 논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은 역사의 인식 대상을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확대하였으며, 우리의 고대사에서부터 당대사에 이르기까지 그 인식의 시대적 범위를 확대시켜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연구에 있어서 사료비판의 중요성을 논하기도 하였다.

실학자들은 민족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전통적 華夷觀의 극복을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중국과는 구별되는 自我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그들은 조선의 존재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삼한과 가야사에 대한 인식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다. 『海東釋史』(1823)에 비록 “諸小國世紀” 속에 기재하고 있지만 ‘加羅’와

NOT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NOT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NOTE

제21기 가야학아카데미

| 가야 연구의 흐름과 시각 |



Part _ 9

가야사 새로 읽기



주 보 돈

경북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1. 새로운 가야사 이해

가야(加耶, 한자의 표기는 매우 다양하다)란 용어를 고구려·백제·신라 등과 마찬가지로 단일한 독립국가의 국명이라 인식해서 사용함이 일반적 경향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이다. 가야는 결코 삼국처럼 단일한 국가를 가리키는 국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야는 단 한 차례도 국가들의 통합을 경험하였던 적이 없었다.

가야사는 정치적 독자성을 강하게 지닌 여러 세력이 제각기 분립한 상태에서 시종일관하였음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들을 총칭해서 흔히 가야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들은 정치적 통합을 겨냥해 줄기차게 노력하였다. 가야 전체를 나타내는 임나(任那)는 그런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하나의 가야를 지향한 데서 나온 용어가 바로 임나였다.

그러나 가야는 끝내 기도한 바의 목표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데에 실패하고 분립의 상태로 시종(始終)하다가 마침내 6세기 중엽 신라에 병합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들을 하나의 가야로 묶어서 마치 삼국과 구별되는 하나의 정치세력인 듯이 여겨졌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다.

가야의 실상을 밝혀내기 위해 활용되는 가장 기초적·기본적 사료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속에 들어가 있음은 두루 아는 바와 같다. 다만, 두 사서 자체만이 아니라 거기에 실린 각각의 가야 관계 사료가

동일한 시각과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 아니라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新羅本紀)는 가야가 김해(金海)에 위치한 금관국(金官國, 가락국)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마치 하나의 통합된 왕국이었던 듯이 기술하고 있다. 한편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흔적의 편린(片鱗)도 곳곳에 남겨 자체 모순을 보인다. 이를테면 지리지(地理志)에서는 가야가 독자적인 국명을 가진 여러 정치세력들이 각 지역별로 병립한 상태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삼국유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첫머리인 왕력편(王曆篇)에서는 삼국과 나란히 김해의 가락국(駕洛國)을 열거하였다. 기이편(紀異篇)의 말미에는 왕력편처럼 고려 문종(文宗) 연간에 쓰인 자료를 저본으로 삼아 축약 정리한 금관국의 역사인 「가락국기(駕洛國記)」를 싣고 있다. 반면, 기이편에는 ‘오가야(五伽耶)’란 항목을 따로 마련해 가야가 단일한 국가가 아니며, 적어도 6-7개로 헤아려지는 정치세력으로 분립된 상태였음을 밝혀두었다.

이렇듯 가야의 역사를 다룬 두 기본 사서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갈래의 내용을 별다른 해명도 덧붙이지 않은 채 나란히 기록해 두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학에서는 이들 두 기록을 적절히 배합해 가야는 비록 끝내 통합하지는 못하였지만 줄곧 하나의 연맹체(聯盟體)로 기능하였다는 가설(假說)을 만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가야는 연맹체의 명칭인 듯이 인식되었다. 이들이 가야란 이름 아래 동일한 정체성과 문화를 공유하고 그 중 가장 유

력·우세한 국가가 맹주(盟主)로서 연맹체를 이끌어간 것으로 상정하였다. 가야가 마치 하나의 국명인 듯이 오인한 것도 바로 이런 사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만일 가야가 성립 이후 멸망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하나의 연맹체를 구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대상이다. 그와 유사한 실례는 달리 세계사에서 쉽게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야의 단일 연맹체 가설이 역사적 실재로서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려면 뚜렷이 밝혀야 몇몇 핵심적 사항이 있다. 연맹체란 과연 무엇이며, 그토록 오랜 기간 존속 가능하였던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화되고 운영되었던가. 이런 실상이 제대로 드러남을 전제로 해서만 그 가설은 비로소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런 검증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오로지 선입견만으로 가야는 줄곧 하나의 연맹체로 존속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였을 따름이다. 물론 연맹체 설정을 가능하도록 한 나름의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다. 바로 건국신화이다.

가야의 건국신화는 두 계통만이 전해지고 있다. 금관국(남가라) 중심의 건국신화와 고령(高靈)에 위치한 가라국(加羅國, 대가야) 중심의 건국신화이다. 이 두 신화를 근거로 『삼국유사』 오가야조를 적극 풀이함으로써 마련된 가야 단일 연맹체 가설이다.

그리하여 금관과 가라가 각기 선후(先後)해 맹주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가야 연맹체를 이끌어간 것으로 풀이하였다. 금관이 먼저 맹주로서 가야를 주도한 시기를 전기(前期), 가라가 주도의 시기를 후기(後

期)로 명명하였다. 이로써 가야사는 크게 두 시기로 양분된다는 기본틀을 만들었다. 이런 추정에 입각해 가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연맹체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이로써 그 명칭을 마치 단일한 국명인 듯이 사용해온 것이었다.

그러나 과연 연맹체라면 그 결성 과정과 전개, 맹주의 역할과 기능, 구성 정치세력들 상호 관계, 조직체의 구조나 체계, 운영 방식 등 기본적 실태가 밝혀져야 마땅하나 지금까지 그런 시도는 거의 없었다. 무조건 연맹체를 전제하고서 오로지 금관과 가라 두 유력 정치세력만을 중심으로 가야사의 전개를 이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너무도 많은 부분이 사상(捨象)되어 이상한 모습의 가야사상(加耶史像)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최근 한국고대사의 연구 수준 전반이 크게 향상되면서 가야 단일 연맹체설은 존립하기 어렵게 되었다. 현재의 빈약한 기록조차 가야는 분립 상태로 서로 치열하게 다투는 경쟁 관계였음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확보된 고고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양상이 간취된다.

가야의 여러 구성 정치세력들은 경쟁하면서도 서로 교섭·교역·교류하였다. 그 결과 어떤 하나의 교역권(交易圈)이나 관계망(關係網)을 이루어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가운데 때때로 바깥으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인 성격의 군사 동맹이나 연합 세력을 결성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된다. 기왕처럼 무조건 항구적인 단일한 연맹체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가야사는 이제 전면적인 재구성을 기다리고 있다

고 하여도 좋을 것 같다.

그럼에도 아직 단일 연맹체 입론을 근거로 전·후기로 나누거나 양대 맹주의 존재 등속과 같은 이해는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듯하다. 이제 두 유력 세력 중심의 서술로부터 벗어나 각국의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연구가 꾸준히 쌓여간다면 오래도록 오도되고 방치된 가야사상은 새롭게 재정립될 수 있을 터이다.

2. 가야사의 실상에 대한 접근

가야는 끝내 단일한 왕조국가를 일구어내지 못한 채 독립된 여러 정치세력으로 분립한 상태에서 멸망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가야가 마치 단일한 정치체로 기능하였거나 혹은 하나의 문화공동체를 이룬 듯이 비쳐질 만한 나름의 몇몇 근거는 있었다.

첫째, 가야 사회의 출범에 앞서 변한(弁韓)이라는 연맹체가 존재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변한이 4세기 초반 전면적 재편을 거친 결과 가야사회가 출범한 것이다. 그렇다고 변한이 곧 가야라는 등식(等式)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의 과정에서 내부적 변동을 겪어 개별국가들의 소장성쇠(消長盛衰)가 뒤따랐다. 이로 말미암아 변한은 저절로 해소되었지만 거기에 작동되던 운영상의 일부 요소는 그 뒤에도 이어졌을 공산은 있다. 그것은 변한의 구성 세력 일부의 국명이 승계된 사실에서 유추된다.

둘째, 가야가 비록 통합되지는 않았지만 인근의 백제나 신라와 접촉하고 경쟁하면서 스스로는 이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의 정치적 운명공동체란 인식을 공유해 갔을 가능성이 크다. 유력한 세력들 주도 아래 정치적 통합을 겨냥해 치열하게 경쟁 대립하면서 공동체 인식이 점점 다져졌으리라 여겨진다. 영역을 접속한 큰 세력, 특히 인근 신라로부터 압박을 강하게 받자 이에 대처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면서 그런 인식은 더욱 굳혀졌을 듯하다.

셋째,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교류·교역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의 관계망이 갖추어진 사실이다. 이로 말미암아 가야 제국들 사이에는 저절로 상당한 정도의 문화적인 공통 기반이 마련되었을 것 같다. 이는 고고발굴로 확보된 자료를 통해서 뚜렷이 입증된다.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무덤의 위치가 평지가 아닌 약간 솟아오른 구릉(丘陵)이나 산릉(山陵)인 점, 수혈식석실분(竪穴式石室墳)과 같은 고총(高塚)을 축조한 점, 토기의 겉모습은 물론 기종(器種)과 유물의 부장(副葬) 양상 전반 등에서 그런 측면이 뚜렷이 간취되다.

이상과 같이 가야는 정치적 분립 상태에서도 인접한 신라와는 확연하게 대비(對比)되는 문화적 공통분모를 지녔다. 그런 상황에서 단일한 정치체로의 통합을 줄곧 추구함으로써 단순한 문화권 수준을 뛰어넘어 마치 하나로 작동하는 단일 정치체인 듯이 비쳐졌다.

뒷날 정리된 사서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속에서 가야가 마치 하나로 통합된 단일 국가인 듯이 정리되거나 혹은 『일본서기』처럼 하나의 국가를 의미하는 임나가 존재하였던 듯이 기술한 사실도 그런 배경 아래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가야가 결국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처럼 가야는 독립성을 지닌 여러 정치체로 분립되었다가 멸망에 이를 때까지 끝내 하나의 단일 국가로 통합되지 못한 데에 주요한 특징이 엿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개별 국가들 각각의 구체적 실태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과제라 하겠다.

기왕에 오래도록 『삼국유사』 오가야조에 의거해서 가야의 구성 세력

은 6개 정도였던 듯이 간주해 왔다. 그러나 가야 관련 문헌을 점검하면 국명이 확인되는 것만 대충 헤아려도 20개를 상회한다. 그 수치도 언제나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상당한 부침(浮沈)의 과정을 겪었다. 각 정치세력이 성립기부터 오래도록 한결같은 상태로 유지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므로 가야사의 전모는 이들 개별국가들의 내부 구조 및 존재 양상, 그들 상호 간의 관계와 항방 등등이 제대로 밝혀질 때 비로소 선명히 드러날 터이다.

그렇지만 문헌자료만으로는 지극히 단편적인 실상만 추정될 따름이다. 각국의 규모나 지배체제, 운영 양상 등 기초적인 사항을 추적할 만한 실마리는 거의 없다. 그나마 증가일로에 있는 고고자료가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주나 이들을 매개로 문화적인 양상의 윤곽만을 대충 더듬을 수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미흡한 수준에서나마 가야사를 복원하려면 일단 가능한 한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문헌상 가야를 구성한 각국 사이의 교류나 상호 관계, 나아가 삼국과의 외교적 교섭 등을 통해 그들의 존재 양상을 추적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되겠다. 기왕에도 그런 입장으로 접근하였지만,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접근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비쳐질 터이다.

지금껏 대체로 금관이나 가라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사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경향이 짙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금관과 가라가 선후하면서 연맹체의 맹주였다고 설정해 전기가야와 후기가야라는 기본 틀을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접근은 도리어 가야사의 내용을 적지 않게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너무도 빈약하게 만든 측면이 강하였다. 다른 많은 정치세력들은 외면하거나 도외시해버린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그들과 줄곧 경쟁한 유력세력임이 확실한 안라(安羅, 다른 여타 가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를 뺀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는 안라의 실상과 그 흐름을 살피면 단번에 드러나는 사실이다.

안라는 3세기의 변한 단계까지는 안야(安邪)로 불리었지만 4세기 이후부터는 줄곧 그런 국명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안라는 아마도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안야를 아화(雅化)시킨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국명의 변화 속에는 그동안 달라진 제반 양상까지 담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국명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어나간 점에서 다른 경쟁 세력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안라의 지배세력은 정치적 변동 속에서도 기반을 거의 변함없이 굳건하게 이어나간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안라를 가야 여러 세력 가운데 각별히 주목해 보도록 하는 요소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가야사를 이해하는 중심축에서 안라는 밀려나 있다는 느낌이다.

이런 실상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서는 가야를 구성한 여러 정치세력들 상호 관계나 공간적 범위를 더 넓혀서 주변 제국과의 관계 및 그 변화 양상을 다루어야 한다. 내부의 구체적 실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접근하기 힘든 자료상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원한 부득이한 방법이기도 하다.

3. 4~5세기 국제관계로 보는 가야; 자립화의 모색

동아시아 세계라는 차원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면 4~5세기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재편을 거치던 시기이다. 이는 북방으로부터 유목생활을 경제적 기반을 삼던 흉노(匈奴), 선비(鮮卑)를 비롯한 이른바 5호(胡) 세력이 남쪽 황하 유역의 중원 일대에 자리 잡기 시작한 데서 촉발된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서진(西晉) 왕조가 남쪽의 양자강 방면으로 옮겨감으로써 황하 유역은 5호가 세운 여러 왕조가 짧은 기간 나왔다가 사라지는 혼란상이 현출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흔히 5호 16국(國)시대라고 부른다.

중원 일대의 그런 분위기에 어우러지게 한반도에서도 커다란 격동의 상황을 맞았다. 압록강 유역을 주요 근거지로 삼아온 고구려가 바로 그 무렵 남쪽 대동강 방면으로 눈을 돌렸다. 이 일대에는 중국의 군현으로서 오래도록 전진기지의 역할을 해온 낙랑(樂浪)과 대방(帶方)이 존재하였다. 고구려는 낙랑과 대방이 본국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고립된 틈을 타서 313~4년 전격적으로 공격을 감행해 영역으로 편입시켰다.

거기에서 발생한 주민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연쇄적 파장을 몰고 왔다. 삼한 사회는 그 영향으로 커다란 혼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마침내 재편을 크게 겪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로 마한을 기반으로 백제가, 진한을 기반으로 신라라는 통합 왕조국가가 출

현하였다. 변한은 하나의 통합된 왕국을 이루지 못한 채 가야사회로 전환하였다.

이런 변혁을 거치면서 성립한 삼국이 자체 존립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함으로써 한반도의 분위기 전반은 확연히 달라졌다. 특히 북방의 강자 고구려가 중원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배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남하정책을 적극 펼침으로써 야기된 일이었다. 고구려와 영역을 직접 접촉하면서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강한 경쟁의식을 지닌 백제가 그에 적극 대응하고 나서자 한반도는 크게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을 맞아갔다.

고구려와 백제 두 강대 세력 주축으로 해서 치열하게 대결하는 국면이 펼쳐졌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나라는 각기 내부 역량을 착실하게 쌓아나가는 한편 인접 국가들을 우호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데 힘을 쏟았다. 이제는 기왕의 단순한 교역·교류의 수준을 뛰어넘어 가야호로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 즉 외교가 중요시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져가고 있었다. 그동안 남쪽에서 진행된 흐름을 관찰하면 흐릿하게나마 가야의 실상도 드러난다.

한강 유역의 통합에 성공한 백제는 마한 연맹체의 영향권 아래에 놓였던 정치세력을 그대로 장악하기 위한 정복전에 나섰다. 정복군주 근초고왕(近肖古王)은 369년 영산강 유역에 자리한 마한 잔여 세력을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마침내 남해안까지 이르렀다. 당시 마한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던 변한의 권역, 즉 가야로 진출하는 데도 성공한 것이었다. 가아는 각국이 분립된 상태를 여전히 유지하였으나 그로써

백제의 강한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 셈이었다. 백제는 이후 언제나 가야 사회에 정치적·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후견자로 자처하였다.

한편 백제는 그 여세를 몰아 바다 건너 왜와도 연결하는 관계망을 구축하였다. 동시에 백제는 372년 선진문물을 입수하기 위한 창구로서 양자강 유역에 등지를 튼 동진(東晉)을 선택해 돈독한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때의 연계망의 구조는 이후 약간의 변화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6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거의 그대로 이어졌다는 데에 주요한 특징이 엿보인다.

백제는 한반도 동쪽의 신라와도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여러 차례 접근하였다. 통일국가를 이루는 데 성공한 신라는 선진문물의 입수 창구인 낙랑과 대방의 소멸로 그 대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던 중이었다. 그런 도중에 백제의 손짓을 받았으나 신라로서는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놓고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한동안 유·불리를 저울질하였다. 그러다가 가야권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압박해오는 백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 마침내 더 강자였던 고구려를 우호세력으로 선택하였다. 고구려도 백제를 뒤에서 견제하는 데에 신라의 도움이 절실하였으므로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우호관계를 맺었다.

이처럼 4세기의 격변을 거치면서 한반도에는 삼국이란 통일국가와 가야사회가 출현하고 고구려와 백제란 강대 세력을 중심축으로 삼은 관계망이 갖추어졌다. 고구려는 신생의 신라와, 백제는 가야 및 왜를

끌어들여 우호관계를 맺음으로써 두 개의 벨트가 대결하는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두 그룹의 주축이라 할 고구려와 백제가 계속 경쟁하는 한 언젠가는 결단을 위한 최후의 대결이 불가피한 형국이었다.

이 두 그룹이 대치하면서 긴장이 차츰 고조되어 마침내 점차 한바탕 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아갔다. 그런 실상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 5세기 초에 건립된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이다. 이 비문에서는 고구려가 당시 가장 주적(主敵)으로 삼은 대상이 백제였음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4세기 이후 한반도 여러 정치세력의 관계는 두 나라를 기본 축으로 해서 전개된 것이었다.

고구려와 백제는 371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서 치열하게 접전을 벌였다. 그러다가 391년 광개토왕이 즉위한 뒤에는 두 주축만의 싸움을 뛰어넘어 벨트 간의 대결로 비화되어 갔다. 한반도 전체가 전장화(戰場化)한 셈이었다. 396년 고구려가 한강을 건너 백제의 왕성을 공격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때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고구려는 배상금을 받는 정도로 만족하고 백제의 항복 요구를 순순하게 받아들였다. 그 직후부터 백제는 도리어 고구려에 대한 보복전을 꾸준히 준비해갔다. 그를 위해서 백제는 가야와 왜의 군사력을 동원하였다.

이런 대치 국면에서 백제는 신라가 고구려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던 듯하다. 그래서 고구려 대상의 공세를 펼치기에 앞서 신라를 먼저 제압해둬야 순서라고 진단한 것 같다. 백제는 399년 가야와 왜를 사주해서 연합병력을 편성하여 신라 공격에 나도록 유도해 왕성인 금성(金城)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왕성을

잃고 일단 북쪽으로 피난한 나물왕(奈勿王)은 긴급하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고구려에 알리고 구원을 요청하였다. 고구려는 그에 부응해 이듬해인 400년 보기(步騎) 5만의 대병을 낙동강 전선으로 투입해 신라 구원에 나섰다.

고구려와 신라의 연합군은 백제 주도의 연합세력을 대파하고 신라 왕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싸움의 결과 신라는 가야권 가운데 낙동강 이동 지역을 완전하게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낙동강은 이제 신라와 가야 사이의 국경선으로 기능하는 등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내륙에 위치한 가라(대가야)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교통로를 시급히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후 고구려는 신라의 내정 깊숙이 간여하기 시작하였다. 그 정도가 점점 지나침으로써 친고구려 입장의 실성왕조차 매우 부담스럽게 느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433년 백제와의 사이에 우호 관계를 맺었다. 이후 신라는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벗어나 자립화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넓혀갔다. 이로 말미암아 국제관계상에서 상당한 변화가 뒤따랐다. 신라와 가야 및 왜도 이를 계기로 일시 우호적 관계로 돌아선 것이다. 이후 한반도에서는 한동안 고구려만이 고립되는 형국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433년부터 즉각 신라가 고구려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이 아니었다. 신라는 양면외교의 입장을 적절히 취하면서 점차 백제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갔다. 마침내 신라는 464년 군사 고문단의 형식으로 자신의 왕정에 주둔하던 백여 명의 고구려 병력을

일시에 몰살시키는 일대 작전을 감행하였다. 이로써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완전한 파탄을 맞았거니와 국제질서 재편의 큰 신호탄이 올라간 셈이었다.

사실 고구려는 신라가 그와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백제의 은근한 추동이 작용하였으리라 판단한 듯하다. 때마침 국왕 중심의 내부 개혁을 추진해가던 백제의 개로왕(蓋鹵王)은 설정한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자 국제정세 전반이 자국에게 유리하게 흐른다고 판단해 고구려에 선제적(先制的) 공세를 취하였다. 개로왕은 일방 고구려의 변경을 침공해 싸움을 유발하며 동시에 472년에는 북위에다 국서(國書)를 보내어 고구려를 극력 비난하면서 공격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그와 같은 백제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 적당한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던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은 사전의 철저한 준비 작업을 거친 끝에 마침내 475년 백제 대상의 전면전에 나섰다. 그 결과 백제의 왕성인 한성(漢城)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사로잡아 죽이는 전과를 올렸다. 백제로서는 엄청난 시련의 국면을 맞은 셈이었다.

백제와는 달리 신라는 머지않아 고구려의 대대적인 공세가 뒤따라 리란 예상을 하고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전국에 걸쳐 주요 교통로나 군사적 요충지에다 축성함으로써 방어망을 철저히 구축해가는 한편 왕경의 방비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475년에는 임시로 왕궁까지 명활산성으로 옮겨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이런 대비는 신라가 이후 전개된 고구려의 파상적 공세를 무난히 견뎌낼 수

있었다.

이처럼 이 시기 동아시아 세계의 국제관계에는 바야흐로 커다란 변동의 움직임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가야사회도 특별히 바깥과는 무관하게 무풍지대로 남았을 리 만무한 일이다. 그럼에도 5세기 가야의 활동 양상을 알려주는 기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내의 기록에는 겨우 백제나 신라의 움직임에 덧붙여져 약간 등장할 따름이다.

한편, 『송서(宋書)』 왜전(倭傳)에 소위 왜의 5왕(王)이 자칭한 작호(爵號)에 속에 임나와 가라가 나란히 등장하는 사실이 일단 눈길을 끈다. 아마도 그런 이름으로 가야의 존재가 국제무대에 알려졌음은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각별히 주목되는 점은 『남제서(南齊書)』 가라국전(加羅國傳)에 479년 가라국왕 하지(荷知)가 남제로부터 보국장군본국왕(輔國將軍本國王)으로 책봉된 사실이다.

바로 이때는 중국 남조에서는 송(宋)을 대신해 제(齊)가 건국한 바로 그 시점이었다. 하지가 보낸 사신이 공교롭게도 남제의 건국을 축하하는 사절의 역할을 다한 셈이었다. 첫 통교였음에도 남제로부터 책봉을 받은 것은 바로 그런 사정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라의 실체를 놓고서 약간의 논란이 있다. 안라 혹은 금관으로 보려는 견해도 있으나 글자 그대로 고령의 대가야(가라)로 봄이 유력하다. 가라국왕 하지가 혼자 힘으로 바다 건너 남제에 사신을 파견하여 동아시아 국제무대에 얼굴을 처음 내민 것은 백제의 내부가 무척 혼란스러운 사정을 적당하게 활용한 결과로 여겨진다.

가야 제 세력은 근초고왕 이후 백제를 선진 문물 입수의 창구로 삼음으로써 사실상 그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야 가운데 가장 유력·우세한 가라가 혼자 힘으로 남제에 나아간 것은 일종의 자립화·자주화 선언이나 다름없는 행위였다. 그럼에도 대(對)중국 방면 사신의 파견이 겨우 한 차례만으로 그치고만 것은 직후에 백제가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일 듯싶다. 백제로서는 가야의 독자적 움직임과 영향권 이탈을 그대로 가만둘 리 만무하였다.

그에 대해 가야가 즉각 반발하였는지 어떤지는 분명하지 않다. 가야 여러 세력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자립화를 추구해가려는 한 백제와의 갈등과 마찰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언젠가는 그것이 폭발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5세기는 비록 가야의 움직임과 관련한 구체적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자립화를 준비해간 시기라고 진단할 수 있다.

가라가 온갖 위협을 무릅쓰면서 남제에다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한 데에는 가야 사회 내부의 경쟁에서 우위(優位)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도 강하게 깃들여 있었을 터이다. 다른 세력의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여겨진다. 유력한 가야 세력들은 물밑에서 미구(未久)에 닥칠 주도권 경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암중모색하던 중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5세기는 가야의 입장에서조차 역시 변화를 예비해가던 시대였다고 평할 수 있겠다.

4. 6세기 초 가야의 자립화 추구하고 실패

앞서 언급한 것처럼 5세기 후반 한반도 남부 지역 여러 정치 세력 사이의 관계에는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신라와 가야가 고구려와 백제 등 선진국의 우산으로부터 벗어나 자주화·자립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진 사실을 손꼽을 수 있다. 마찰이 표출되어 관계망은 새로이 재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과정에서 변화의 계기를 제공한 결정적 사건은 백제의 남천이었다. 웅진 천도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탓에 백제는 여러모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기존의 내부 지배질서는 물론 주변 세력들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랐다. 백제가 한강 유역 상실에 따른 보상을 가야의 권역에서 찾으려고 시도함으로써 호시탐탐 자립의 기회를 노리던 가야와도 마찰을 빚기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백제의 정복군주 근초고왕은 369년 영산강뿐만 아니라 섬진강, 낙동강 유역권까지 진출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당시 모든 지역의 정치사회적·문화적 형편이나 수준이 한결같지를 않았다. 그런 까닭에 백제는 각 지역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관계를 달리하였다. 낙동강 유역권의 가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배 기반을 그대로 인정해준 상태에서 정치적 동맹자 관계를 유지해간 것 같다. 아마도 그 밑바탕에는 원래 변한 연맹체 소속으로서 종족적·문화적인 격차가 있기도 하였으려니와 이들을 적극 활용함으로

써 신라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바닥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섬진강이나 영산강 유역권은 공납(貢納)을 매개로 한 이른바 간접 지배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거의 방임하다시피 자치적인 상태로 놓아두었다. 이들은 원래 마한의 권역에 편입되기는 하였으나 위낙 백제와의 문화적 낙차가 컸을 뿐만 아니라 생산력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뒤따라 직접 지배하기에는 효용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진단하였기 때문일 듯하다. 그로 말미암아 일단 영토로 편입시키기는 하였으나 본격적인 지배와 경영은 일단 보류해 둔 상태였다.

본거지인 한강 유역의 상실이라는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맞아 수세에 몰리고 또 내부의 혼란을 거듭하던 백제로서는 501년 무령왕(武寧王)이 즉위하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되찾았다. 이제 잃어버린 한강 유역에 대한 경제적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되었다. 한강 유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앞으로 재흥을 도모하기 위해 그를 탈환하려면 그를 일정한 수준에서 보충해줄 새로운 안정적 배후지 확보가 절실하였다. 그럴 때 대상으로 자연스레 부상한 것은 근초고왕이 장악하였으나 거의 미개발의 상태로 내버려두다시피 한 지역이었다. 백제는 이제 이 방면에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섬진강과 금강 상류 일대의 사정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았다. 이 지역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가라(대가야)가 진출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가라도 일률적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다.

가라가 이 방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는 400년 신라의 요청에

의한 고구려 대병력의 낙동강 유역권 진출이었다. 낙동강은 신라와 가야 사이의 국경선으로 고착되어 교류·교통하는 수단으로의 기능은 거의 막히다시피 한 상태였다. 가야 여러 세력 가운데 강자로 부상해 가던 가라는 특별히 내륙이라는 불리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 통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를 목적으로 최종 선정한 대상이 바로 섬진강 방면이었다.

사실 이 일대는 그동안 백제 권역으로서 가야와의 접경지에 해당한다. 백제로서는 오래도록 방치해둘 정도로 별로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긴밀한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가라가 남해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를 개발해 섬진강 방면과 금강 상류까지 진출하였음에도 이를 묵과해 주었다. 4세기 중엽 이후 줄곧 가야와 우호 관계를 맺어온 백제로서는 그것이 한결 유리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가라가 낙동강 통로를 잃게 된 주요 원인 제공자는 백제였다. 그래서 가라의 섬진강 진출을 잠정적으로 허용해준 데에는 일종의 보상 심리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이미 언급하였듯이 가라가 단독으로 남제와 교섭한 사실은 백제의 심기를 적지 않게 불편하도록 만들었을 것 같다. 가라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신호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시 백제로서는 한강의 상실로 당면 위기 상황, 준비되지 않은 급작스런 천도, 내부 지배세력 사이에 전개된 정쟁(政爭) 등으로 당장 응징할 만한 겨를을 갖지 못하였다. 백제로서는 내부의 안정적 기반 구축과 회생이 훨씬 긴급한 과제였다. 가라도 백제의 그

런 사정을 이용해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셈이었다.

그러나 내부의 안정을 어느 정도 되찾자 주변 세력의 이탈 움직임에 대한 백제의 대응은 확연히 달라졌다. 동성왕대에 영산강 유역권이 잠시 공납을 거부하려는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책은 그런 사정의 일단을 잘 반영한다. 가야사회의 사정 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였다.

동성왕을 뒤이은 무령왕은 농업생산력의 향상을 추동하는 방편의 하나로서 가야 지역으로 도망가서 살던 주민을 살살이 찾아내서 원래의 거주지로 돌리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다른 한편 영산강 유역을 비롯한 남해안 및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해서 영역으로 본격 편입시키고 개발해 나갔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저절로 가라와의 대립과 마찰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백제와 가야의 오랜 우호 관계 전반은 근본적인 재편의 상황을 맞았다.

백제는 먼저 512년 전남의 남해안 일대로 진출해 이 방면에서 4현(縣)이란 행정구획을 설정해 직접 지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4현의 설치 문제는 자연히 이 지역에 대해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가라와의 사이를 매우 끈끈하게 만들었다. 가라가 즉각 반발해 백제와의 사이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그럼에도 백제는 가라의 강력한 항의에 아랑곳 하지 않고 더욱 동진(東進)하여 이듬해 513년에는 가라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있던 기문(己汶)과 대사(帶沙)까지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두 지역은 가라가 남해안으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양대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 같다.

대사가 섬진강 입구인 하동(河東)임은 분명하지만 기문의 구체적 위치를 둘러싸고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다만, 대체로 섬진강 상류 일대로 비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 듯하다. 어쨌든 백제가 두 지역에 대한 진출을 통해 노린 것은 경제적 기반의 확대는 물론 자립화를 추구해 나가려는 가야, 특히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가라를 강하게 압박해가려는 데에 있었다. 내륙으로부터 해안으로 나아가는 주요 수단인 섬진강 유역이 막히자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은 가라는 즉각 저항하였다.

가라는 514년부터 섬진강 이동의 군사적 요충지 곳곳에다 축성 작업을 벌여 봉수저각(烽候砥脚)을 두고 상호 연결망을 갖도록 조치하는 등 자체 방어를 위한 대비책을 적극 강구하였다. 한편, 이런 기회를 틈타 혹여 백제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신라가 배후에서 공세를 가해올지도 모른다고 판단해 이 방면에도 축성 작업을 펼쳤다. 가라로서는 두 강적으로부터 양면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긴박한 위기 국면을 맞아가고 있었다.

이후 한동안 이 지역의 향방에 대해서는 기록상으로 선명하지가 않다. 아마도 그런 대치 상태가 그대로 이어짐으로써 소강의 국면을 맞지 않았을까 싶다. 백제가 북쪽 고구려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운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신라와는 조심스럽게 기존 우호를 거듭 확인해 나가면서 고구려를 견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521년 백제가 남조의 양(梁)나라에 사신을 파견할 때 신라 사신이 동행한 데서 유추되는 사실이다.

신라가 국제무대에 처음 얼굴을 내민 것은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377년과 382년 두 차례에 걸쳐 전진(前秦)에 사신을 파견한 일이었다. 이후 무려 150년만에 이번에는 백제의 도움으로 양에다 사신을 파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아직 신라가 독자적인 힘으로 국제무대에 이름을 올리기가 힘든 형편이었음을 뜻한다. 신라로서는 지리적 여건을 비롯한 내부 역량 등 동아시아 외교무대에 독립으로 활동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뒤따랐다. 그와 같은 모습은 바로 521년의 사정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양직공도(梁職貢圖)」에서 확인된다.

백제는 바로 이때 자신들이 고구려를 격파해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양나라에 자랑삼아 내세웠다. 당시 무령왕이 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의 작호를 받게 된 것도 양나라가 그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바로 이 무렵 양나라가 고구려의 안장왕(安藏王)을 영동장군(寧東將軍)으로 책봉한 사실에 견주면 백제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작호를 부여해준 데서 유추된다. 이때 백제는 자신을 중심으로 주변 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결에는 조그마한 나라로서 반파·탁·다라·전라·사라·지미·마련·상기문·하침라 등이 있는데 (우리 백제에) 부용해 있습니다(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附之)」「(梁職貢圖) 百濟國使條

이 기사는 백제가 양나라를 대상으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할 의도를 깔고 있으므로 실상과 달리 상당 부분 과장이나 왜곡이 깃든 외교적 수사(修辭)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대등한 동맹국인 신라가

지 마치 자신의 부용 소국인 듯이 내세운 데서 명백히 유추되는 사실이다. 백제가 신라를 굳이 사라(斯羅)로 표현한 데서도 그런 측면이 엿보인다.

그와 매우 비슷한 양상은 하필 반파(叛波)라는 국명이 사용된 데서도 엿보인다. 반파는 가라(대가야)의 근거지인 고령 일대만을 국한해서 낮추어서 가리킬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칭(卑稱)이었다. 한자로서는 ‘叛波’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서기』의 표기인 ‘叛波’도 별로 좋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동원한 것은 가라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한껏 낮추려는 데에 있었다. 이때 가라(반파)의 사절이 함께 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용법 속에는 당시 백제의 가라에 대한 인식이나 관계의 실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백제가 기문과 대사로 진출한 사실을 기록한 『일본서기』에서도 하필 이 무렵 전후에서만 유독 가라를 반파(叛波)로 표현한 것이다. 백제는 가라와의 우호관계에 틈이 생겨나고 대립적 상황이었을 때에만 유난스레 반파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 반파는 매우 의도적 입장에서 당시 두 나라 관계를 드러내는 용법이라 하겠다. 백제의 진출로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대립 갈등이 그대로 「양직공도」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위의 기사에서 각별히 주목해볼 대상은 사라를 제외한 나머지 백제에 부용된 것으로 열거된 여러 소국들이다. 이들은 중간에 놓인 사라(신라)를 기준으로 삼으면 크게 앞뒤의 두 그룹으로 나뉜다. 당시 동맹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제 사신에 동행한 신라를 굳이 약

체의 사라라 표현한 점, 그것도 첫머리가 아니라 사이에 넣었던 점에서 그와 같은 국명 배열에는 백제의 어떤 작의성이 들어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라를 기준으로 반파를 비롯한 탁(卓), 다라(多羅), 전라(前羅) 등의 앞부분은 모두 당시 가야에 소속한 국가들이 틀림없다. 이들은 모두 6세기 전반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가야의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유력 우세한 국가들이다. 탁은 탁순(卓淳)을 가리키며, 다라는 표기가 꼭 그대로 일치한다. 전라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제기되어 있으나 대체로 ‘전’의 훈(訓)이 ‘앞’인 점을 고려해서 안라로 봄이 일반적이다. 백제는 이들 가야의 유력 국가들이 자신들의 강한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음을 의도적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밖의 다른 가야 제국들은 이들 유력한 세력에 부속되었거나 아니면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태여 소개하지 않았을 듯하다.

한편 사라의 뒷부분 지명들은 그와 기본적 성격을 달리 하므로 구분해서 기재한 듯하다. 사라의 다음에 함께 묶어둠으로써 앞의 가야 여러 나라들과 구별하려 한 것이었다. 지미·마련 등의 구체적 위치를 특정(特定)하기는 아직 곤란하지만 하침라의 침라, 상기문의 기문이 이미 전남 남해안 또는 섬진강 유역에 위치한 것으로 비정되고 있으므로 이들도 모두 비슷한 방면으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듯싶다. 특히 기문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바로 얼마 전 대사와 함께 가라와의 사이에 다툼을 벌인 주요 대상지였다. 그 결과로 백제가 영역으로 편입시킨 바로 그곳이었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성격의 지역으로서 앞에

기재된 가야 여러 국가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데서 사라의 뒤쪽에다 함께 묶어 기재한 느낌이 짙다.

그럼에도 이들 각각이 마치 하나의 독립성을 유지한 소국인 듯이 묘사된 데에는 어찌면 영역화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그것이 완전하게 굳혀진 상태가 아닌 데서 비롯한 필법이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백제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부용국(附庸國)의 수를 늘리려고 한 방편에서였을 수도 있겠다. 여하튼 위의 『양서』 백제국사조는 백제의 입장에서 6세기 초의 사정을 정리한 것으로서 과장이 일정 정도 들어가 있지만 실상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로 보면 백제와 가라 사이의 논란꺼리인 섬진강 유역권 문제는 일단 백제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감으로써 일단락된 상태에서 소강을 맞았다고 하여도 무방할 듯 싶다. 그런 정황에서 달리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라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갔을 터이므로 오로지 대비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백제는 당시 머지않은 장래에 한강 유역의 탈환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라와의 결속을 한층 강화하고 배후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는 한편 내부의 안정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백제는 가야권에 대해 기왕보다 한층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제함으로써 이탈(가야로서는 자립)에 제동을 걸려고 하였다. 따라서 백제는 섬진강 방면의 기득권을 더 이상 가라에게 양보하지 않으려는 입장이었다. 그런 사정을 명확히 확인한 가라는 백제와는 드디어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대신 신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5. 위기 속의 가야와 그 결말

『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法興王) 9년(522)조에는 가야왕이 신라에게 청혼한 기사가 보인다. 같은 책에서는 그 이전 수십 년 동안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추적해볼 만한 특별한 기록이 없다는 측면에서 다소 엉뚱스럽게 여겨지는 대목이다. 신라는 가야의 요구에 부응해 이찬 비조부(比助夫)의 딸을 보냄으로써 통혼(通婚)은 결국 성사되었다.

신라에 혼인을 요청한 주체가 막연하게 가야라 되어 있지만 가라(대가야)임이 분명하다. 당시 청혼한 가라국왕이 이뇌왕(異腦王)임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고령군(高靈郡) 건치연혁(建置沿革)조를 통해서 뚜렷이 확인된다. 한편, 『일본서기』 계체기(繼體紀) 23년(529)조에도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어떤 가라왕과 신라 왕녀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진 사실과 함께 몇 년 뒤에는 파경(破鏡)을 맞기까지 이르는 전말(顛末)이 한데 뒤섞여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혼인과 얼마 뒤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 자체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가라와 신라가 통혼 관계를 맺기까지의 배경이나 과정 등을 제대로 보여주는 단서는 『삼국사기』를 비롯한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때에 갑작스레 혼인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어떤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추정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다. 그

럴 때 앞서 소개한 백제의 기문·대사 진출로 야기된 가라와 대립, 갈등 사건을 주요 배경으로 헤아릴 수밖에 없을 듯하다. 가라는 백제의 군사적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백제가 한층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려고 적대국인 신라 쪽으로 눈을 돌렸던 것이라 생각된다.

기록상으로는 그 사이에 진행된 구체적 실상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라는 백제의 심진강 방면 진출이 일단락된 514년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을 찾아서 크게 고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상된다. 그 결과 가라와 신라 두 나라 사이의 교섭이 상당히 진척되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외교상에서 벌어지는 통상관례를 살피면 흔히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동맹은 기존의 수준을 한층 더 돈독히 하려는 의도로 진행되게 마련이었다. 가라와 신라 사이에도 이미 잦은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 정점에 이르러 통혼까지 성사된 것이라 풀어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가라는 통혼이 성사된 522년 이전의 어느 시점에 백제와의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521년 백제와 신라 사신이 함께 양나라에 나아간 사정도 바탕에 작용하였을 것 같다. 백제가 신라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이어가면서 강경책을 구사해오는 마당에 가라는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신라에 접근함이 최선책이라고 여긴 듯하다. 두 나라가 동시에 협공을 가해온다면 가라는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라를 외교적 동맹 세력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가라는 신

라와의 통혼을 통해 두 나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함으로써 백제를 견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당시 가라의 기대와는 전연 판판의 생각을 품고 있었다. 신라는 겉으로는 가라의 외교적 접근을 순순히 받아들였지만 내심 이를 오히려 가야 권역으로 진출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통혼은 어디까지나 그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자 책략이었을 따름이다. 이는 혼인이 성사된 바로 2년 뒤인 524년 법흥왕이 낙동강 하구 방면으로 영역을 넓혀나간(南境拓地) 사실에서 뚜렷이 방증된다. 가라가 이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전의 정지작업이 바로 혼인동맹이었던 셈이다. 이후 신라는 한층 더 노골적으로 본심을 드러내었다.

가라는 신라가 품은 속셈을 뒤늦게 간파하였다. 그래서 그를 견제하려는 반응을 내비치자 두 나라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마침내는 파국을 맞기에 이르렀다. 『일본서기』 계체기 23년(529)조에는 혼인과 파탄에 이르는 사정의 대강이 일목요연하게 순차적으로 편년(編年)되지 않은 채 마구 뒤섞여서 모두 같은 해에 함께 벌어진 일인 듯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529년은 사태의 최종적 결말을 나타낸 시점일 뿐이다. 이미 그 이전 가라의 이뇌왕과 신라의 왕녀 사이에 뒷날 월광(月光) 태자라고 불린 아들까지 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이때 완전히 깨어지고 만 것이었다.

신라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강하게 압박을 가해오는 백제를 저지, 견제하려한 가라로서는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영역을 접속한 두 강대 세력 사이에 끼어서 직접 맞서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셈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가야 내부에서조차 주도권은 경쟁국 안라로 넘어가고 가라의 위상도 점차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신라는 그런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였다. 한때 번성을 누렸지만 당시 가장 약체로 전락한 상태였던 낙동강 하구의 금관(남가라) 및 그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탁기탄(曠己呑)까지 함께 공략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신라는 낙동강 이서 방면으로 본격 진출하려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었다. 바로 이 전후 무렵인 531년 백제는 안라의 경역인 걸탁성(乞毛城)에까지 진출해 서쪽에서 가야를 위협하던 중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가야 전체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 그래서 가야가 다 함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놓고 논의하였을 것임은 상상키 어렵지 않다.

가야가 두 강대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가라 주도의 대응책이 실패로 돌아간 뒤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은 안라였다. 안라는 가라에 버금가는 기반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안라 주도의 가야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부의 공고한 결속이었다. 형편상 그를 발판으로 백제와 신라의 공세를 저지시킬 만한 현실적 도움을 외부로부터 받아야만 하였다. 아마도 529년 안라의 주도로 열렸다는(내용으로 미루어 실제 회의가 열린 것은 이때가 아니라 금관이 소멸한 532년 직후였을 가능성이 크다. 계체기 23년 기사의 편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안

라회의는 그런 점에서 주목해볼 대상이다.

안라는 이때 국제회의를 여는 장소에다 고당(高堂)을 새로 지어서 백제와 신라 및 왜(倭)를 초빙하였다. 그러나 고당의 회의장에는 왜의 사신만 주변으로 오르도록 허용하고 백제와 신라의 사신은 당하(堂下)에 머물도록 조치하였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가야 제국으로서 백제와 신라에게 왜와의 친밀함을 과시해 일종의 타협안을 모색해 보려는 몸짓이 아니었을까 싶다. 내부적으로는 안라가 주도권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후 그런 의도가 일정한 효과를 거둔 까닭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백제와 신라의 공세는 한동안 소강상태를 맞은 듯하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기록은 없다. 그동안 가야 내부에서 안라가 차지하는 위상은 현저히 높아져갔으리라 여겨진다. 그런 사정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541년과 54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이른바 임나부흥회의(任那復興會議)이다.

신라는 540년 전후 무렵 가야 대상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그 결과 유력한 가야 세력 가운데 하나였던 탁순을 멸망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가야는 다시 엄청난 위기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탁순은 『삼국지』 단계인 3세기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던 국명이다. 『일본서기』 신공기(神功紀) 49년(369)조에 이르러서 가야의 유력한 7국 가운데 하나로서 처음 이름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변한에서 가야로 이행해가는 혼란상을 틈타 새롭게 부상한 나라였음이 분명하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6세기 초의 「양직공도」에도 유력한 가야 4국 가

운데 하나로서 이름이 등장한다. 이로 보면 탁순은 4세기 초반 이후 6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대략 2백 년 동안 줄곧 가라, 안라, 다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유력 세력으로서 기반을 유지하였음이 확실하다. 다만, 탁순의 구체적 위치를 놓고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탁순이 멸망한 직후부터 안라와 신라가 큰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사실로 미루어 낙동강과 그 지류인 남강(南江)이 만나는 부근 일대로 추정함이 적절할 듯하다.

그것은 여하튼 탁순의 멸망이 가야 사회에 던진 충격은 작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특히 위기에 직면한 가야 사회를 이끄는 입장인 안라로서는 이제 바로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신라와 대치하는 상황을 맞았다. 탁순의 소멸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인접한 안라였을 터였다. 이제 가야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일단 내부의 결속력을 다져가면서 한때 불화를 겪었지만 오랜 기간 우호적 관계였던 백제에 기대는 길뿐이라 판단한 것 같다. 이후 안라 주도 아래 백제와의 교섭이 적극 추진되었음은 그를 증명한다.

가야 제국은 안라가 주축이 되어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면서 백제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사절을 공동으로 파견기로 결정하였다. 541년 안라가 이끈 7국의 사절단은 백제 왕도인 사비(泗水)로 나아갔다. 이를 흔히 1차 임나부흥회의라 부른다. 기록상 안라가 첫머리에 기재된 점, 다른 나라의 사절은 1인씩인 반면 안라만이 차한기(次旱岐)를 3인이나 파견한 점 등으로 미루어 안라가 주도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동안 가장 유력하였던 가라의 사절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기(旱岐)가 아닌 상수위(上首位) 1인 뿐이었던 점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가라가 백제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가야 내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떠한지를 시사해준다.

사비에서 진행된 1차 임나부흥회의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탓인지 3년 뒤인 544년에 다시 가야 제국이 함께 모여 백제로 나아갔다. 이를 2차 임나부흥회의라 부르고 있다. 이때에는 541년에 견주어 구성상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1차에서는 보이지 않던 사이기(斯二岐)가 새로이 가담함으로써 참여국이 8개로 늘어났다. 한편, 인적 구성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뒤따랐다. 안라에서는 3인의 차(下)한기에서 1인을 줄여 2인만이 참여하였으며, 다라에서도 하한기(下旱岐) 대신 이수위(二首位)의 직함을 지닌 인물로 교체하였다. 그 이유나 배경은 알기 어렵지만 역시 첫머리에 기재되고 또 가장 많은 2인이 참가한 점 등으로 보아 이때 주도한 것도 역시 안라였음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20년쯤 지난 뒤인 562년 가야 제국이 전부 신라에 의해 복속될 당시 가야 구성 세력은 10개국으로 헤아려진다. 이를 임나부흥회의 참가국과 대비시키면 곽찬국(乞漣國)과 임례국(稔禮國)의 두 나라만이 두 차례 모두 참여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아마 이들도 참여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워낙 약체였기 때문에 일체를 위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다.

이상의 단편적임 몇몇 사실로도 6세기에 접어들어 백제와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가야 사회를 주도한 것은 가라가 아닌 안라로

바뀌어졌음이 뚜렷이 확인된다. 당시 가야를 구성한 여러 나라 가운데 유독 안라와 가라만이 최고의 지배자를 한기가 아닌 ‘국왕’이라고 칭하였다. 이로 미루어 가야 구성국들과 이들 두 나라 사이에는 내부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현저한 격차가 존재하였음이 틀림없다.

그 가운데 가라가 6세기 초까지는 북쪽을 중심으로 가야를 이끌었다면 남쪽에서는 안라가 유력한 기반을 구축해온 것이다. 두 나라가 중심으로 남북으로 대치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면이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안라가 항상 가라의 독주를 저지하면서 견제하였을 것 같다. 가라가 낙동강 통로가 막히자 먼 섬진강 유역으로 우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요인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가야가 끝내 단일한 통일국가를 일구지 못한 요인의 하나는 그들 비등한 두 세력이 상호 경쟁하면서 견제하는 양상이 줄곧 되풀이된 데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주변 강대 세력의 분열 획책도 작용하였으리라 여겨진다.

NOT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NOT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제21기 가야학아카데미 | 가야 연구의 흐름과 시각 |

발행처 :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Tel_ 055) 320-6800 Fax_ 055) 328-2468

발행일 : 2020년 4월

편집디자인 : 리드릭
및 인쇄처 0726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6
Tel_ 02) 3667-4945 Fax_ 02) 3667-4942

